

박범훈 前중앙대 총장
불법 담은 선율은
신심 일으키는 염불같아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4월 20일) · 주간

제942호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장아함 반니원경〉

마음을 다스려 순하게 가져라.
마음이 지옥도 극락도 만든다
마음을 쫓지 말고 주인이 되라.

학교 폭력·중독, 명상으로 대안 찾자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심성계발 보급

"10분 명상을 통해 시관관리와 긍정태도 등 삶의 방식이 변했어요. 바쁘면 바쁜대로 나를 돌아보고 여유를 찾는 습관이 생겨 학업성적도 절로 올랐습니다." 〈금강선원 10분 명상 참가자 김아영 양(청심고3)〉

"명상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학부모들이 학업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요. 명상을 통한 자기발견으로 학생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꾸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우현 양재고 교사〉

일선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폭력, 게임 중독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 심성을 개발하고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은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지난 해 협약을 맺은 금강선원의 '10분 집중명상법' 및 명상상담연구원의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를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진행한다.

'10분 집중명상법'은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2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최초 1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15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반복훈련 과정이다. 특히 한 사물을 집중해서 응시하거나 소리를 듣고 외우는 명상으로 집중력 향상과 함께 심신안정과 기억력, 학습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

10분 명상 프로그램 7월부터
국제선센터서 2박 3일 진행
학습 능력 향상에 높은 효과

명상상담학회 전국 센터서
청소년 명상캠프…감성 치유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도

10분 집중명상은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7월 24~26일 고등학생 50명, 7월 31일~8월 2일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2박 3일간 프로그램에는 특별명상지도사로 혜거 스님, 고급명상지도사에 박영희, 김우현, 오현정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혜거 스님은 "학습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회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인성변화를 위해 폭력성 및 사회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10분 집중명상의 효과에 대해 혜거 스님은 "매 회기 명상훈련에 평균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명상 훈련 전 설문조사에서 74%가 '집중력 및 학습능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답하는 등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는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이 2011년부터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1:1 지도형 심성계발 프로그램이다. '영상관법'을 통해 내적인 자기 통찰을 유도하며 걷기, 먹기 등의 오감 명상, 바디 스캔명상 등으로 감정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6월 1일부터 부산 알아차림 명상센터 등 한국명상상담학회 산하 센터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명상캠프는 혜타 스님, 김진, 이영순, 최미영 등 9명의 전문가들과 동진 스님, 원돈 스님 등 15명의 보조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경 스님은 "대학진학과 취업문제로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종교계가 더욱 나서야 한다"며 "명상에서 오는 안정감을 통해 자기자신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향후 동방대학원대 명상심리치료연구소와 함께 청소년 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삼각산 고등학교 학생 4명을 대상으로 2팀으로 나눠 자기감정 조절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청소년 언어순화, 학교폭력 예방, 입시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5월 25일부터 지도자 양성에 나섰으며 향후 종립학교 등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일선 사찰과 단체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심성계발 프로그램 일정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7월 24~26일	서울 국제선센터
	7월 31일~8월 2일	서울 국제선센터
청소년 명상캠프	6월 1~2일	부산 알아차림 명상센터
	6월 8~9일	무안 명상상담센터 쉼
	6월 22~23일	의정부 총지선원 명상상담센터
	6월 29~30일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
	7월 19~21일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
	7월 20~21일	평택 마하연 명상상담센터
	7월 26~28일	부천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8월 2~4일	광주 비로자나 명상상담센터
	8월 2~4일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
	8월 9~11일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
	8월 10~11일	제주 아란야 명상상담센터
	8월 24~25일	부산 행복한 명상상담센터
	8월 31일~9월 1일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9월 7~8일	용인 마음명상상담센터

금정총림 방장 후보에 지유 스님

범어사, 21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금정총림 범어사는 초대 방장후보자에 조실 지유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범어사(주지 수불)는 5월 21일 오후1시 설법전에서 범어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지유스님은 차후 중앙종회의 추대 승인이 있은 후, 금정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유스님은 수락사를 통해 "총림의 참 뜻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있다."며 "수행도량의 참뜻을 이어가는 총림이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이 모두 합심해서 총림지정을 원만히 회향해 한국불교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흐르는 물처럼 화두를 들어라"

전국 선원 2200여 수좌, 하안거 결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5월 24일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의 수행납자들에게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대중은 각자 화두를 성성히 챙겨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며 사물을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 비로소 자기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무한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위없는 신심과 무한한 정진의 힘으로, 일상 가운데 마음의 지혜를 계발하는 참선법을 잘 닦고 행해, 나날이 남보다 앞서는 선견의 혜안을 갖추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정·총림 방장 법어 2면



이치노헤 쇼코 스님과 일본 역사학자 2인 등 일본 지식인 3명은 5월 23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학자와 스님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日 스님·학자 "독도는 한국땅"

이치노헤 스님 등 3명 독도 최초 방문해 선언

일본 정치인들의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망언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일본 스님과 지식인들이 이를 성토하고 나섰다.

일본 스님과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3명은 5월 23일 독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독도를 방문한 사람은 최근 〈조선 침략 참회기〉를 발간한 이치노헤 쇼코 운쇼지 주지 스님과 구보이 노리오 모모야마 학원대학 前 교수, 구로다 요시히로 오사카 쇼인 여자대학 前 강사 3명이며 동행한 사가묘토 유미치 국제대학 前 교수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입도하지 못했다.

일본인 3명과 독도학당 관계자들은 이광섭 독도경비대장과 인사를 나눈 뒤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구호를 3번 외쳤다.

이치노헤 스님은 "귀국해 이런 사실이 역사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안부 할머니 日 망언 규탄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은 5월 19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 언행으로 또 다른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중일·이나은 기자

관련 의견 31면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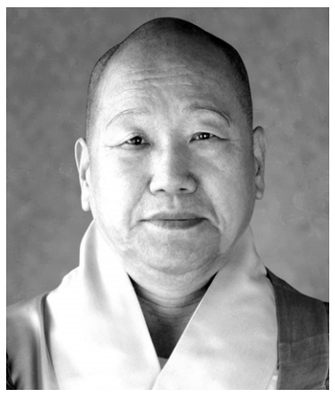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운문(雲門)의 삼전어(三傳語)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只這大死却活處(지저대사각활처)는
古佛(고불)도 亦不會到(역불회도)라
所以道(소이도)호대
只許老胡知(지허노호지)하고
不許老胡會(불허노호회)로다.

다못 이 크게 죽어 문득 산 곳은
옛 부처도 또한 알아 이르지 못함이라.
그런 연고로 이르노니,
다만 늙은 노승이 앎(知)을 허락하고
늙은 노승이 앎(會)을 허락하지 않음이로다.

금일은 계사년 하안거 입제일이라. 모든 대중은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 할지어다.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챙기되, 화두한 생각이 흐르는 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밀고 밀지어다. **〈중략〉**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이여, 사바의 일생이 가지가지로 험난한 것은 다겁생으로 지어 온 못난 죄업의 그림자가 항시 따라다녀 밝은 지혜가 가리어져 있기 때문이니, 그러한 죄업의 그림자가 다 소멸된 이는 장애가 없어 뜻하는 대로 만사를 원만히 성취해가는 법이로다.

그러니 모든 대중이 위없는 신심과 무한한 정진의 힘으로써,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의 지혜를 계발하는 참선법을 잘 닦고 행한다면, 나날이 남보다 앞서는 선견의 혜안을 갖추어 모든 악조건을 없애가리라. 금생에 견성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또다시 이 견성법을 만나리오. 모든 대중은 발심하고 또 발심하며 노력하고 노력할지어다.

석일(昔日)에 운문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대중에게 '삼전어(三傳語)'를 들어 법문하셨다.

一, 如何是道(여하시도)닛고. 첫째는, 어떤 것이 진리의 도입니까?

二, 如何是 提婆宗(여하시 제바종)이닛고. 둘째는, 어떤 것이 제바종입니까?

三, 如何是 吹毛劍(여하시취모검)이닛고. 셋째는,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모든 대중이여, 산승이 어째서 팔만사천의 방편법문들은 마다하고 항시 이러한 어려운 법문을 하는가? 범부중생이 여러 생을 사람의 몸을 받더라 해도, 가장 높고 깊은 진리의 한마디 듣는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고 매우 어렵기 때문이로다. 그 어렵고 심오한 법문이 귓전을 한 번만 스쳐 지나가더라도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의 그림자가 녹아 없어져 밝은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니, 귓전을 스치는 한 마디의 법문일지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 들어 금쪽같이 받아들여야 함이로다.

만약 사람이 있어 운문선사의 이 삼전어를 알아 얻을 것 같으면 일가견을 구비한 일방지사(一方之師)가 되어 만인을 지도하리라.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直截根源人不識(직절근원인불식)이라
忙忙業識幾時休(망망업식기시휴)리요.
바로 근원을 끊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지라,
많고 많은 업식을 어느 때에 쉬리요.

달마대사가 서쪽서 온 까닭은?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상략〉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화두는 선가(禪家)의 시작인 동시에 종문(宗門)의 끝입니다. 일천칠백개의 모든 공안이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것으로써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출가의 시작도 이것이요 열반의 끝도 이것입니다. 총림대중의 하안거 결제 역시 이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하안거의 마지막 날도 이것으로 끝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남악회양 선사가 조사서래의를 물어오자 이에 혜안(慧安)선사는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자기생각은 말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질문을 백번 해봐야 한번도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질문하는 시간까지도 공부시간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수지맞는 일입니다.

알고보면 진실한 불법은 전할 법도 없고 구할 법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사사비 선사의 " 달마대사는 중국 땅으로 온 적도 없고 제2조 혜가도 인도로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에 설봉의존 선사는 기꺼이 인가를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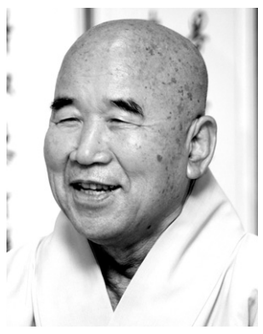
이번 하안거에 보응복우 선사의 서래의(西來意) 귀착점을 알아차린 납자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일주일 동안 방문을 닫아걸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일과 유마거사가 불이법(不二法)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던 선인의 그 살림살이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하안거에도 '조사서래의' 화두를 성성적적하게 들고 정진한다면 해젯날 서쪽을 향해 빙그레 웃게될 것입니다.

점석화위금옥이(點石化爲金玉易)거니
권인제각시비난(勸人除却是非難)이로다

"욕심의 곤궁에서 자유로워라"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대도상재목전(大道常在目前)이나
수재목전난도(雖在目前難覩)라.
약욕오도진체(若欲悟道眞體)인대
막제성색언어(莫除聲色言語)하라.

큰 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으나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네.
만약 도의 진실 체를 알고자 한다면
성색과 언어를 제하려 하지 말지어다.

세상의 일들을 세심히 관찰해 보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찾아 나선 수행자입니다. 이 몸 또한 사대로 이루어 져 한 순간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스승삼아야 간절해집니다. 잠시도 머물러 주지 않기 때문에 여유부릴 틈도 없습니다. 늙었든 젊었든 무상의 화살은 인정을 베풀지 않고 냉정합니다. 공부인에게 이것이야 말로 제일의 선지식이라 하겠습니다.

이 무상선지식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공부의 성취가 판가름 납니다. 이미 제일의 선지식을 의지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어떤 때는 까마득한 절벽 같기도 하고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략〉**

그토록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려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위태로남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차별하는 분별에서 비롯됩니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치켜들면 곧바로 단제해 버려야 합니다. 욕심의 곤궁에서 자유로워지게 하고 진실로 각자가 부자 되는 길을 깨우쳐 주는데 있습니다.

방하자재(放下自在)라 했습니다. 수행자의 흉중에는 차별심이 없어야 합니다. 나를 흐트러지게 하고 순리의 흐름을 따르면서 애써 특별한 도리를 알려하지도 말고 지혜의 그물로 무명을 결박해서 다시는 생사의 수레바퀴가 돌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략〉**

"불퇴전의 마음으로 고칙참구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나 선지자(先知者)로서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행자가 지성인으로 존경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병든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지혜롭게 치유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수행보다는 아만과 계금취견(戒禁取見)에 빠져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올바른 선지자적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성이 마비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자성(自性)은 원래 소소영영(昭昭靈靈)하여 매(昧)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각(覺)이며, 생멸이 없으므로 번뇌도 없음을 확신하고, 불퇴전의 마음으로 고칙참구(古則參究)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즉 청정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전념할 때, 고요하면서도(寂) 의식이 맑게 깨어 있는 상태(惺)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삼매(三昧)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고 하니 이 경지에 이르도록 삼학(三學)을 수행의 근본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참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태고보우 국사께서는 '시중법문(示衆法門)'에 "역력성성(歷歷惺惺), 밀밀참상(密密參詳)하라"고 하셨으며, 서산스님께서는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참구하는 공안(公案)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듯(如鷄抱卵)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如猫捕鼠) 하며, 굶주린 사람이 밥 생각 하듯(如飢思食) 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如渴思水) 하며, 어린아이가 엄마 생각하듯(如兒憶母) 하면 반드시 확철대오 할 때가 올 것이다(必有透徹之期)."라고 한 말씀들은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다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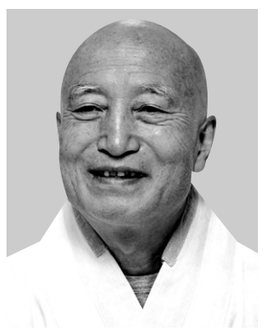
오로지 최상승선(最上勝禪)의 참구자는 이번 안거동안 방하착(放下着)하고,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마음으로 올바른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라 온 정성을 기울여 추번뇌와 세번뇌를 항복받고, 반드시 공적영지(空寂靈知)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향유하기 바랍니다.

공적산당하안거(空寂山堂夏安居)
정좌가득태고음(靜坐可得太古音)
종견당전물개안(終見堂前物開眼)
녹음조가초자청(綠陰鳥歌草自青)

지극히 고요한 산사에서 하안거에 들어
고요히 앉아서 가히 태고의 소리를 얻고,
마침내 토굴 앞에 있는 만물이 눈을 뜸을 보리니
녹음 속에서 새가 노래하며 초목은 스스로 푸르도다.

"만법은 모두 마음에서 나왔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마조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대도(大道)는 닦을 것이 없으니 물들지 않으면 된다. 무엇이 물들음인가? 생사심(生死心)으로 작위(作爲)와 지향(指向)이 있게 되면 모두가 물드는 것이다. 대도를 당장 알려고 하는가?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이다. 무엇이 평상심인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가 없고, 단상이 없으며 범성이 없는 것이다. 도는 바로 법계이다. 나아가서 항하사(恒河沙) 만큼의 오묘한 작용까지도 이 법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심지법문(心地法門)을 말하며 무엇 때문에 다함없는 법등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며 일체의 명칭은 모두가 마음의 명칭이다. 만법이 모두가 마음에서 나왔으니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다. **〈중략〉**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세워도 되고, 싹 쓸어 버려도 된다. 모조리 오묘한 작용이며 그대로가 자기이니 진여를 떠나서 세울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운 그 자리가 바로 진여(眞如)이며 자기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마외도(邪魔外道)다.

일체법이 불법이고 모든 법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이 바로 진여이니 모든 법은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말해보라. 이곳에 모인 대중들의 삶은 어떠한가? 정토의 삶인가? 예토의 삶인가?

歷劫分明若大虛(역겁분명약대허)
何勞空房修禪定(하노공방수선정)
自家珍寶處處在(자가진보처처재)
通天盡地用無限(통천진지용무한)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4.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7일 (대한항공)
▶ 부처님의 나라, '실론섬'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미힌탈레(마하세야 다고바 – 부처모발)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마탈레(500비구)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숭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사찰음식 활성화 위한 학술·경연대회 열린다

웰빙 음식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찰음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6월 동안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6월 8일 오후 1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기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 금당사찰음식문화원 대안 스님, 주영하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장병주 영산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종교음식의 관광자원 현황과 사찰음식의 상품 가능성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2013 사찰음식 대축제'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종단 최초로 시행되는 사찰음식 경연행사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끈다. 경연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며 입상자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와 향후 언론 및 방송 홍보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사찰음식 원형전, 사진전 등 전시와 명인 강좌,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제5교구본사법주사(주지 현조)는 6월 2일 경내 범종각 앞에서 '2013 사찰 음식과 세계음식의 만남 -百味百樂 음식 대전'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영사 여몽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과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세계음식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전쟁 위협 없어야 한반도 경제 번영"

불교생명윤리협, 세미나 개최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스님 박광서)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이도흠)는 5월 24일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은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과 공동번영의 기초"이라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분쟁의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제2의 경제도약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비인가 군종, 출가 재원으로

출가특위 회의 지적… 청소년·군종병 출가 학교 추진

일선 대대, 중대 급에서 활동하는 비인가 군종병을 포교와 출가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일관)는 5월 22일 3차 회의를 열고 단기 출가학교와 군포교 내에서의 출가 인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입문교육 담당 은산 스님(행복한 절 주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학감 법철 스님, 8사단 팔정사 군법사 지용 스님이 참석해 출가자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법사 지용 스님은 군종병들을 출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군종병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스님은 "13년간 군법사 소임을 맡아왔지만 〈반야심경〉을 외우는 장병은 10명이 채 안된다"며 "대부분의 장병들은 불자라고 해도 불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종병은 일반 사병과 달리 군법사와 가깝게 생활하며 불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게 지용 스님의 설명이다.

특히 스님은 사단급 인가 군종병이 아닌 대대급 이하 비인가 군종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용 스님은 "비인가군종병은 집전 실력도 뛰어나고 신심도 깊다. 종단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출가로 유

지용 스님 "신병 불교 인식 無"

군포교 환경 개선 필요 '공감'

출가학교 종회 예산 상정 결의

도할 수 있다"며 "교구본사나 지역사찰에서 군종병 대상 템플스테이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군단별로 군종병 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종책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종회의원 장적 스님도 "군법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군종병들을 출가수행자로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육원 차원에서 군종병 지원자들을 교육시킨 뒤 군법당으로 파견하는 절차가 있다면 젊은 출가자 양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청소년과 군종병 대상 출가예비학교를 추진해 출가자 확대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교육원에서 출가예비학교 관련 법과 제도, 예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7월경 4차 회의를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또한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앙종회에 예산을 상정해 내년부터 청소년과 군종병 출가예비학교를 시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철 스님이 단기출가학교 현황과 이에 대한 출가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행자교육 담당 은산 스님은 행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밖에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스님들의 유발상좌 제도, 영유아 수계제도와 연계한 장학프로그램을 지속시켜 예비출가자를 육성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노동자,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시설 노동자 초청 법회

매일 첫차를 타고 출근해 청소와 경비 업무를 진행하는 시설 노동자들. 이들을 사회에서는 '유령'이라고 부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달픈 시설 노동자들을 위한 위로하기 위한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덩자와 함께하는 동사섭 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노동자 초청 형식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 노동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벌은 수 조원을 은행에 유휴자금으로 예치하면서 부당해고자,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다. 사람을 떠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스님은 "자기 생각만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라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있다"며 "삶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귀하고 맑고 깨끗한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것이야말로 사람다운 모습이고 사람다운 정신이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노동자들을 위무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5월 23일 시설 노동자 초청 동사성 법회를 봉행했다.

이에 앞서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마경〉에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는 경구가 있다.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법회를 열었다"며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정부, 회사가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적 삶을 위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 이후에는 총무원 지하식당에서 법사 청화 스님,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을 비롯한 노동위원 스님들과 시설 노동자가 함께 저녁 공양을 함께 했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관련 법문 8면



진각종은 5월 21일 21대 통리원장 회정정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바르고, 즐거운 신행 문화 키우겠다"

5월 21일 진각종 제29대 회정 통리원장 취임법회

진각종 제29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 취임법회가 5월 21일 낮 12시 서울 성북동 내 진각문화전승관에서 봉행됐다.

회정 신임 통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종조님의 교화법은 진언수행자로 하여금 심인을 깨치도록 교화해 인과를 내증하고 당체설법을 밝게 보아서 홀로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실천하게 하는 실천법"며 "재임기간동안 종조님의 가르침을 계승해 누구나 다 진각심인을 구족한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진각 문화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주호영·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계륜 민주당 국회의원, 서남수 교육부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청년들 사찰서 출가의 길을 묻다

조계종 교육원, 6월 30일부터 2기 청년출가학교

이 시대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으로 출가를 권선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청년출가학교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남 미황사에서 제2기 청년출가학교를 개설한다.

학교장인 법인스님(교육원 교육부장)과 금강스님(미황사 주지) 가섭스님(교육원 교육국장) 원영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이 지도법사를 맡아 8박9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참가자들을 이끌 예정이다.

지도교수로는 도법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장) 정목스님(유나방송 진행자) 조한혜정 교수(연세대) 조성택 교수(고려대) 강신주 박사(철학자)가 참여해 대안적 삶으로서의 불교에 대해 강의를 펼친다.

참가를 원하는 20대 청년은 6월 23일까지 입교지원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남녀 40명을 선발하게 된다. 참가비는 9만원이다. (02)2011-1812 신중일 기자

조계종 원로, 서암 前 종정 명예회복 나서

총무원에 청원서 제출

조계종 전 종정 서암 스님이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불신임이 아닌 스스로 종정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9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은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원로회의의 서암 전 종정 스님 불신임 결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원로 스님들은 서암 스님의 승적 역시 박탈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총무부 등을 통해 서암 스님이 승려대회 전 탈종의 뜻을 밝힌바 있지만 이후 후속조치를 밟지 않아 승적이 유지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밀운 스님은 "원로회의 회의록과 총무원 승적부, 호계원 징계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서암 스님이 불신임으로 종정에서 물러났거나 체탈도첩 또는 멸빈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많은 종도들이 서암 스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일평생 수행으로 정진하신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되고 있다"고 서암 스님에 대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중일 기자

(주)예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마하연 추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1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일 주 문



故여익구 거사 1주기 추모재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6월 6일 오전 10시 정각원 법당에서 故여익구 거사 1주기 추모재를 개최한다.



태국SEM 임파워먼트 강연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태국 SEM으로부터 배우는 임파워먼트의 성공사례' 강연을 개최했다.



연꽃마을 제6회 효사랑마라톤대회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6월 2일 안성 파라밀요양원 일대에서 제6회 장애노인을 위한 전국효사랑마라톤을 개최한다. (031)671-3677



학업원만성취 성지순례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6월 13일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으로 학업원만성취 6월 성지순례를 거행한다. (02)3218-4800



제8회 이주민 문화축제

강화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아시아는 친구'를 주제로 제8회 이주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우리는 선우 6월 토요 법석

조성택 우리는선우 이사장(고려대 철학과 교수)은 6월 1일 선우 6월 토요 법석에서 '세계 지성인들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을 주제로 강연한다.

윤이상평화재단 새 이사장에 영담 스님



재단법인 윤이상평화재단의 새 이사장에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이 선출됐다.

윤이상평화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임원진으로 임기 2년의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부이사장에 기업인 이근식 씨, 상임이사에 시인 장용철 씨 등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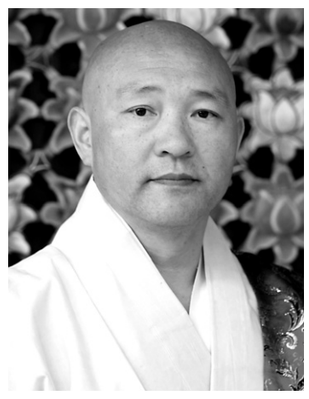
영담 스님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와 부천 석왕사 주지, 6·15실천 남측 상임공동대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윤이상평화재단은 세계적 음악가인 고 윤이상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5년 3월 18일 설립되었으며, 국제윤이상작곡상, 남북음악교류, 윤이상 페스티벌 등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사〉 문화재청 인사 발령

정부는 5월 22일자로 문화재청 국장급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 국립고궁박물관장 이귀영(李貴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소재구(蘇在龜)

"순국선열 억울함 풀어주고 싶었죠"

범패와작법무보존회장 능화 스님



11년째 현충재 이어오고 있어
인천 수봉산 정상 현충탑서
매년 6월 6일 현충재 마련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다. 수많은 목숨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주검을 바쳤고 그 넋들은 살아있는 자의 애환으로 남아 있는지 모른다. 이런 영혼을 달래는 현충재를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현충재는 범패와작법무보존회장 능화 스님〈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은 올해도 6월 6일 인천 수봉산 현충탑에서 광장에서 현충재를 마련했다.

스님은 "인천 수봉산 정상에 세워진 현충탑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순국선열의 영령을 모신 성지다. 현충재는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영원히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현충재의 시작은 2002년 현충일이었다. 능화 스님과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원들이 인천 수봉산 현충탑을 찾았을 때 흰 국화꽃 몇 송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회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나마 예를 갖추고 범패와작법무의식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회원 모두는 내년 현충일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격식을 갖춰 의식을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 다음해부터 '현충재'라는 이름을 만들어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충제가 맞지 않냐하는 전화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제(祭)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하지만, 재(齋)는 불교적 의식으로 공양을 차별 없이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종 제사음식은 물론, 범패음악의 장중하고 멋스러움과 작법무의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에 정성된 마음까지 공양하는 것이 현충재"라고 설명한다.

현충재는 매년 무형문화재 전승발표를 겸하기 때문에 보존회원 전 회원과 퓨전 국악단 구름과 피안사회복지관, 남구불교연합회, 제물포성당 주임신부 황운상 베드로, 국제성서박물관장 임봉대 목사와 불교재가불자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의 참석하고 1000여명의 관람객이 함께한다.

현충재는 △제1부 여는 의식은 법사물 연주, 법고춤 등이 △제2부는 받드는 의식으로 참석한 내빈들의 헌화와 봉헌사 봉독, 헌다 △3부는 펼치는 의식으로 사방법고춤과 해탈무 도량게 나비춤이 이어진다. △제4부는 회향의식으로 제사(금강경찬)와 남북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금강산타령, 천수바라춤 등으로 구성된다.

능화 스님은 "현충재가 끝나면 어떤 이는 잠시 선경에 다녀온 느낌이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늘도 감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우국충절 선현들의 일체 업은 모두 소멸되고 오롯한 선근공덕으로 고통 없는 즐거움 가득한 곳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성심을 다해 현충재를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능화 스님은 인천시무형문화재 10-가호 범패와작법무 바라춤 예능보유자로 러시아국립극장, 일본국립극장, 미국 뉴욕카네기홀 공연, 명인명무전 출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개막초청공연 등을 가진 바 있다. 동국대대학원 철학박사, 동국대평생교육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2006 인천시 문화예술상 수상, 2010 종교인 대상수상(서울신문)을 수상했으며 (사)한국박물관협회 범패박물관 관장, 인천·제주 구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정혜숙 기자**

불자 배상문 골퍼, PGA 첫 승

5월 20일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2008년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
어머니 해인사서 우승 기원 기도

불자골퍼 배상문(27·캘러웨이) 씨가 5월 20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 2년만에 첫 승을 거뒀다. 최경주, 양용은에 이은 한국인 세 번째의 쾌거다.

배상문 선수는 미국 텍사스주 어빙 포시즌스 TPC에서 열린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로 키건 브래들리를 2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8·2009년 한국 상금왕에 올랐던 배 선수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뒤로 하고 2011년 과함히 일본무대에 도전해 일본상금왕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미국무대에 도전한 끝에 2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배 선수는 우승인터뷰에서 "꿈꿔 오던 일이 현실로 이뤄졌다.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배상문 선수는 독실한 불자로 2008년 12월에는 불교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제1호 홍보대사에 위촉된 바 있다.

배상문 선수는 "명상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해외나가면 절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 나가기 전 피곤하더라도 절을 찾는다. 산에 조용한데 가서 기도도 하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마음 수행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배 선수의 불심은 직접 캐디백을 메고 배 선수를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인 시옥희 씨(57)에게서 비롯됐다. 생후 5개월부터 홀어머니 아래 성장한 배상문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신심을 키웠다. 배상문 선수는 상금 등을 모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 배상문 선수가 이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한 중학교 1학년부터 살던 집은 물론, 자동차와 반지까지 몽땅 팔아 뒷바라지에 나선 배선수의 어머니는 배 선수의 경기가 있을 때 마다 은해사 중앙암 등에서 기도정진을 하고 있다. 시 씨는 배상문 선수가 PGA 첫 승을 하는 순간 합천 해인사 홍제암에서 밤새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인환 스님, 동국대에 1억원 쾌척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이 김희옥 총장에게 한국불교학 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하고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동국대 원로교수인 정릉 경국사 한주 인환 스님이 동국대에 1억원을 쾌척했다.

인환 스님은 5월 22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한국불교학 진흥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전달했다.

인환 스님은 이날 전달식에서 "김희옥 총장 부임 이후 동국대 인프라가 개선되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모든 동국인이 힘을 모아 기치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신뢰받는 대학, 교육연구에 충실한 대학,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인환스님은 1931년 원산에서 출생해 1952년 부산 선암사에서 원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과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96년 정년퇴임까지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2011년부터 2년간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역임한 인환 스님은 재임 중 △21세기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간화선 국제학술 대회 매년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연구인력 양성사업 △한국불교학 진흥기금 모연사업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한국 불교기록 유산 집성을 위해 전국 사찰 소재 자료 전수조사 실시하고 북한 및 해외소재 자료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한국 불교학의 발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 **노덕현 기자**

세계불교종단聯, 원효대사다례재



세계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현불)는 5월 19일 청주 충북불교회관에서 원효대사다례재를 봉행했다.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혜강 능인)이 주관한 이날 다례재에는 400여 대중이 운집했다.

회장 현불 스님은 "원효 스님은 상주불변의 무위법을 깨달은 호국 승려로 화쟁사상(和諍思想)으로 민족화합의 새 장을 열었다"며 "다례재에서 우리도 같이 마음을 밝혀 만유를 감싸 안는 자비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인덕스님의 공진보원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들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10세트 이상 대량주문시 **특별우대** 합니다. 상담연락 주세요.

부모님, 감사한 분에게 선물로 최고

인덕스님의 공진보원은 그 동안 인터넷카페로만 신도분들과 조금씩 만들어 나누던 공진보원을 이번에 한아바이오텍과 제휴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재료와 정성과 마음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인덕 합장



내용량 250g(5g×50환) ₩250,000원
제조원 : 한아바이오텍(부산 진구 제 353호)

구입문의 및 상담전화 :
070-7374-4650
농협 : 302-0496-4978-41 한아바이오텍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교환, 환불 및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재료 : 녹용상대(러시아) 15.1%, 당귀(국산) 15.1%, 산수유(국산) 15.1%, 홍삼(국산) 7.5%, 숙지황(국산), 사인(중국산), 오미자(국산), 꿀(국산), 침향(인도네시아산)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원력의 20돌…경주 불교 문화 지키며 대중화



지난 5월 6일 열린 신라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축하떡 절단식을 하고있다.

창립 20주년 맞은 경주 신라문화원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신라불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방'과 같은 곳이다. 매주 첫째 주 토요일마다 경주 남산 불적답사를 본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고, 충담 스님을 기리는 충담재를 비롯해 문화재 지킴이, 신라달빛기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경주 신라 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전개해 해온 신라문화원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5월 6일에는 이사장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을 초청해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불교신문 경주지사, 선다원 찻집을 모태로 1993년 3월 18일 개원한 신라문화원은 지난 20년 간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NGO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 보존과 일자리를 동시에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원인만큼 신라문화원의 사업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93년 경주 남산 지도를 제작·배포해 남산의 불교 문화재들의 현황을 알렸으며, 어린이문화학교, 문화재해설사 양성 교육, 1가구 1문화재지킴이 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주남산 지도는 현재 5쇄 5만부가 대중에게 제공됐으며, 2000년부터 시작한 어린이문화학교는 접수가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또한 문화원은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1994년 시작한 경주 달빛신라역사기행은 2003년 경상북도 '머무는 관광'으로 선정돼 연인원 4만여 명이 다녀가는 경주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 수학여행지였던 경주의 특성을 살려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도 신라문화원의 대표 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지난해에만 31회, 2천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옛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이와 함께 신라문화원은 문화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현재 문화원은 신라문화체험장, 경주고택, 신라문화원문화재보존활용센터 등 3곳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회 사회적기업의 날에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경주, 포항을 비롯한 경상북도 동남부 10개 지역 문화재의 경미한 보수 및 상시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돌봄사업단과 60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창출기관인 경주시니어클럽 등 5개 기관에 전체 직원 65명과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7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진병길 원장은 "경주관광이 1970~80년대 사진, 1990년대 가이드 위주였다면 최근 추세는 점점 체험위주로 변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경주의 문화재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국통일의 토대가 된 정신문화의 소재를 찾아 경주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다"며 "이를 통해 경주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테마로 경주를 거듭해 찾을 수 있는 단골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불교 대중화에도 앞장

개원 당시 '불교 대중화'와 '신라문화 알리기'를 기치로 내걸었던 신라문화원은 지역 불교 대중화 사업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신라 고승 충담 스님을 기리는 차문화 축제인 '충담재'를 올해로 24회째 봉행하고 있으며, 년 2회 스님 초청 법회를 열고 있다. 올해에는 혜 국 스님과 종광 스님을 초청했다.

또한 불교문화대학을 매년 열어 부처님의 참된 진리와 교리, 사찰예절 등 불교 대중화에 필요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불교 대중화, 신라문화 이해 기치 걸고 1993년 3월 개원

남산 지도 제작해 성보 파악 달빛 기행 등 관광 상품 개발

문화재 보존, 사회적 기업 등 외연 확장… 문화 NGO 자리매김

지난해부터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남산 불적 잡사' 승려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80여 명의 스님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기도 했다.

진 원장은 "충담재의 경우 불교의 육법 공양, 헌공 다례부터 문화재·다도 체험, 문화 공연, 지역 다기 전시·판매 등을 진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불자와 스님들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지역 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고 작은 인연이 20년 버팀목

신라문화원이 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진 원장의 원력이 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사학과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부터 경주 지역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원력을 세운 그는 1993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신라문화원을 이끌고 있다. 크고 작은 부침도 있었지만 오로지 원력 하나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국가 기관 문화원이 아니다 보니 운영 과정이 수월한 적이 없다. 매번 운영비가 모자랄 때마다 농사짓는 부모님이 전답을 팔아 도와주셨고, 경주 문화운동을 좋아하는 뜻 있는 후원자들이 독려해 지금의 신라문화원이 설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개원 당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염려했던 분들은 1~2년을 못 버틸 거라 염려도 했다"며 "크고 작은 인연들을 버팀목 삼아 원력을 가지고 일하니 2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 단체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경주 대표 문화 단체로 성장한 신라문화원은 향후 지역 문화재를 활용할 관광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 반경 20km에 많은 사적과 유물이 산재돼 있지만 현재 경쟁력이 잃고 있기 때문이다.

진 원장은 "경주는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가 담긴 곳이다. 한번 온 관광객들이 다시 경주를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매력적 인프라가 가득하다"며 "특히 관광기념품은 방문지역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지역 경제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경주의 대표관광기념품도 한번 점검을 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93년 3월 18일 신라문화원 현판식. 진병길 원장의 원력 불사로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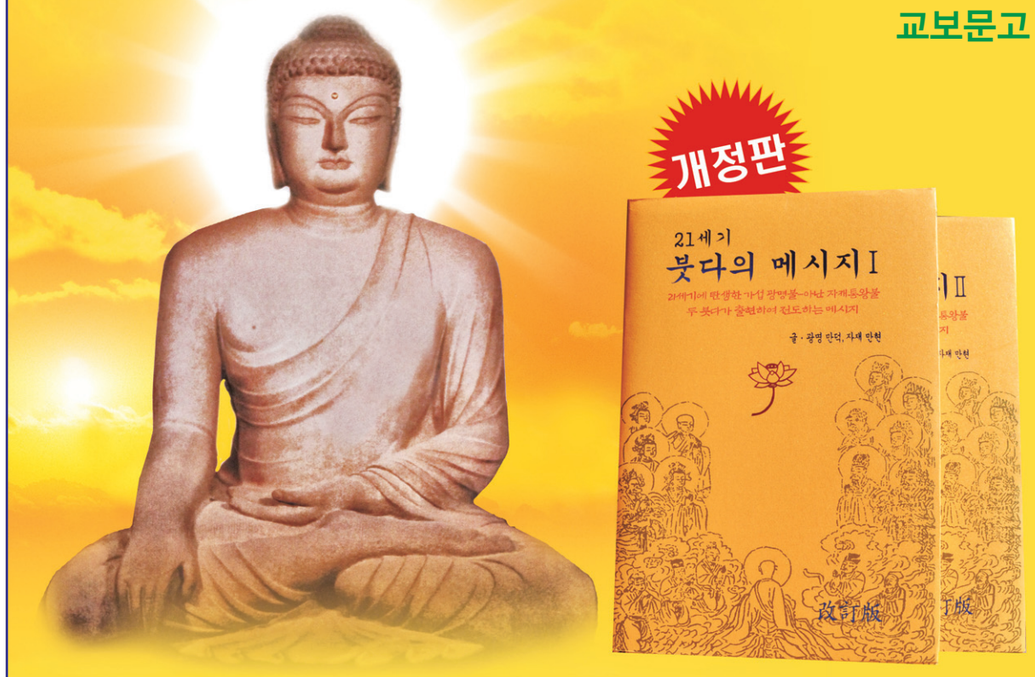
1999년 시작된 신라불교문화대학1기 강좌.


지난해 처음 열린 조계종 스님 대상 남산 불적답사 프로그램.


신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불교성지순례프로그램에서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참가자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

불교계, 호국보훈의달 추모행사 '풍성'

천태종, 6월 1일 현충일 추념 법회

조계종, 6월 8일 호국영령 천도법회

불교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조계종은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14회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천도의식과 추모법회, 문화행사 등 3부로 나뉘어 열리며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과 원태호 국군불교종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는 6·25전쟁 당시 피난 생활을 일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먹밥과 생수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태종은 6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풀이 공연 등 식전행사와 현충탑 참배에 이어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이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충일인 6월 6일에는 불교단체들의 참배가 이어진다. 신행모임인 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도 6월 6일 오후 2시 각 지역법당 별로 현충원에서 호국영가 추모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 범패와작법무보존회(회장 능화)는 6월 6일 인천수봉산 현충탑에서 현충재를 개최한다.

이밖에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삼천사 주지)와 조계종 은평구협의회(회장 원담·수국사 주지)는 6월 15일 은평구청에서 '제25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와 세계 이슈 토론해요

불교여성개발원,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 진행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불교계 차세대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GEP) 과정을 운영한다.

5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되는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 프로젝트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와 세계 평화를 실천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5월 25일부터 11주간 매주 토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박포리 美아리조나 주립대 부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애주 동국대 영문과 교수,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 등을 강사로 △현대불교의 실천적 가치 생생한 미국 불교 이야기 △불교 교리 이해 △영어로 소개하는 템플푸드 △불교 교리 이해 △서구의 불교전파에 대한 고찰과 한국불교 젊은이를 위한 전략 등을 주제로한 강연이 열린다.

재단법인 보덕학회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불교여성개발원 소속 영108회원 외 20~30대 청년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1년 제1차 GEP는 25명의 학생이 참여해 그 중 8명의 학생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의 논문 번역서를 만들고, 컨퍼런스 발표 통역을 수행하는 성과를 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의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동국대 국제선센터 6월 1일 영어법회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은 6월 1일 오후 2시 국제선센터 대각전에서 데이빗 메이슨을 초청해 영어법회를 연다.

데이빗 메이슨은 이날 '한국 불교에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교예술품과 믿음체계, 수행의 특징이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강의를 한다. 이 밖에 해외 불교인들이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주요 종단의 교류 전망 등에 대해 종합 강의를 진행하며, 청중과 토론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미국 출신의 데이빗 메이슨(경주대 문화관광과 교수)은 한국에서 29년을 거주하면서 불교사찰지와 한국 산(山)의 종교성을 연구했다.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한국불교백과사전〉 출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부부끼리 애정·불심 한번에 'OK'

정기법회 여는 부부불자모임





매년 연등회에 참가하는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사진 왼쪽).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바라밀부부회'는 봉사단을 조직해 연말마다 경로잔치를 열고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자비의 김치 나누기'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생활과 살림살이로 바쁘게 사는 평범한 부부들에게 둘만의 시간을 갖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 초기의 사랑은 금새 식어버리고, 대화시간도 줄어들면서 서로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부부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해야 한다. 친구 같이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관계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

이런 가운데 몇몇 사찰에서는 부부법회를 열어 부부들이 봉사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새로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980년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 건립된 **법안정사 부부불자회**(회장 윤광진)는 올해로 20년째 부부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4~50대 부부들로 구성된 불자회는 600여 회원이 활동 중으로, 목동지역에 10개 지부를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 법안정사에서 정기법회를 진행하며 스님과 법사를 초청해 주제별 법문을 연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 무상사 국제선원 주지 대진 스님 등 다양한 명사가 초청법문을 진행했다.

이밖에 지난 3월 2일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초청법사로 기념법회를 찬불기타그룹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초대돼 공연을 펼쳤다.

부부불자회는 회원들이 법회 후 지부별로 모임을 갖고 동호인 활동을 활발히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홈페이지(www.buban.org)에 △교육분과 △봉사분과 △상조분과 등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법회와 주요행사 및 복지관 봉사활동 일정 등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경조사 소식도 나눔으로써 친목을 다져나간다.

법안정사, 홈페이지로 운영 체계화

혜원정사, 부부가 함께 신행활동

대관음사, 남편·아내위한 발원문

부부불자회는 이러한 신행활동에 그치지 않고 소외이웃을 돕는 등 사회에 환원도 한다. 2011년에는 가을 자선음악회를, 그리고 2012년에는 자선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활용했다.

뿐 만아니라 불자회는 각자 활동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봉사에 동참한다. 봉사팀은 요일별로 인원과 장소를 정해 봉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한다.

주로 서울과 종로의 노인복지관을 찾아 무료 급식봉사를 하거나, 승가원 장애아동 시설에서 목욕봉사 및 지역 내 독거 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문안 인사드리기 등을 실시한다.

부부불자회 관계자는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 부부들과 함께 도반이 되는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 동참해 성스러운 인연으로 참된 진리를 배우고 수행 정진하여 '자신과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복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고산) 연꽃부부회는 부부애를 과시하면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산 스님의 뜻에 따라 1995년 창립된 연꽃부부회는 부부가 함께 신행활동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들은 150쌍이 넘는 300여 명으로 구성돼,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법당에 모여 법문을 듣고 사찰 운력 활동을 한다. 거사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점등탑 조립을 하는 동안 보살들은 법회 뒷정리와 설거지 등을 돕는 식이다.

이 밖에 부부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조촐하게 마련했던 경로잔치를 혜원정사의 연례행사로 키웠으며, 소외이웃을 위해 봉사활동과 재정적 지원활동도 꾸준히 한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 바라밀부부회는 2004년 창립된 부부불자모임이다. 매월 법당에 모여 부부들은 저녁예불과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갖는다. 특히 회원들은 정기법회에서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108배를 하며, '남편을 위한 발원문' '아내를 위한 발원문'을 독송해 부부애를 돈독히 한다. 또 모범이 되는 부부불자에는 '부부바라밀상' 등을 시상해 올바른 부부신행활동을 독려한다.

바라밀부부회는 지역에서 이색포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불교대학 신입생포교를 위해 웨딩카퍼레이드를 여는 것. 부부들은 개인 승용차에 웨딩카처럼 풍선으로 장식하고 경산시내, 대구광역시 일대를 줄지어 주행하면서 한국불교대학 홍보를 한다.

또한 부부회는 봉사단을 조직해 연말마다 경로잔치를 열고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자비의 김치 나누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상도선원, 더프라미스에 500만원 지원

"동티모르에 물 탱크 1개 설지할 수 있어"

상도선원(주지 미산)이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에 동티모르 식수 프로젝트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더프라미스는 "현재 아수마노 마을은 초등학교 화장실이 사용불가하고 대상 지역 주민을 위한 수도시설이 없고, 해당 지역 95% 가구의 여성들이 매일 수원지까지 급수를 위해 2시간을 왕복하는 상황"이라며 "상도선원의 후원으로 동티모르 아수마노 지역에 물 탱크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더프라미스는 파이프를 지원해 초등학교 화장실 시설과 급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프라미스 관계자는 "현재 파이프 공사가 시작됐으며, 오는 11월에 완공 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은 모두 급수지원을 받게 되며 공용수도 4개가 건설된다.

이어 관계자는 여기에 수도 별로 오염방지를 위한 울타리, 배수시설, 쓰레기통 설치와 향후 10년간 지속 사용할 수 있는 설계와 수질 및 수량 검사가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광화문 글판'에 가락을 넣으면?

대불청, 30일 7시 '쓰담쓰담 통통콘서트' 개최

20~30대 청년을 위한 책과 음악이 함께 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5월 30일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쓰담쓰담 통통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등병의 편지'를 노래한 가수 김현성을 비롯해 이광석, 달로와, 정은주, 신희중 등이 출연하며, 김보경 북칼럼니스트가 특별손님으로 나온다.



공연에서는 교보문고 빌딩에 상설 전시돼 있는 '광화문 글판'에 관한 시와 노래가 첫 선을 보인다.

대 불 청 은 "대중은 문학을 통해 생각이 즐거워지고, 음악을 통해 귀가 즐거워지며, 템플스테이라는 공간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8-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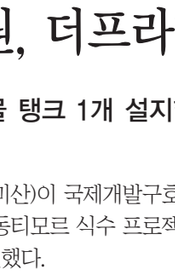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명사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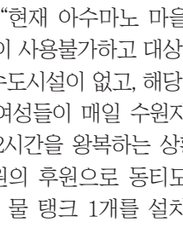
◆ 주 제 : 격국格局 과 용신用神으로 운運 보는 법

◆ 강 사 : 송월스님
군산대학교 전담교수, 필리핀 ERIST대학교 전임교수

◆ 저 서 : 사주풀이법수, 신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비결



◆ 내 용 :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본 특강은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 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가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송월스님 저

◆ 일 시 : 2013년 6월 6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 7시까지 (5시간)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특 강 료 : 20만원
◆ 접수장소 : 관음출판사 ◆ 전 화 : 02)921-8434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208호(2층)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암, 치매, 각종 통증! 척추교정으로 대부분의 질병 다스릴 수 있다.

30년 통증해결사 (MBN 천기누설 18회 '척추편' 방영)

진골척추 교정법연구소 임상만 소장은 현대인들의 허리 관련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 화제다. 진골척추교정요법은 경추, 흉추, 요추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틀림에서 비롯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오는 근관절질환과 내장질환, 피부질환, 치매의 병변등은 척추 교정법만으로 해결되며, 통증이 개선되고 몸이 편안해 지는 교정요법이다. 진골척추교정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뼈를 만지고 굳혀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근육이 발달한 젊은 사람일수록 치료기간이 짧고 노약자나 여성들의 경우 근육이 약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치료시간이 짧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척추교정분야에서 30년의 경험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5분정도의 척추교정요법으로 아주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라도 통증이 해결되며 치료 성공률도 99%의 성공률로 언론매체에서도 알려진바 있다. 임 소장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안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두통, 목의통증, 어깨통증, 엉덩이통증,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의 통증등 100여가지가 넘는다. 이 밖에 위장장애, 고혈압, 간질환, 요실금, 신경질환에도 척추교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 소장의 탁월한 능력은 고질적인 아토피, 습관성 유산 불임등을 치유시켜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추천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희대 한의대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그 기술의 뛰어남은 대내외적 으로 입증해 왔다. 이와 함께 암 통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암치료의 부작용감소로 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TV 방송에 출연하여 척추통증에 관한한 유명 인사였던 임 소장은 척추의 형태만 보고도 통증이나 병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향후 진골척추교정법의 뛰어난 부분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13년 3월 30일 토요일자 6면
2013 POWER & TOP LEADER 기사중에서

“천년고찰이 주민 돌봐야”… ‘투명’ 운영 원칙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맞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으로 꼽혔던 곳이다. 최근 이곳에 재개발 ·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이 지역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려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 미타사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곳에서 15년 동안 노인, 어린이 · 청소년, 장애인, 지역주민 등을 위한 계층별 지원 사업에 힘써왔다. 1998년 구립시설로 문을 연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고 미타사 정수암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불타의 자비구세 보살정신으로 고통의 현실을 극락 정토화 한다’를 기치로 삼고 성동구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다.

성동구 지역은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재개발 등으로 저소득 세대와 일반 세대가 혼합돼 있다. 또 저소득 세대와 일반 세대가 혼재 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경제소득의 차이도 커 복지혜택에 대한 욕구 또한 상이하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세밀하게 조사해 저소득 세대를 위한 기본적 생계형 서비스뿐 아니라, 일반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족문화체험과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매년 70여 종 이상의 복지프로그램을 남녀노소를 위해 실시하는 것. 특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부응하는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수준별 영어회화반, 웰빙댄스, 고급 컴퓨터반 등을 개설하고 있다.

상담치료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복지관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화아동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자람방과후교실’을 비롯해 문수방과후교실, 선재방과후교실, 반야청소년교실 등 방과후교실을 운영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람방과후교실’에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과 전문상담을 받고 학교 및 일상 등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 아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온종일 돌보고 치료하는 ‘서울형데이케어센터’와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호 · 관리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모두 운영해 노인복지에 힘쓰고 있다.

한은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최근에는 아이와 가족,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보급하는 ‘에코리더스쿨’과 아이의 정서개발을 위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놀이프로그램 ‘마미플레잉스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부터 지역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민들이 옥수역 광장에서 열린 ‘옥수문화축제’를 즐기고 있다.

상덕 스님, 50년 지역 주민과 함께해

저소득 · 일반세대 맞춤복지 지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부터 지역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옥수역 부근에 마련된 광장과 미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매년 옥수문화축제를 개최한 것이다.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은 5월 24일 열린 ‘제4회 옥수문화축제 꽃보다 당신! 끼 페스티발’에 참가해 춤 · 노래 등 장기를 뽐내고 전통놀이마당, 가족체험마당, 먹거리마당 등 부대행사를 마련해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성동구청장 복지시설 우수 운영 표창패’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복지발전 표창장’을 받는 등 결실을 맺었다.

상덕 스님은 50여 년간 성동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 미타사 정수암 주지 소임을 보면서 어린이 · 청소년법회와 거사회 · 신도회 등을 설립하고 여성성직자 모임인 삼소회 활동, 비구니 꽃꽂이회 회장, 구청불자회 창립 지도법사, 한국전력 반야회 지도법사, 서울시 복지관협회 이사 등 수많은 직함을 갖고 있다. 신행활동에 머물던 불자들을 지역별, 나이별, 직장별로 모아 신행회를 창립하고 단체에서 도움을 요청받으면 어디든 찾아갔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던 스님은 1996년 복지관을 세우고 부처님 자비를 나누겠다는 서원을 하던 중 성동구에 복지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바로 구청장을 찾은 스님은 “이 지역에서 50여 년을 가까이 살았으니, 주민을 위해 봉사하게 도와달라. 천년고찰이 주민을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스님의 믿음직한 모습을 본 구청장은 스님께 운영을 위탁했고, 상덕 스님은 서울시에서 비구니 최초로 사회복지관장을 소임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고 있다.

구릉지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 감개무량하다는 상덕 스님은 “사찰을 운영하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운영한다. 부처님 자비로 복지를 실현하면 인연이 인연을 낳고, 공덕이 공덕을 낳는다”며 “우리의 운영 원칙은 ‘투명’이다. 6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투명한 마음으로 임한다”고 성공비결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전부를 바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신뢰하는 일터,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복지관으로 만들어가겠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평균연령 77세, 실버연극제 동상 수상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 제5회 거창실버연극제서 열연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은 ‘노인, 새 되어 날다’라는 제목으로 재개발 열풍 속에서 고향마을 지키려는 다섯 노인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이 거창실버연극제에서 동상과 개인우수 연기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5월 23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에 따르면 조경호(83), 조국래(82), 김만수(68), 황복연(83), 강형자(70) 어르신으로 구성된 센터 내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이 최근 폐막한 제5회 거창실버연극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것.

‘활기찬 실버, 즐거운 연극,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5월 6~16일 경남 거창연극학교 장미극장에서 열린 연극제에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전북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노인극단이 참여해 끼와 열정을 발휘했다.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은 ‘노인, 새 되어 날다’라는 제목으로 재개발 열풍 속에서 고향마을 지키려는 다섯 노인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직접 무대를 꾸몄을 뿐 아니라 각자 맡은 인물에 감정을 이입해 대사와 연기를 직접 구성하는 등 공연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극중 ‘옥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황복연 어르신은 빼어난 연기력으로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김만수(68) 할아버지는 “이번엔 동상을 받았지만, 관객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면서 하루하루 사는 설렘을 느낀다. 연극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처음에는 일반교육반으로 수년간 진행되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 심화교육과정으로 편입됐다”며 “그 결과 노인이 주도하는 공연예술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더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조정옥)과 5월 23일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역 사회 내 노인학대 및 피해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호 의뢰를 통해 학대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 관리,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노인학대에 피해상담에 대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 오신날 지나도 보시 이어져

세민 · 도명 · 태성 · 종후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전달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난 뒤에도 소외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통도사 주지 도명 스님이 소외이웃에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동명 스님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15일 통도사에서 지역사회 이웃에 사용되길 바라며 약 6950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20명과 대학생 14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봉축 선물도 전달됐다. 또한 아름다운동행은 독거노인 112명에게 생활비를, 25곳의 경로당에 운영비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위해 미아방지 아동용 네임텍 3000개도 전달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은 5월 21일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실에서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세민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삼성암 총무 일진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 부처님의 자비를 절 안 뿐만 아니라 절 밖에서도 행하고자 아름다운동행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뜻을 전했다.

이밖에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이 5월 24일 500만원을, 같은 날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이 2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통도사 주지 도명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왼쪽〉과 삼성암 총무 일진 스님.

발달장애 아동 양육 대처법 특강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부모교육 6월 4일부터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신운화)은 6월 4일~7월 16일 7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발달장애 영 ·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 △가정지도 및 상호작용 방법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인천장애인부모회 박태성 회장, 센터잼연구소 이경아 소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최민숙 교수, 광운대교육대학원 최윤희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이번 교육은 아동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정 지도 방법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모 교육은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명이 모집되면 마감된다.(031)637-6720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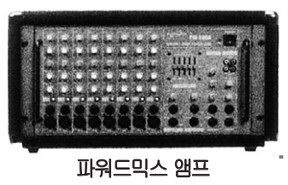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무료 보시 기한 : 2013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개 사찰)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고되고 힘들어도 맑고 깨끗한 삶 사세요”

조계종 노동위원회 시설 노동자 초청 동사섭 법회

청화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5월 24일 청소, 경비 등 시설 노동자를 초청해 동사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증명 법사로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나서서 ‘부처님 눈으로 본 노동자’ 라는 주제의 법문을 설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 노동자들을 위무한 이날의 법문을 지상중계 한다.

정리=배현진 수습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청화 스님은 … 1962년 출가. 1977년 〈불교신문〉,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평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역임. 지금은 정릉 청암사에 주석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시집〈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산문집 〈돌을 꽃이라 부른다면〉,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등이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로 마련한 법회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봉축기념일 기념식과 법회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 과연 나에게도 오셨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부처님과 내가 각각의 타인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부처님과 무연고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해도, 부처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불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마음속 깊이 축하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성실히,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처님오신날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봉축 행사도 뜻 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 딜레마에 사로잡힌 한국

현재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어딘가 답답하게 막혀있고 맺혀있습니다. 막혀있는 걸 시원하게 뚫고 맺혀있는걸 잘 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할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직접 관계있는 사측, 즉 갑의 자리에 있는 이들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때문에 쌍용자동차 부당 해고자를 비롯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자 문제가 여기저기 산재해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너무 절망스러워하고 있죠. 앞길이 보이지 않아 자살을 하고 또 병을 앓는가하면 길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안자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초나라 왕은 오만하고 방자했던 터라 제나라 사신의 기를 꺾을 궁리를 하고 있다가 성문 옆에 개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안자가 초나라 성문 앞에 당도하자 개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모멸적인 상황에서 안자는 당당히 말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성문으로 드나들고 개만이 개구멍으로 드나드는데, 저보고 이 구멍으로 들어오라 함은 제가 혹시 개나라에 온 것입니까?” 이 말에 초나라 왕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이렇듯 옛날에 있던 일이 오늘날이라고 없을까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 하지만, 이건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만 보더라도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을에게 개구멍으로 드나들라고 합니다. 권력자와 피지배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개구멍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만한 자질, 품성을 갖추었나요? 소득률만 높다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생산과 성장 중심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주변의 것들도 그에 맞는 격을 갖춰야합니다. 고도성장과 생산량은 기계가 책임지지만,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권익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덩치가 작다 하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길, 재벌은 수 조원을 은행에 유휴자금으로 예치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자,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재벌들이 돈을 모으는데, 이러한 성장일변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장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떠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여러분들의 좌절과 실의가 더해져 있는데,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말이나 해서 될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좋게 사용하라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 재능, 힘 이 세 가지가 농축된 것이죠. 이 에너지에 따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인,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좀 더 고결하고 깨끗하고 바른쪽으로 에너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을 핍박하고 타락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돌려진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결한 쪽으로, 어떤 사람은 하천한 쪽으로 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됩니다.

서양의 경우 기독교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코자 했습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종교와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의미하죠. 사회적 악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서양의 기독교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했습니다. 신이라는 절대권력을 가진 존재를 앞세워 사람들 문제점을 해결코자 한 거죠. 그러나 신의 권능으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서양 사상가, 정치지도자들이 역사 속에서는 무수히 많지요.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옷을 입었을 뿐, 부유한 자기이익, 입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부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진정한 불자

한국 노동 현실은 최악 수준
정재계 아직도 탐욕 못 벗어
사람 떠난 성장은 의미 없어

어떤 상황서도 선택은 내 몫
긍정적 에너지만이 희망돼

그러나 불교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신도 아닌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시정했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동시에 부족한 인격체를 좀 더 완벽한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낙원에 살았지만 선악과에 손대고 말았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나요? 아님 그걸 먹지 않으면 병으로 죽을 처지였나요? 선악과에 손대지 않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때문에 손댄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입니다.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셨죠. 신체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인들이 선망하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었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었기에 에너지를 고귀한 쪽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에 2600여 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부처님이 추앙을 받고 그 가르침과 족적을 따르며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세 사람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에너지였음에도 무엇을 향해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차이죠.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죠. 내 무의식과 사고력과 수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걸 성찰하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가장 고귀하고 바르고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훌륭한 인간으로 변모될 수 있지만, 욕망, 탐욕, 이익을 좇아 부도덕 범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지탄받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간에 이러쿵저러쿵 성격이 안 맞는다느니 하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다름 아닌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남편입장에선 아내 탓을 하지만 남편 자체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사람이건 불완전한 인격체이기에 남의 잘못을 지적할때는 조심스러워야 하죠.

그리스 사상가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에는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순들이 있기에 대립되는 것들끼리 투쟁하고 그럼으로써 세계가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이야기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역동이고 힘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고통이 담긴 현실에서, 거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힘, 그 꿈틀댐이 투쟁으로 이어져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시끄럽고 말썽이 많습니다. 왜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불합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라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부부간에 배려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안 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소망을 바랄지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을 지향할지를 결정하는 에너지를 통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더라도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귀하고 맑고 깨끗한 쪽으로 에너지를 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람다운 모습이고 사람다운 정신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금년 부처님오신날 맞이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삶을 진실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길 노력합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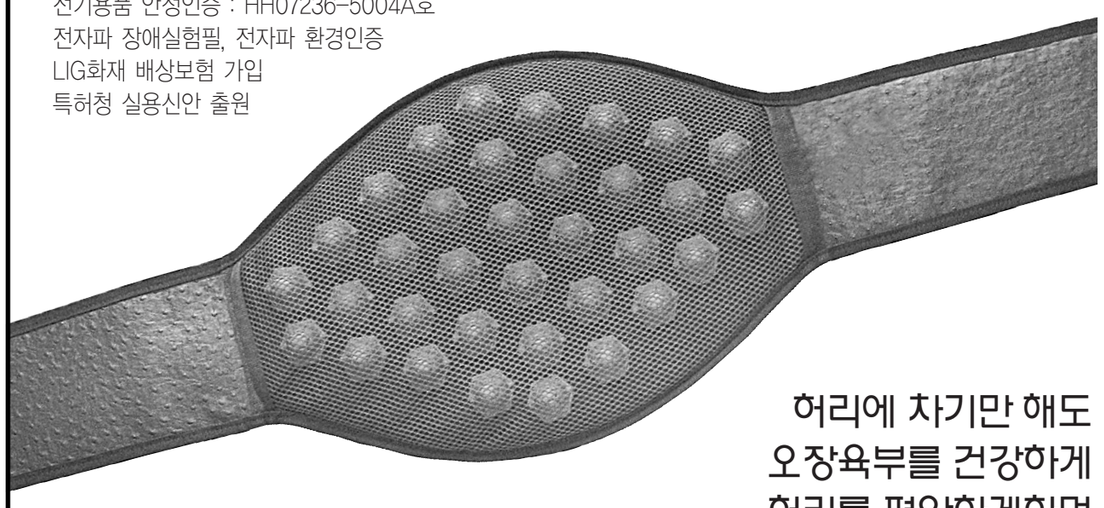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교학 위상 추락 심각하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 불교학연구회 발표회서

“현재 불교관련 학회는 사실상 ‘불교계’와 그 범주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외연이 넓어져 있다. 2012년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의하면 불교학은 더 이상 독립된 학문분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술지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불교학 관련 학술지는 인근 학문분야보다 낮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학계의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교계와의 무분별한 외연확대가 불교학 연구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재연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교수는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5월 25일 서울대 인문대학 연강홀에서 개최한 ‘불교학의 첨단연구’ 세미나에서 “불교계와의 외연확대로 인한 전문성 하락이 불교학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국내 불교관련 학회 구성원들을 ①불교학을 주된 연구분야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출가자 ②학문 연구 외에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출가자 ③ 학문 연구 외에 불교 관련 기관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출가자 ④불교학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일반인 ⑤불교학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지만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 ⑥불교학 이외의 학문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일반인 ⑦학문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지 않고 불교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현실 불교계와 구분이 뚜렷이 되지 않는 특수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불교학의 학문 위상 추락 결과가 불교학계 학술지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역사학 분야는 총 99종의 학술지에 영향력지수는 0.76, 철학분야는 48종의 학술지에 0.42의 영향력지수를 나타내는 반면 불교학은 0.3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불교학 관련 학술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면 13종으로 이중 동국대에서 발행하는 〈불교학보〉의 영향력이 두드러지지만 학회가 학계의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형식임을 생각할 때, 학회가 아닌 대학 부설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불교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상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학자 외 활동 많아 전문성 결여

영향력 지수서 현격히 낮아

학회지 소수만 영향 발휘

연구분야 따라 학회 재편해야

이어 박 교수는 “불교학 관련 학회를 대표하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불교학〉과 〈불교학연구〉 2종에 불과하다”며 “연구과정에서 보정영향력지수는 0.2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 요인을 불교학계 구성인 중 전문학자 외에도 불교계 관련 기관, 언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음을 들었다.

박 교수는 “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은 불교학계에 현장감을 불어넣고 현실적인 안목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헌연구에 현대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학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학회를 학문분야별로 다양화 차별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들었다.

박 교수는 인도대승불교학회, 초기불교학회, 불교철학회, 불교사학회, 응용불교학회, 전법학회 같은 형식을 취해 주된 연구분야에 따라 학회 구성원을 재편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희 경상대 박사과정의 ‘원효의 판비량론에서 오식삼상(五識三相)의 개념’ △정유식 도쿄대 박사수료의 ‘여래장과 아뢰야식에 관한 능가경의 이해’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근대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인식 연구’ △동국대 강사 정운 스님의 ‘당대(唐代) 선사들의 교육 방편’ 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前불교학연구회장인 박경준 동국대 교수에 공로패가 증정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KCI에 등재(후보)된 불교학 관련 학술지 현황 (2011년 기준)

구분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보정영향력지수 (자기인용제외 IF)	영향력지수 (IF)
1	대각사상	대각사상연구원	0.21	0.33
2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0.11	1.16
3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0.48	0.58
4	보조사상	보조사상연구원	0.17	0.22
5	불교학보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0.42	0.51
6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회	0.35	0.44
7	선문화연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0.10	0.10
8	인도철학	인도철학회	0.34	0.45
9	정토학연구	한국정토학회	0.04	0.07
10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0.00	0.00
11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0.36	0.51
12	한국선학	한국선학회	0.29	0.40
13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	–
평균			0.24	0.40

이슬람 침입과 불교타락 쇠퇴원인

조준호 교수, ‘인도불교 흥망’ 주제로 열린논단에서 강연



조준호 한국외대 HK교수〈사진〉는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5월 23일 개최한 ‘인도불교 흥망의 교훈’을 주제로 한 5월 열린논단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발전하고 쇠망해간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날 “불교가 인도역사의 중심에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외부적 요인으로 바라문교를 이은 힌두교의 융성과 경쟁 종교인 불교에 대한 집요한 박해와 이슬람교의 무자비한 파괴를 들고 내부적 요인으로 불교교단 내부의 정체(停滯)와 타락을 짚었다.

조 교수는 “인도불교 쇠퇴와 멸망을 가져다준 결정적인 사건은 13세기 이슬람의 침입에 따른 파괴”라며 “이후 약 800년 이상 동안 인도에서 불교는 공백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당시 조직적인 교단 조직의 승원이 전부인 불교는 사원이 파괴되고 승려가 살해돼 재기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불교 승려들과 불교도는 이슬람 침략자에 의해 개종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강요받을 때 상대를 죽이는 유혈전쟁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적 계율을 이유로 들어 개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힌두교나 자이나교 등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지만 유독 불교만 재기하지 못하고 사라진데는 내재적 요인이 더욱 크다”며 △성격상 조직충성도를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믿음보다 지혜 중심으로 지식계급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일반인의 생활의례 정착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 교수는 “대중에 유리된 출가 중심의 승원불교는 대중으로부터 버림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근현대 불교학자 조명 학술대회

한국불교사硏, 6월 8일 동국대 다향관서

근현대시기 우리나라 인문학과 불교학의 기반을 다진 학자들을 집중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4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의 탐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뇌허 김동화의 불교철학 연구’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효성 조명기의 불교사학 연구’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의 ‘미당 서정주의 불교적 상상력 연구’ △조현설 서울대 교수의 ‘지훈 조동탁의 불교문화사 연구’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 도상해석학’ 학술대회

한국미술사硏, 6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조선시대 후반 기록문화재를 통해 불교미술을 분석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기록문화재를 통한 조선후반기 제2·3기(18·19세기) 미술의 도상해석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교미술의 성격’ 주제발제와 함께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상조각의 조성기 분석을 통한 조성배경 연구’ △김현정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조선후반기 제2기 불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김창균 동국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3기 불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건축의 형식과 의미 연구’ △주수완 고려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교건축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의미 연구’ △최응천 동국대 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의 불교 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징 연구’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3기 불교미술의 조성사상’ 등이 발표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김정희 원광대 교수, 손신영 전 전북대 HK교수,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 고정은 부산외대 HK연구교수, 오진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등이 나선다. (02)3673-3426

노덕현 기자

수종사 오층석탑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5월 23일 해남 대흥사 천불전도 지정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5월 23일 시도유형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과 해남 대흥사 천불전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南陽州 水鐘寺 五層石塔)’은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통을 이어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이다. 출토된 사리장엄(舍利莊嚴)과 명문(銘文)을 볼 때 건립연대는 1493년으로 1628년 중수(重修)됐음을 알 수 있다.

수종사 오층석탑은 건립연대가 확실하고, 각부의 부재가 완전하게 유지된 조선시대 팔각오층석탑으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海南 大興寺 千佛殿)’은 1813년에 중건(重建)된 건물로 대흥사 남원(南原, 금당천 남쪽)의 중심건물로서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등을 통해 건물의 중건과 천불 조성·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용성조사 탄신 149주년 기념 세미나

6월 4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법륜 스님 설법도 진행

용성 조사 탄신 149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다.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시대의 스승 용성조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용성조사 탄신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용성스님의 추모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관련 학자와 스님들의 지성화와 대중화, 사회화 관련 논문 발표, 계승과 과제 관련 전체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의 ‘불교의 지성화 : 불법을 바로세우다’ 주제발표와 함께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의 ‘불교의 대중화 : 중생을 깨우치다’, △임형진 경희대 교수의 ‘불교의 사회화 : 독립운동으로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다’가 각각 발표된다.

이어 토론 및 법륜 스님의 설법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륜 스님은 “용성 조사는 일제 침탈 속에서 흐트러진 법맥과 계맥을 바로잡고 왜색 불교를 통렬히 비판하며 청정계율과 수행선풍을 세우는 불교 개혁에 착수했다”며 “용성 조사께서 100년 전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감당했듯이 분단시대를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것이다. 우리시대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갈 지혜를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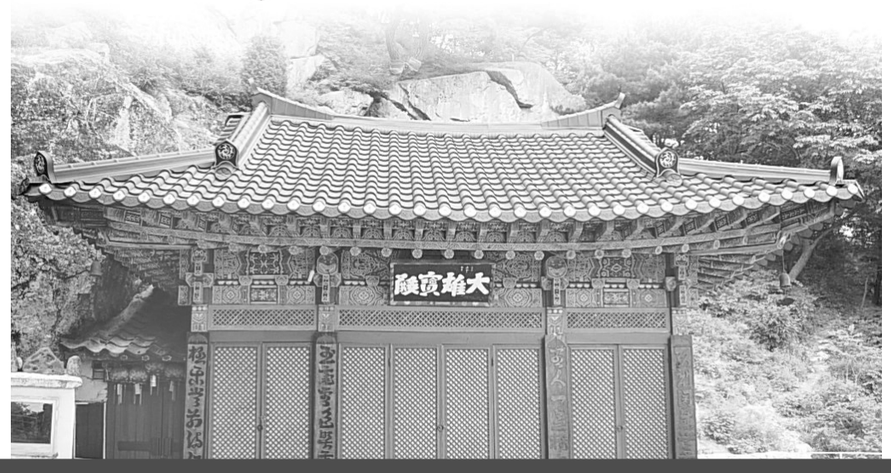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나눔으로 회향하는 특별한 회갑연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보시행 화제

천지의 이치를 통달하는 이순(耳順)을 지나 회갑을 맞이하는 것은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평균 수명 연장으로 회갑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으나,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을 회갑에서 찾는다.

지난 5월 23일 무등산 자락에서는 사회와 지역을 위한 '회향과 봉사'로 인생의 변환점을 갖는 회갑 잔치가 열려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행사의 주인공은 광주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현지 스님은 회갑을 맞이해 상좌스님들과 유발제자들이 준비해 준 축하연을 북구지역 어르신 200여명에게 회향했다.

이날 행사는 스님의 뜻에 동참해 원효사 신도회(회장 김은희)와 청년회(회장 박근용)가 힘을 보탰다. 또한 북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 200여명을 직접 가정마다 방문하여, 행사장인 무등산까지 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영광복지재단 소속의 어르신들까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식전공연, 기념식, 문화공연 및 점심공양이 진행됐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전복을 넣은 삼계탕과 과일, 떡, 나물반찬을 비롯해 10여 가지의 정갈한 음식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출가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많은 어른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5월 23일, 회갑 겸 어르신 초청 잔치
200명 일일히 가정 방문하며 모셔
통일운동 · 자비밥차 등 지역 귀감


현지 스님이 이날 회갑잔치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현지 스님은 환경부 주최의 '무등산 국립공원지정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지 스님은 광주지역에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하 광주생명나눔)과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지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소아암백혈병 아이들 위한 사업으로 더욱 알려진 광주생명나눔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사회단체 중 우수단체로 인정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의대병원과 조선대의대병원에서의 백혈병 지원사업과 차봉사, 헌혈은행,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은 대표적 활동이다.

스님의 다른 하나의 사회운동은 통일운동이다. 그중 광주겨레하나는 지난 2005년 북한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운동(광주전남지부만 1억 5천만원 상당)을 시작으로 광주전남농민연대와 공동으로 통일쌀(63톤), 비닐보내기를 전개했다.

현재 원효사는 광주공원에서 매월 '자비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 김치와 연탄을 지역 독거 어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학생 채식요리대회 열린다

자연음식문화원, 6월 1일 전북대 예지원서

음식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식요리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사)자연음식문화원(대표 유지원)은 6월 1일 전북대 예지원에서 '전북의 맛, 자연채식 음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대학생 채식요리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채식요리대회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에게 자연음식의 정신을 전파하고 홍보하고 과도한 육식의 폐해를 극복하고 자연음식과 채식의 정신적 가치를 실생활과 접목한 생활문화로서의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가지 또는 2가지 내외의 채식 단품요리를 출품하되 육류와 생선, 유제품 및 화학조미료의 사용은 제한된다.

평가는 식재료의 조화, 영양성, 양과 맛 그리고 색의 조화, 메뉴구성의 독창성과 아이디어의 특이성, 현대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 부합도 등의 평가항목을 실제 생활에 응용가능하고 손쉽게 요리 가능정도를 평가해 시상한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0만원등 총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063)276-3555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

2012년부터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무등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가 올해 3번째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강사로 강연을 개최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증심사(주지 연광) 명사초청법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출·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다. 이날 강운태 시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은 잘 보존되고, 시대에 맞게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무등산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증심사를 비롯한 불교문화유적"이라며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당부했다.

증심사는 강운태 시장에 이어 6월 23일 서광 스님(미국 서운사 주지), 7월 22일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 8월 30일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 9월 28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10월 19일 김혜옥(방송인), 11월 각묵스님(초기불전 연구원) 등이 차례로 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지도자, 화합과 소통의 탑돌이


도영 스님과 이병호 주교가 탑돌이를 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북지역의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종교간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5월 17일 완주 송광사 봉축 점등식에는 천주교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 원불교 전주 교구장 김성효 교무, 대한 성공회 노기복 신부, 전주 새누리 교회 양진규 목사 등 지역 종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도영 스님은 이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자비와 사랑이다"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으로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인간 생명을 사랑하고 수호하고 증진하는 평화의 기운을 일으키자"고 강조했다.

이병호 주교는 "도영 스님과 대화하다 보면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과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깨달음과 지혜의 빛을 밝히자"고 말했다.

봉축 연등점등식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작은 탑등을 들고 송광사 경내를 돌며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시민 마음 모아 5 · 18 성료



대광사 주지 정선 스님이 추모법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난 23일 원각사 대웅전에서는 최근 보훈처로부터 5.18민중항쟁의 공식가로 거부되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 가운데 제33주년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불교NGO연대(상임 대표 정선, 대광사 주지)가 주최한 가운데 '오월의 꽃 통일로 다시 피어나라!'라는 주제로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의 강연과 범능 스님, 가수 박문옥의 추모공연, 생명평화염원33배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정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3년이 지난 오늘날 광주시민들이 지켜나가고자 하는 5 · 18정신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다"고 말했다.

추모법회 참가자들은 "5 · 18정신의 올바른 구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생명평화염원을 위한 33배에 동참했다.

행사에는 정선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행법 스님(전 선덕사 주지),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김정길 5 · 18민중항쟁 33주년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150여 대중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교도소 장애인 재소자 수계법회 봉행

5월 23일 불자 13명 대상으로...제빵기술 등 전수

군산교도소 직업재활관에 수용되어 있는 불자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5월 23일 개최됐다.

불자 장애인 재소자 13명은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참 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송월 스님은 재활관 불자들에게 계를 수지하는 공덕을 설하고 "오늘 수지하게 된 삼귀의계와 5계를 목숨처럼 지키고 생활해 달라"며 "계를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죄와의 인연도 모두 소멸되고 선근 인연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김진수 前전북포교사 단장이 주관했다. 군산 교도소 재활관에는 현재 약 70명의 장애를 가진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제과, 제빵' '컴퓨터 수리' 등의 직업 기술을 배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제 편지목간 등 5점 공개 학술대회

페이스북 기반 학술문화운동단체인 문문(회장 홍승직)은 5월 25일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새로만난 문물(文物), 다시보는 문물(文物)'을 주제로 제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백제시대 사비 편지목간과 함께 백제 의자왕의 외손 묘지명 등이 공개됐다. 백제 편지목간은 2010년 부여군 319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됐으며 연대는 6세기로 추정된다. 나무를 깎아 종이처럼 사용한 필기도구인 목간에 붓글씨를 쓴 것으로 가난에 쪼들린 이가 권력자에게 벼슬자리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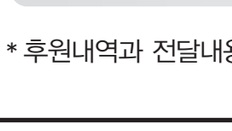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목욕탕으로 지역민 편의시설 제공

혜원 부산영도시니어클럽, 금정구 선두구동에 목욕탕 준공



사회복지법인 혜원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은 상수원보호구역 선두구동 지역민의 40년 숙원 사업 '선두구동 목욕탕 준공식' 을 개최하고 6월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선두구동 주민 40년 숙원 사업
금정구 총공사비 17억 지원
보건환경개선과 복지증진 기대

사회복지법인 혜원 부산영도시니어클럽(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선두구동 목욕탕 준공식' 을 개최하고 6월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5월22일 개최된 이날 준공식에는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홍법사 심산 스님, 조계종연합회 사무총장 하림 스님,수도사 일철 스님, 원정희 금정구청장 등 300여명의 지역민이 함께 했다.

선두구동지역은 지난 1964년 2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71년 그린밸트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목욕탕, 세탁소, 이·미용실 등 설치가 불가능해 주민들은 40년동안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일부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수익성의 고려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금정구가 총공사비 17억을 투입하여 건축하고, 영도시니어클럽이 위탁운영을 맡게 되면서 2,800여명의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위탁운영을 맡게 된 혜원정사 주지 원허스님은 "목욕탕 하나 없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민들이 이토록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소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발판이 되어 지역의 구심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40여년의 편의시설이 없이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선두구동의 보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준공한 선두구동 목욕탕은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692m(210평) 규모로 지하1층 보일러실, 지상1층 여탕, 지상2층 남탕, 별동으로 이,미용실과 지상2층 규모의 농산물직거래장 용도로 건축되었다.

선두구동 주민공동 목욕탕은 2011년 7월에 건립 부지를 확정, 12월에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에 착수해 2012년 6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2년 7월 22일 착공해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한편, 목욕탕은 오는 6월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며 스포원 후문쪽에 위치해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아기부처님 탄생 축하하는 행사 '풍성'

범어사 삼광사 등 봉축 법요식


부산 삼광사는 5월 17일 경내에서 가족과 이웃종교 지도자들을 초청 봉축행사를 개최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지역 각 사찰에서도 각각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5월 17일 범어사 경내에서 한반도평화를 기원하는 연등의 물결 속에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조실 지유대선사, 주지 수불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신도회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조실 지유 대선사는 이날 법어를 통해 "보살은 모든 중생을 태어나는 괴로움이 없는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불퇴전의 서원과 대자비심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지 수불 스님은 봉축사에서 "등불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무애자재한 불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도 봉축을 맞아 다문화 가족과 이웃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다문화 · 다종교인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봉축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5월 17일 삼광사 대웅보전 앞에서 봉행된 이날 행사에는 개신교 백도웅 목사, 천주교 주낙길 수사, 원불교 김대선 평양교구장, 천도교 김길철 부산시교구장 등 국내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재부기관장 및 시민불자 5만여명이 법요식에 참석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성직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종교문화를 만들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다문화센터 소속 '레인보우합창단의 특별공연과 다문화,다종교 평화행복기원 풍선날리기, 다문화 가정에 자비의 쌀 전달 등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내 곳곳 사찰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제등행렬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사찰에서 펼쳐진 신나는 댄스공연

충남 세심사 청소년 댄스 공연


5월 17일 열린 세심사 댄스 경연대회

사찰에서 청소년들의 발랄한 댄스파티가 펼쳐졌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7일 천년 고찰 충남 아산 세심사(주지 지해) 대웅전앞에서 청소년 댄스공연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용인외고 힙합동아리 '시티'와, 댄스동아리 '하율 등에서 참여한 학생들이 공연을 펼쳤다.

세심사 대웅전 앞에 대중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용인외고 학생들이 춤과 노래공연을 펼치자 자리에 있던 사부대중은 법당앞으로 나와 춤을 추면서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신도회임원진 제안으로 세심사를 찾았다는 용인외고 댄스 동아리 이정문(17)학생은 "우리 동아리는 개신교, 천주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종교와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된 무대를 만들었다. 초청해주신 주지스님께 감사하고, 동아리 후배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외래종보다는 토종이 좋다

우리나라 사찰은 한마디로 말해서 토종공간이다. 현대사찰의 경우 실내공간도 현대인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밀 수 있지만,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네 사찰에서는 골기와를 씌운 지붕과 맨 땅으로 남겨둔 마당, 주변에서 주운 돌로 투박하게 쌓아올린 석축 그리고 화계나 화오에 심어진 목단과 작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찰마다 특화 전략을 수립해서 다른 사찰들과 차별화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사찰주변 산야에 꽃을 심어 특별한 경관을 만든 사찰, 산나물과 약초를 심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등 특화전략도 가지각색이다.

사찰의 특화전략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사찰을 만드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다. 물론 아름다운 사찰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절을 찾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좋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다시 절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절 안팎을 꾸며 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철따라 예쁜 꽃이 피어나서 시각적, 후각적으로 특별한 경관을 만드는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원하는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사찰안팎에 꽃이 피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공간을 만들었던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각해낸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찰이 산지에 자리를 잡았고 불가에서 식물을 아름다움의 대상을 넘어서 식용과 약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사시사철 꽃이 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부처님나라가 곧 사찰이었던 것이다.

예전에 우리 사찰에서 심었던 꽃나무나 꽃피는 풀들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온 토종들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찰에 도입된 식물들을 보면 외래종이 더 많이 심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금낭화나 매발톱꽃 대신에 루드베키아나 마가렛이, 참나리나 말나리 대신에 백합이, 산국이나 쑥부쟁이, 구절초 대신에 수입종 국화가 꽃을 피우면서 지난날 산사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토종경관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외래종이 구하기도 쉽고 잘 자라서 편하다는 생각보다는 토종을 지켜내는 고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사찰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에 심은 외래식물은 우리사찰의 토종경관과는 맞지 않는다. 경기도 ㅅ사찰

AOU

미 국 동 양 학 대 학 교

기회 획득 · 자기완성 · 글로벌 약진 · 세계인 위상 · 원격 화상 개방 교육 · 미국학제

중 · 고교미필자인증입학과정 / 국가사회공로자고시과정 / 대학중퇴자학사단축과정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

본교는 미국 · 일본 · 중국 · 한국 · 등에 현지어로 교육하는 국제적 종합대학교로서 본교 규정에 의거 한국학생들의 원활한 수강을 위해 한국어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본교 2013년도 2학기 '학생모집'(수시가능)

- 동 양 학 과 (육임학/사주학/풍수학/경서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종 교 학 과 (불교문화학/기독신학/민족종교학/심령신의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차 문 화 학 과 (한국차학/중국차학/일본차학/다기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약 초 학 과 (양방재학/한방재학/시장분석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물리치유학과 (신체학/향취학/물신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안 경 학 과 (검증학/재료학/제조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한방미용학과 (피부학/체질학/재료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전통식품학과 (장유학/효소학/재료학/주정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서예문인학과 (동양화학/문인화학/고미술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 전통문화학과 (판소리학/고전무용학/사물학/제물학/도예학/전통의상학) 학사 · 석사 ·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특 전 (The Board of Trustees of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 위 모든 학과정이 사이버교육으로 완성되나 특별히 본교에 유학 하실분에게는 미국 학생비자(1-5년) 발급 됨.
- 가정사정으로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만38세이상 분에게 본교 심의를 거쳐 본교 '인증과정'(3개월) 후 본교 4년제 또는 1년 졸업 단축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대학교 중퇴한 분에게 본교 심의를 통해 본교 단축 과정에 입학, 1년 만에 정규 학사과정을 마치게 함.
-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사회에 끼친 공로가 크고 신분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분에게 본교 고시 및 심의를 통해 본교 대학원 정규과정에 입학하게 함.
- 본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분에게 심사 후 본교 교수로 우선 선발 함.
- 본교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분이 본교 교수에 발탁되는 경우 해당학 논문계획 심사 후 선 학위 부여 함.

교수초빙

본교는 국제적 사이버 종합대학교로서 국내 종립대학, 관련 학회, 사회단체, 개인도제, 사숙 등과 MOU체결을 통해 학점을 부여, 졸업시키는 학제를 적극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과의 학사과정 / 석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의 교수를 초빙합니다. 뜻있는 분은 미국동양학대학교 한국경영지원협회로 연락바랍니다.

이사장 · 총장 김 영 배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www.aou.ac / webmail : aou.ac@aou.ac

국내 안내 02)738-8683 / 주소 : Nauru Loop Susupe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U.S.A. 96950 / Po Box10001
American Orientalism University (사이버종합대학교 인가번호 : 99-3013255) / President Young Bai Kim
비영리법인 한국경영지원협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남도빌딩 401호

영상으로 감상하는 다큐 '길 위에서'

비구니 선원 백흥암에서 스님들과 함께한
이창재 감독의 300일 템플스테이


이창재 감독은 비구니선방 백흥암에서 300일을 보내며 진리의 길을 가는 스님들의 삶을 영상에 담아냈다. 사진은 백흥암 전경.


선방에서 안거중인 백흥암 스님들의 모습.

무엇을 보려 합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우 스님 어린시절 절에 버려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진출가했다. 어릴 때 자란 절에서 백흥암으로 출가한 선우 스님은 백흥암 스님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 천도재를 지내던 날 눈이 붓도록 울었다. 여행 한 번 해보지 못한 선우 스님에게 큰스님은 만행길에 오를 것을 제안한다. 두 어른 스님과 처음 경험해보는 여행 길에서 밝게 웃고 고민하며 세상 구경을 하면서 구도의 길에 대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상욱 스님과 대비되는 캐릭터다.

선우 스님

"저 어렸을 적 아프면 스님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전생에 업이 두텁다는 둥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요."

도감 스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생에부터 중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수행이)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스스로 당당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당당하게 보는 거지. 그 당당함은 수행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야"

선우 스님

"다시 태어난다면 대학 졸업하고 출가하고 싶어요!"



1년에 딱 두번만 산문이 열린다는 비구니 선방 백흥암의 문.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에 집중

고즈넉한 한국적 영상미… 감독의 내레이션 돋보여

큰스님은 대뜸 이창재 감독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얼 보려 합니까?"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 스님들의 1년간 삶을 담은 이창재 감독의 다큐 영화 '길 위에서'(본지 939호 게재)가 5월 23일 개봉됐다.

감독은 금남의 공간 백흥암에서 300일 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영상속에 수행보다는 수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 감독은 "비구니 스님하면 드라마틱한 사연을 안고 온 특이한 인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수행자의 삶은 방황조차도 하나의 길위에 있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영화는 나를 찾아나선 이들의 수행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휴식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은 영화를 보고나면 고즈넉한 한국적 영상미와 감독이 직접 참여한 내레이션에 공감하게 된다. 고통스런 종교의 깨달음이 아닌 힐링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년간 촬영을 마친 감독에게 큰 스님은 이렇게 묻는다. "지난 1년 동안 무얼 보았습니까?"

어디까지는 속세와 같았고 어디부터는 속세와 달랐다고 말하는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보았나?" 그리고 문득 젊은 스님의 질문을 떠올린다. "감독님은 출가하실건가요? 이번 생에는? 다음 생에는?"

'길위에서'는 제6회 CINDI영화제 '버터플라이 수상작', 제 1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본선 진출작으로 호평을 받았다. 서울 전주 부산 등 20관에서 동시 개봉했으며 러닝타임은 104분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노스님은 밥 한 발우가 피 한 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밥값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면 안 되죠. 정말, 나는 밥 값을 했는가?"


영운 스님 열일곱에 출가해 매일 천배 씩 3년 동안 백만 번의 절 수행을 한 백흥암 선원장. 제대로 된 밥값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는다.

"내가 나이 40, 50이 되도 그 생각(출가)이 계속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죠. 그냥 편지 하나 써 놓고 나왔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상욱 스님 미국 유학시절, 젠(Zen) 센터의 경험으로 출가한 '엄친 딸'. 교수임용 면접을 앞두고 출가, 부모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절, 성당,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찾아봤어요. 교회도 성당도 누군가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나를 믿는 거더라고요. 저를 찾고 싶어서 온 거죠"


민재 행자 인터넷 검색으로 출가한 '신세대형'. 주 5일 수행을 제안하는 등 밝고 유쾌한 21세기형 행자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불교와 미학
부처님 탄생과 연꽃

부처님 걸음마다 핀 연꽃, 청정하고 거룩하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서 정주

섭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하는 이별이게,

蓮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엇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 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부여 서용의 연지〈사진 왼쪽〉와 아기부처에게 관욕하는 모습〈사진 오른쪽〉.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불교에서 깨달음과 청정함의 상징이다.

꽃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세계, 그 세계 한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꽃, 바로 연꽃이다.

불교의 등장 이전부터 인도에서 수많은 신화에 등장했지만, 이 꽃의 거룩한 의미를 알아본 자는 없었다. 영취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하시던 부처님이 문든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다. 인도 신화에서는 창조주 브라흐마가 우주를 창조했던 곳이며, 혼돈의 물 밑에 잠자는 영원한 정령인 나라야나의 배꼽에서 태어난 꽃으로 신성시되던 꽃이었으나,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는 이 꽃을 세존이 들어보였던 뜻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한 사람만 세존의 뜻을 알고 미소로 화답하였으니 그가 바로 마하가섭이다. '염화미소(拈華微笑)' 의 에피소드에서부터 연꽃은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다.

연꽃에 깃든 불교적인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미묘한 향기를 담고 있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꽃, 꽃과 열매를 동시에 나타나는 화과동시(花果同時)의 꽃,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상' 을 상징하는 꽃이며,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구품 연지에 피어있는 즐거움의 꽃이다.

그것은 오탁악세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수행자처럼 맑고 고귀한 꽃이며 물방울이 연잎에 스며들지 않고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악행이 수행자들의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 연꽃의 향기가 세상을 가득 채우듯이 고결한 인품은 세상을 정화시킨다.

연꽃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듯이 수행자의 덕행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덕을 행하는 자는 부드럽고 연약한 연꽃 줄기가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도 항상 올곧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듯이 착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온갖 꽃들의 싹은 서로 비슷하지만 연꽃의 싹은 처음부터 다르듯이, 될성부른 사람은 아무리 몸을 낮추어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그의 인격은 고귀하게 빛난다.

이처럼 청정하고 고귀한 연꽃은 그 자태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천하의 명문, 〈애련설〉을 지은 송대 신유학자 주돈이는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에 씻겨 깨끗하되 요염하지 않고, 속은 통하고 밖은 곧으며, 덩굴도 뻗지 않고 가지도 치지 않으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고 깨끗이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 있지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연꽃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은일을 즐기던 도연명이 사랑한 국화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의 꽃 모란도 아니지만, 세상에 있으되 세상의 온갖 탐욕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주돈이 이후 군자의 꽃으로 선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연꽃은 문학작품과 그림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단원이 그린 〈하화청정〉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연못에 피어난 연꽃과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 한 쌍의 고추잠자리가 묘사되어 있다. 풍속화에서 순간 포착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단원은 이 그림에서도 한 쌍의 고추잠자리가 연꽃 주위를 선회하는 순간의 모습을 사진을 찍듯 잘 포착하고 있다. 이 그림은 서양화의 음영 기법을 응용하여 연꽃의 세밀한 묘사와 연잎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춤추듯 날아오르는 한 쌍의 고추잠자리와 살짝 몸을 기울이는 연꽃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여름날의 상쾌함을 전해준다.

영취산 설법의 연꽃 한 송이
마하가섭이 미소로 화답해
'깨달음의 상징' 자리매김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
세상 물들지 않는 청정함 비유

동아시아 문학 안에서도
연꽃은 중요한 소재 활용

불교미술에서 연꽃은 불상의 대좌나 광배, 그리고 석탑이나 부도에 새겨놓는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불단과 천정에도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고 기와나 창살, 심지어 벽돌까지도 연꽃의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연꽃은 이처럼 사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무던히도 겸손한 꽃이다. 연꽃은 그 자체로 화려한 조명을 받기보다 불상을 모시는 좌대로서, 또는 석등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로서 그렇게 몸을 낮추어 다른 것들을 빛나게 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연꽃은 그저 부처님의 발밑에서 피어올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을 때마다 부처님의 발을 받쳐주었을 뿐, 그 존재를 자랑하지 않았다.

〈마지마니까야〉는 부처님 탄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래는 태어나자마자 발을 땅에 딛고 북쪽을 향해서 흰색 양산을 드리운 채 일곱 걸음을 걸었다. 일체세방을 바라보고 황소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선한 자, 가장 연장자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니, 이후로 나에게 새로운 생은 없으리라.' "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부처님이 내디딘 일곱 걸음을 우주의 일곱 행성에 해당하는 일곱 층을 가로지르는 상징적 행위라고 해석한다. 일곱 층의 우주를 가로질러 세계의 정상에 도달한 부처님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자이며 그것은 공간적으로 세계를 초월함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부처님은 시간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우주의 정상에서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곳은 가장 오래된 곳이며 이곳에 선 부처님은 태초의 존재로서 "나는 가장 연장자"라고 외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의 탄생 이전의 장소에 선 부처님은 더 이상 윤회의 세상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생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라고 사자후를 하신 것이다.

부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피어올랐던 연꽃은 탄생의 의미와 동시에 청정하고 거룩한 수행을 상징한다.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님 또한 이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부처님 오신 날이다. 거리마다 오색 등을 내다걸고 사거리에는 석탑도 세우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연등은 봄의 햇살을 받아 산뜻하게 빛난다.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단원의 연꽃도 만날 것이다.

작고한 시인은 말한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그것도 엇그제가 아니라 한 두 철 전에 만나고 가는 것처럼, 섭섭하지만 아주 조금만 섭섭하라고.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불교의 생명은 참선이라고 강조하셨어요”



方山老의 無影樹 〈14〉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연관 스님



연관 스님 (봉암사 등 제방에서 수행)
〈조계종 표준금강경〉 편찬위원장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역임
실상사 수월암에서 경전 번역 및 정진

소식하고 후학들 하는일에 간섭 안해
기억력 탁월, 칠판가득 외워쓰고 강의
스님 명성은 타고난 소양과 노력 결과
경전 번역할 때 직역 고집

–스님은 탄허 스님의 화엄경 교정 작업을 하신 분입니다. 어떤 연고로 그런 인연을 갖게 되었나요?

저는 1967년도에 출가해서 주로 선방에를 다녔어요. 그 시절, 옛날에 어릴 때에는 바람기가 있어서 여기저기 선방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상원사 선방에서 결제를 하고 지내는데 오대산 단풍이 드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누더기를 입고 새벽에 걸망을 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여기 저길 다니다가 상주 남장사가 문중 절이라, 그 절 나한전의 방을 하나 얻어서 혼자서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군불을 때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난, 키가 큰 사람이 있었어요. 딱 보니 그 사람이 무비 스님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무비 스님에게 제 근황을 알리는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무비 스님은 저를 보더니만 당장 짐을 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비 스님이 날 데리러 온 것이지요. 스님은 당장 가자고, 차를 세워놓고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로 무비 스님을 따라온 곳이 탄허 스님이 작업을 하시던 서울 세검정의 대원군 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탄허 스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교정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대원군 별장(석파정) 시절의 생활을 들려주세요.

그때에 탄허 스님이 하시는 것을 교정 본 사람은 처음에는 저하고 무비 스님 단 둘이었습니다. 본래 교정은 둘이 보아야 하거든요. 그 밖에 사무를 돕던 처사 한 사람이 있었고, 시봉으로는 윤창화가 있었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참여는 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화엄경을 교정 볼 실력이 있어 간 것도 아니고, 지금이나 그때나 글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직 무비 스님의 인간적인 배려가 작용한 것이라 봅니다. 아마 제가 측은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하지요. 저와 무비 스님은 해인사 선방에 같이 살면서 무척 친하게 지냈어요. 무비 스님은 저의 선배님이신데,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아침 먹고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들은 것이 치문하고, 대학과 중용인 것 같아요. 그 강의를 저와 무비 스님, 창화, 처사 등이 들은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서는 하루 종일 교정을 봤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했어요.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1974년 초에 개운사의 대원암으로 이전하였지요?

맞아요. 본래 대원암은 비구니 절이었는데 총무원에서 비구니들을 흥국사로 내보내고 탄허 스님이 그리 입주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탄허 스님이 그리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절이 없어서 되겠나 해서 총무원에서 결정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 세부 사정, 정치적 결정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은 몰랐죠.

–그런데, 대원암에서는 일장 · 시몽 스님 그리고 비구니 스님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사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대원암에서도 처음에는 저와 무비 스님 둘이 하였는데, 그때에는 대원암에다가 사진 식자기를 세 대나 들여놓아서 하루 종일 ‘타딱’ 하면서 기계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깐 물량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더 부르자고 저하고 무비 스님이 상의해서 일장 스님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일장 스님은 무비 스님하고도 알고, 저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스님은 글이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무비 스님이 일장 스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통도사의 어느 암자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서는 “서울로 올라갑시다”고 해서 대원암에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수좌로 살다가 서울 시내에서 갇혀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답답해서, 그냥 걸망을 싸고 나왔어요. 제가 나온 이후에 무비스님도 나왔지요. 그래서 교정 1세대가 나오니 교정볼 사람이 더 필요하니깐 일장 · 시몽 스님 외에 비구니인 성일 스님과 또 다른 비구니 스님이 들어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때에 그곳에는 고려대 출신인 최옥화(일초)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있었어요.

–대원암에서 탄허 스님에게 배운 것, 영향받은 것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그 시절 학문에 뜻을 크게 두지도 않았고, 강원도 졸업하지 않았고, 글을 배운 적도 없어서 공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 데에는 학문의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영향을 받는 것인데 저는 그런 바탕도 없었고 또 나이도 어렸어요. 그래서 어린 놈이 노장님에게 뭘 묻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때에는 제가 말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에게 “말이 적으면 도(道)에 가까운 법(法)인데…” 하는 말은 들었지요. 다만 그때에 탄허 스님께서 고려대에 가셔서 장자 강의를 하셨고, 삼보법회에 가셔서는 기신론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스님을 모시고 가서 들었습니다. 저는 기신론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감화를 받았어요. 스님은 규봉의 기신론소를 갖고 강의를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 강의가 저에게는 참 좋았어요. 고려대에서 장자 강의를 하실 때에는 고대 교수 몇십 명이 들은 것 같은데, 그 교수들은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데요. 그때에 스님이 교수들에게 큰 소리로 열강을 하시고, 자기 자랑을 하신 것은 기억에 있어요.

–대원암 시절, 지근거리에서 보신 탄허 스님에 대한 일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깐 스님은 밥을 무척 적게 자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관여를 안 해요. 제가 거기에서 작업을 하니깐 자연히 스님의 상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스님들이 먹을 것을 사와서 저희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뒷방에서 막걸리를 먹고 떠들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스님은 그런 것을 보고도 모른 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저희들이 교정하는 방에 슬그머니 오셔서 드링크제 한 박스를 놔두고 가신 것이 기억나네요.

–대원암에서 나온 이후에는 탄허 스님을 어디에서 뵈었나요?

대원암에서 말없이 걸망을 지고 나와 버려서, 저는 스님을 뵐 체면과 염치가 없어서 그 직후에는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받은 인촌상 수상식장에도 안 갔어요. 또 스님에게 화엄경도 직접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1977년인가, 월정사에서 열린 화엄경 특강에 참여해서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 겨울을 스님에게 배우게 되었지요. 그때 제가 월정사 특강에 가게 된 소회를 솔직히 말하면 학문에 큰 뜻을 두고 간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스님들이 그곳에 많이 모인다니 얼굴도 볼 겸, 바람도 쏘일 겸 해서 간 것이지요. 강의를 들은 스님들 중에서는 내가 나이가 어려 끄트머리에 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달 동안은 꼬박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수료증과 기념 앨범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축구를 하던 것이 기억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심백강이라는 유생도 와서 배웠고, 스님의 시봉을 한 사람이 환원 스님이었어요. 멱정 스님도 생각납니다.

–탄허 스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스님의 기억력이 엄청 좋았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큰 칠판에다가 모든 것을 외워서 다 써버렸어요. 그 칠판에 꽉 차게 써 놓고 강의를 하셨어요. 스님이 강의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유불선 삼교를 하나로 회통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왜 회통한 것이 하나인가를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님이 그렇게 강의를 외워서 하시고, 유불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은 타고 난 데다가 노력을 엄청나게 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연관 스님은 1980년대 초반, 직지사의 관응 스님에게 3년을 배우시고 전강을 받으셨어요. 혹시 관응 스님에게 들은 탄허 스님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관응 스님도 경학에는 일가견이 있는 스님이지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특히 유식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말을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응 스님이 유식을 강의하실 때에 탄허 스님이 와서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탄허 스님이 한문과 유불선의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은 장소와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탄허 스님과 관응 스님을 비교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표현한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두 스님의 차별성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해 보지요. 관응 스님은 세상을 편하게, 고생 없이 사신 어른입니다. 머리도 좋으시고, 책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고, 일본 유학도 가시고, 유학 시절에는 신도 보살이 많은 후원도 해주셨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관음기도를 많이 하셔서, 관음보살의 위신력을 받아서인지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렸다고 그래요. 관응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큰일이 자연적으로 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관응 스님의 학문도 편안한 것 같아요. 학문이 수월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학문에 대해서 어렵게 골몰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노장님은 노장님 느낌으로 이해를 하였으면, 슬쩍 그 정도에서 머무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산 스님은 관응 스님을 포교사 기질도 있으시고, 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였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볼 적에는 투철하게 골몰한 것은 없지 않았나 봐요. 그에 비해서 탄허 스님은 삶 전체를 보면 파란만장하셨고, 고투를 하시면서 역경(譯經)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학문을 대하는 노력이 집요하시고, 이를테면 ‘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인생에 역경(逆境)이 있어야 학문이 여물어요.

–연관 스님은 〈죽창수필〉, 〈금강경간정기〉, 〈선관책진〉 같은 선서(禪書)를 번역하셨어요. 이런 입장에서 탄허 스님의 직역 위주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아요. 탄허 스님은 경전을 번역하실 때에 직역을 고집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 스님의 그 원칙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경을 번역할 때에 스님이 하신 작업의 성과물을 많이 배우고, 참고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면, 한문도 외국어라 한문대로의 문법과 원칙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작업을 할 때에 잘 모를 때에는 탄허 스님이 하신 것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스님이 하신 것 그것을 바탕으로 번역하지요. 이렇게 후학들은 탄허 스님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번역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솜씨를 부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여간에 저는 탄허 스님의 직역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탄허 스님께서 그 같은 작업을 해놓지 않았다면, 그걸 누가 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님은 우리 승려들이 보는 기본 경전 모든 것을 직역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잘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윤문을 하고, 문장을 다듬어서 멋지게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누구라도 할 수 있지요. 어쨌든, 탄허 스님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런 것을 탄허 스님이 아니면 누가 할수 있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탄허 스님의 글을 보면 아주 좋아요.

–스님은 탄허 스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탄허 스님에 대해서는 대종사, 대강백, 선교를 겸수한 고승 등 다양한 말들이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탄허 스님은 선(禪)을 강조한 분입니다. 스님께서는 불교 경전을 3년을 읽느니 참선 세 시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어요. 또 기독교 3년을 하느니 불교 석 달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쨌든, 탄허 스님은 불교의 생명은 참선이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노장님은 늘 “참선해라”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님이 그렇게 선을 강조하신 것은 한암 스님 밑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탄허 스님을 불교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새길 수 있을까요?

지금껏 탄허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사실 우리 불교를 이해하고 배우려면 한문을 버릴 수 없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문으로 된 것이 바탕이니까, 한문을 버리고서 불교를 알 수는 없어요. 최근에는 초기불교 등의 영향으로 산스크리트 같은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이지만 한문을 절대로 제외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 점을 탄허 스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스님이 하신 그런 것은 누가 못 따라와요. 제가 볼 때에 우리 불교계에서는 예전에 봉은사에 있었던 역경사 양성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서 역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임창순 선생님이 하신 태동고전연구소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런 연구소를 우리 조계종단에 만들어서 아주 전문적인 인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한문으로 된 것은 외워야 합니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승가교육을 한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글 중심으로 나가면 후에 가서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거사님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오늘 귀한 증언과 솔직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여러 이야기가 탄허 스님의 역사 복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김선생님이 참고해서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창사 40주년 기념 양초 할인 판매!!



수입양초는 박스에
Made in Korea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중국산 재생초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산 최고급
양초이며 견고한 상자에 포장되어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 밀 대 (70개입) @90,000원 (3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3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3BOX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위패(대/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大30,000원 / 小27,000원 (100개)
할인가 大@270원 / 小@24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알음알이 소화 안되면 독약된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1〉



범어사 주지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많이 먹일 줄만 알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통 모르는 것과 같다. 삼승의 수행자들은 모두 이런 무리들로서, 먹을 줄만 알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른바 '알음알이가 소화되지 않으면 독약이 되어, 끝내 생멸 가운데 유전한다.'는 것이다. 진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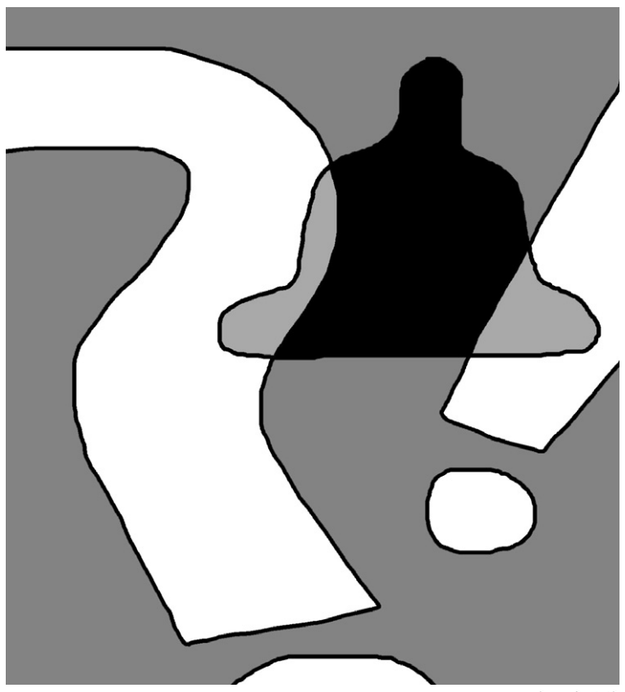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알음알이 바탕으로 살면
생각에 걸려 넘어질 수 밖에
알음알이 깨끗이 비우고
다시 분별 않으면 '공여래장'

의지하거나 집착 없으면
'하되 한바 없는' 무애행이며
일없는 사람 '無事人'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네게 몇개의 마음 있느냐"

"범부와 성인 경계 없애면
마음밖에 다른 부처 없다"

알음알이를 녹이려면 돈오견성을 해야 한다. 일체의 드러난 형상이 본래 환(幻)이라는 것을 배워서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 체득한 경험이 없다면 착각에 불과하다. 평생을 분별하며 살아왔어도, 막상 깨닫는 순간에는 알음알이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사는' 무애행의 힘을 지닐 수 있다. 이것은 막행막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만일 깨달음의 힘을 지니지 못하고 알음알이를 바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생각 생각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껏 모아온 모든 알음알이를 깨끗이 비워버리고 다시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공여래장(空如來藏)이다. 이 여래장에는 한 티끌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곧 '유(有)를 부수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신 것'이다. 또 '나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조금도 얻은 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사량과 알음알이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다만 안팎으로 생각이 푹 녹아서 어디에고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다면, 이런 이가 '일 없는 사람[無事人]'이다.

영가대사의 '증도가' 첫 대목에, "배움을 끊고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임제선사도 '무사(無事)의 사람'을 강조했다. 선문에서는 푹 익어 할 일이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물 같은 삼승의 가르침은 근기에 따라 치료하는 약이어서, 편의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때에 따라 임시로 시설하신 것이므로, 각각 말씀이 다르다. 다만 본뜻을 요달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한 근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글자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실로 여래께서 법을 정해 놓고 설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종문에서는 이런 방편의 일은 따지지 않는 것이니, 다만 마음을 그칠 줄 알면 곧 쉬는 것이요, 다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금강경에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無有定法]'는 가르침이 나온다.

마음이 곧 부처

배휴가 물었다.
"예로부터 마음이 부처라고들 하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라는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물음이다.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아니면 성인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한 질문이다.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곳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방금 삼승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범부와 성인을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배휴의 입장에서는 경전에 분명히 삼승을 말하고 범부와 성인이 구분되어있는데, 황벽스님은 없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것이다. 성품자리를 깨달으면, 범 · 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인 줄 안다. 하지만 깨달은 힘이 약하다 보니, 성품은 놓치고 범 · 성의 분별에만 매달리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려 든다.

"삼승의 경전에 분명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고 하셨다.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거꾸로 '유(有)'에 집착하고 있구나. 허망한 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망령되지 않겠느냐? 망령되기 때문에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다. 네 만약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기만 한다면,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란 없다.

돈오를 했지만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 성인과 범부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결국 성품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설사 성품을 봤다 하더라도, 오래 익혀온 알음알이가 남아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돈오하는 순간에 앞뒤가 끊어진 모습을 철견 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서 범부와 성인을 따로 나누지 않게 된다.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단박에 일깨워 주셨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여 범부와 성인에 집착하고 밖으로 내달리며,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케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셨다.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면, 즉시 육도의 다른 곳에 떨어진다.

한 생각 어지러우면,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일체 그림자가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변하며 없어지지만, 성품의 본바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경전을 익히면, 한결 수월하게 이해되고 방편도 익힐 수 있다. 하지만 모르고 배우면, 배우는 그림자가 또 만들어져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안팎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후에는, 다만 스스로 쉬면 그만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①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護念)해 주시는 경전이다

〈아미타경〉

환타지의 세계

타이완의 불광산사(佛光山寺)에는 정토동굴이라는 인공동굴이 있다. 〈아미타경〉에서 묘사하는 극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토에 갈 수 있나요?" 함께 갔던, 한 여학생의 질문이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만큼 현실세계와 다른 모습에 뭔가 느낌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으로 난간이 둘러쳐져 있고, 일곱 겹으로 그물이 쳐져 있고, 일곱겹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일곱 개의 보배 연못이 있고, 그 안에는 여덟가지 공덕의 물이 가득 차 있다. 연못의 바닥에는 금가루로 덮여 있다. 누각이 있는데, 금, 은, 유리, 파려, 자거, 적주, 마노 등의 온갖 보배들로 장식되어 있다. (…) 이러한 극락의 묘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환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아미타경〉의 환타지는 극락의 묘사로만 끝나지 않는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 정토만이 아니라, 석가모니불이 계시는 이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동, 서, 남, 북, 그리고 상방(上方)의 다섯 방위에 각기 여러 명의 부처님들이 계시다. 그리고 그 많은 부처님들이 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이 경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극락의 모습이나 이 오방의 부처님들이 저마다 아미타불을 찬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가히 입체적인 만다라(mandala)의 세계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환타지는 만다라다.

환타지의 미학

드라마나 소설, 그리고 영화가 픽션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것은 그 픽션 안에서 어떤 삶의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삶의 진실은 허구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예술의 미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대승불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아미타경〉을 비롯해서, 많은 대승경전은 그러한 형식적인 장치를 통해서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타경〉에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장치는 지루하리만큼 많다. 극락만이 아니라, 오방세계에 다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이름이나 말씀을 찬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미타경〉 역시, 그러한 부처님으로부터 찬탄되는 대상이 된다.

〈아미타경〉에서 펼쳐지는 형식적인 측면은, 일종의 환타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내용이 펼쳐져 있다. 그렇기에 오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다 동원해서 이 〈아미타경〉을 칭찬하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 불가사의한 공덕의 세계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째서 그렇게 모든 부처님께서는 찬탄하시고 호념(護念)하시는 것일까? 우리 중생들이 "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



그림 · 박구원

는 아미타불의 이름이나 이 경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듣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만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무슨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금강경〉에도 나오는, 이 '호념'이라는 말을 나는 '사랑'이라 옮겨본다. 48가지 원을 세운 아미타불을 비롯해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분들의 사랑, 즉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길의 저 끝에는,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들의 사랑 덕분으로 "모두 물러서지 않는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극락에서! 이러한 믿음은 내용적인 진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미타경〉은, 그 안에 아무리 환타지적인 허구가 펼쳐져 있더라도 진실지교(眞實之敎)인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여
제2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선착순 : 약간명 ※ 개강 이후 2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3년 6월 4일(화) – 6월 8일(토) 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개 강 일
2013년 6월 8일(토)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모 십 니 다

소승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고해사 주지 도경입니다. 소승은 禪大韓佛敎曹溪宗 종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에 함께 종단 운영에 동참하실 원로대덕 큰스님과 도심 및 초야에 소속없이 홀로계신 모든스님께 밖으로는 불국정토 구현과 안으로는 친목 및 내부 결속을 다져 부처님 법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많은 지도편달 바라옵고 뜻있는 모든 스님 대환영하며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 959-1825, 010-3114-1825
사전에 전화로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최초 부처님이 모셔진 곳!
선대한불교조계종 苦고 解해 寺사
예비모임일 : 2013년 양 5월 30일 오후 3시

◆ 종단운영 및 불교사업 토론 ◆ 예비모임에 참석하신 스님위주로 운영됩니다.
◆ 종단에 가입하실 스님 접수도 받습니다.
(사찰등록증, 임명장, 종단회원증, 운영지침 드립니다.)
(무속인, 철학원, 명상수련원, 기공원, 심의 후 가능)
◆ 도심속기도도량 고해사에서 함께 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바로 사용하는 秘傳 실전 구 성 학

◆ 단기 7일 완성 ◆ 속성 2~3일 완성! (지방숙식가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교용으로 적합
교육 후 바로 실전가능! 안되면 될때까지!
공부와 진검 승부의 장, 실전 구성학 까페 준비중!
년 1-2회 최고권위자 세미나 개최 준비중!
아주 배우기 쉽고 간단하고 실전에 강합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중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백파에게 사자후보다 더한 일성

긴 여름 장마는 제주 적소의 추사에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제주를 다녀간 태전 편에 자신의 처지를 세세히 전했건만 초의의 답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 보다. 쉴 새 없이 퍼붓는 여름비가 멈추기를 고대하는 추사의 마음은 긴 여운을 남긴 잔영처럼 애잔함이 묻어난다. 이런 그의 고단한 적소의 일상이 잘 투영된 이 편지는 〈나가묵연첩〉과 〈영해타운첩〉에 함께 수록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태전 스님 편에 보낸 편지는 받아보셨습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비가 계속 내려)대지는 마를 사이가 없고, 풍토병이 만연하니 청량한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쾌청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스님은 생활하는데 이런 고통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먹으면 체하는 병으로 더욱 지금의 처지가 가장 고민됩니다. 만일 포장을 얻어 위도를 뚫는다면 신선세계에서 만들었던 더할 것 없는 묘미(妙味)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생각하기도 어려워 망상 자체가 우습기만 합니다. (운문암의) 백파가 그 사이 회답을 보내왔는데, 어지럽게 이야기한 것이 더욱 심합니다. 또한 큰 사자후로서 저지시켰습니다. 너무도 우스워 입에서 밥알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대사와 함께 한번 증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침월이 돌아가는 길에 간략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7월 27일 늑충(頃因太顚僧寄械 果即收照 媧天有漏 后土不乾 瘴濕浸淫 甚思清凉界一銷未知團蒲安養無此苦障否 此狀阻食一症 尤爲現在最悶 若得泡醬 開發胃道 何異香積無上妙味也 亦難着得 妄想可呵 白坡間有答來 胡亂說去答甚矣又以大獅吼截住 好覺噴筍 恨無以與師一證耳 枕



〈영해타운첩〉의 추사 편지

'여백파' 등 선리탐구 흔적 보여
"대사와 함께 증험 못해 안타까워"
체하는 병으로 고생…포장 간청

月之歸 略申 不宣 七月二十七 勘沖)

실제 이 편지가 어느 해에 쓴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백파의 선리 문제가 거듭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제주 유배 초기의 편지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추사가 자신의 선리 논점을 정리한 〈변망증십오조례(辨妄證十五條例)〉를 1843년에 저술하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백파와의 선리 논쟁이 왕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실은 그가 "백파가 그 사이 회답을 보내왔는데, 어지럽게 이야기한 것이 더욱 심합니다"라고 한 점이나 "큰 사자후로서 저지 시켰습니다"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백파의 선리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무도 우스워 입에서 밥알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라고 한 점이다. 이는 그가 전한 사자후보다 더 신랄한 일성(一聲)을 고한 것이라 하겠다.

선리의 변론에서 보인 치밀한 고증을 토대로 한 그의 논리 구성은 그의 학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의 섭렵을 통한 그의 달변은 당대 불교계를 대표했던 인물, 백파와 맞서 논쟁을 이어간 그의 근기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리의 탐구 흔적은 그가 백파에게 보낸 〈여백파(與白坡)〉 3통과 〈서시백파(書示白坡)〉에도 나타난다. 논쟁의 중심에 있던 초의에게 일증(一證)했던 성의 있는 그의 학문적 태도는 "대사와 함께 한번 증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추사는 제주의 풍토를 감당하지 못해 "먹으면 체하는 병으로, 더욱 지금의 처지가 가장 고민됩니다"라고 실토한 것. 초의가 보낸 포장(泡醬)으로 심신을 달랬던 그였기에 "위도를 뚫는다면 신선세계에서 만들었던 더할 것 없는 묘미(妙味)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 하였다.

이는 초의에게 포장을 보내달라는 간청인 셈이다. 포장은 2월에 담근 장에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것을 침장하여 만든 일종의 장류라 여겨진다. 이런 진미를 얻어 위를 달랜다면 신선세계에서나 맛볼 수 있는 묘미라니 포장을 청하는 그의 은근한 요구는 이렇게 맛깔스럽다. 지기(知己)란 이런 멋이 있어야 격이 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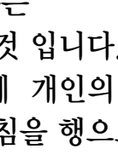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불법 담은 선율 신심 일으키는 염불"

박범훈 교수 (前중앙대 총장)

"불교음악 전공자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불교음악 찬불가를 작곡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음악에 종사하는 음악가들을 더욱 더 잘 대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남성합창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성악전공자들도 키워야 합니다. 국악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우리 불교와 인연을 맺어 연주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국악계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불교음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하얀 백발의 한 음악가가 외치는 호소가 울려 퍼졌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불교음악의 중요성을 외친 이는 바로 현대 찬불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박범훈 교수(前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이다.

'박범훈의 소리연(緣)'이란 타이틀로 마련된 이날 자리는 중앙대 총장,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 잠시 교육문화 행정활동을 진행한 그의 복귀무대였다. 불교음악을 향한 박 교수의 애정은 국립극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대중들의 가슴에 감동을 선사했다.

찬송가풍 초기 불교음악 흐름 바꿔

박범훈 교수는 불교음악계의 대부다. 그의 손을 거쳐 간 대작만 해도 '붓다' '보현행원송' '용성' 등 수십곡에 달한다. 특히 찬불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던 1990년대 박 교수는 30여곡의 찬불가와 대형합창곡을 써 현대 한국불교음악의 세계를 풍성하게 했다.

"국악 속에 염불, 영산회상, 탑돌이가 있습니다. 전통음악은 물론이려니와 궁중음악 등에도 불교사상이 베여있는 것입니다. 국악을 하는 이들은 불교신자임을 떠나 불교음악을 전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 전통음악, 국악은 불교를 모체로 갖고 있고, 서양음악은 기독교를 모체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전통음악이 불교에 기반함에도 초기 불교음악계가 기독교의 찬송가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 용성 스님께서 찬불가를 지어 포교에 나섰지만 그 이후로 불교음악가들의 맥이 끊겼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며 스님들이 찬불가를 지으려 했지만 작시·작사는 되지만 작곡이 잘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운문 스님이 작사는 하셨는데 작곡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안쓰는 찬송가 곡을 개사해 찬불가로 불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을 절로 모아야 했으니까요. 이후 이찬우 서창업 최영철 선생 등 당시 작곡가들이 나서며 불교음악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음악 작곡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가분석입니다. 초기 불교음악가들의 역할이 지대 했음에도 서양음악에 기반했기에 자연 찬송가풍 멜로디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니다."

'붓다' 등 한국불교음악 토대 다져

그런 상황에서 박범훈 교수는 한국 전통음악에 기반한 찬불가를 짓고자 마음먹었다. 그 계기는 지인들과 함께 찾은 해인사에서 아침예불에 참석하면서 부터다. 당시 그 장엄함에 감동을 받은 그는 교성곡 '붓다'를 작곡한다. 찬불가와 국악의 만남을 통해 박범훈 단장은 현대 한국국악사와 현대불교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저도 사실 서양음악을 하다 국악을 했습니다. 전통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 당시 인연이 닿은 쿠사노 다이코 교수가 한국 찬불가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찬송가가 아니냐고요. 1983년 조선일보 일사일언 코너에 '법당 안에 피아노'란 글로 찬송가 풍인 찬불가를 비판했습니다. 비판과 함께 그럼 전통음악에 기반한 찬불가를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해인사를 찾아 느낀 감동은 이런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했습니다. 1984년 중앙대 교수로 오며 불교음악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불교방송이 개국과 함께 국악풍의 찬불가 100곡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들면서 그때 박 교수도 불교방송과 함께 찬불가 작곡에 나섰다. 1991년 종교음악제에서 초연한 대형교성곡인 '붓다'는 큰 화제를 모았다. 초연 당시 60명의 국악관현악단, 200명의 합창단, 그리고 특별 출연자로 석상훈, 김성녀, 주병선 등이 출연했다.

그후 박 교수는 대규모 교성곡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1992년 광덕 스님의 요청으로 '보현행원송'을 만들어 불광사 신도 50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선을 보였다. 당시 세종문화회관을 가득메운 4000여 대중은 '보현행원송으로 보리이루리'를 합송하며 환희심을 더 했다. 1996년 각 사찰 연합합창단과 안숙선, 김성녀, 도신 스님 등이 독창을 맡은 '부모은중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교성곡 '용성'과 진감선사 일대기 '진감'을 비롯해 '이차돈의 하늘' '무상계' '탑돌이' 등 30여곡의 찬불가와 대형교성곡을 창작했다. 그가 10년만에 이룬

1983년 찬송가풍 찬불가 비판
1990년대 교성곡 '붓다' 등 30여곡 작곡
박사논문, 한국불교 음악사 연구
"불교음악인들은 '전법사'이어야"
후학양성에 교계 관심 호소

성과는 현대불교음악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박 교수는 이러한 곡들을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 재직 시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국립극장 무대에 올렸다.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범훈 교수는 또 불교음악사의 이론적인 토대도 마련했다. 1999년 동국대 5년 동안 준비한 '불교음악의 현대적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한 것이다. 한국일보가 선정한 전문서적 50선에도 든 이 논문은 한국불교음악의 교과서이자 불교음악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맡고 중앙대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불교음악의 전래나 역사에 대한 기반지식이 전무하던 때였어요. 다른 이들 몰래 동국대 3학년에 편입해 공부만 하려 했어요. 하지만 동국대 교수님들이 설득하셔서 박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 박사논문으로 썼습니다. 불교음악에 대한 경전의 기록에서부터 불교음악의 전래,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 창작찬불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불교음악 뿌리는 경전에 있어

박 교수는 불교음악의 근원은 바로 경전에 있다고 말한다.

"불교음악은 사실 경전에 모두 있습니다. 음(音)은 '소리', 악(樂)은 '뜻'입니다. 뜻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도 좋아야 하지만 뜻도 함



1999년 발표한 논문집을 들고 밝게 웃는 최근의 박범훈 교수



불기 2557년(2013) 부처님오신날 불자대상을 수상하는 박범훈 교수



1993년 한중일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나선 모습



박범훈 교수는 … 한국 전통음악과 불교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지난 4월에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을 기리는 교성곡 '용성'을 지휘하기도 했다. 중앙대 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일본 무시시노(無藏野)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국불교음악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 초대단장을 맡았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및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제12대 중앙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아세안전통음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청와대불자회 회장이기도 했다. 1973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으며, 제35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음악부문, 제56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국악부문에서 수상했다.

께 좋아야 합니다. 전통 음악에서 강조하는 정과 신이 맞아야 한다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불교의 염불이 바로 불교음악입니다. 염은 '음'이며 부처님 가르침인 불이 곧 '악'인 것입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작곡되고 불리어지고 있는 불교음악에 대한 흐름을 걱정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이 불교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노래방에서 부르든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부르든 법당에서 부르든 그 노래 속에는 '부처님 말씀'과 '불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통되고 있는 불교음악들 일부가 제목만 불교인 경우가 많다고 질타했다.

한중일 민족음악회 창립 국악영역 넓혀

불교음악계 뿐만 아니라 국악관현악 대중화에 앞장선 박 교수는 1987년 최초의 민간 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 1993년 한·중·일 3개국의 민족음악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아시아,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 등 국악의 영역을 넓혔다.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의 조화를 나타낸 '신모듬' 등은 현재도 국악 무대의 단골 레퍼토리다. 이런 그의 전통문화에 대한 기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청와대에서도 예술 쪽을 담당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도울 수 있는 건 도왔고 현장 애로사항도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많은 경험을 했어요."

2011년 박 교수는 청와대 불자회장으로 불자정치인들의 신행활동을 이끌기도 했다.

"불교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 출신이라 종교편향 등을 짚기도 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불교계와 친분이 깊었습니다. 특히 입적하신 법장 스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들은 아래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불자회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후학 양성에 매진 할 터

당시 활동은 박 교수가 향후 불교음악계의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게 만들었다.

"이제 불교음악은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역량을 갖고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대치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젊은 인재들을 위해 마당을 펼쳐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현대화입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인들에 대해 '전법가'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하도록 불교계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불교음악계가 열악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불교음악하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신념을 바쳐서 작곡활동에 매진합니다. 우리는 스님들께서 수행하고 보다 전법을 활발히 하시도록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소리로 전달하는 전법가들에게도 불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 단장은 자신의 호인 범성(凡聲)에서 따온 재단법인 뭇소리중앙예술원을 사재를 털어 세워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다.

박 교수는 "음악 공연을 들은 한 노 비구니 스님이 가진 전재산 2000만원을 불교음악 하는 후학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름도 밝히지 않고 통장 채로 보내주시기도 했다. 또 신륵사 세영 스님, 불국사 정산 스님 등도 불교음악가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실 기독교계의 후원으로 합창단 활동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음악인들이 많습니다. 불교계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악을 전공해서 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 사찰에 영산회상에 필요한 6명 가량을 전속으로 배치해 산사음악회 등에 공연하도록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 중심지에 불교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관이 없습니다. 불교예술관 건립 등은 불교계가 마음을 먹고 땅을 내놓고 불사를 일으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끌어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2년 월드컵 당시 공연을 지휘하는 모습



국악방송에서 방영된 '보현행원송' 장면

전법일기

신도들 음악 들으며 하품

실패한 음악감상회

욕먹을 각오로 말한다. 나는 오디오를 한다. 이렇게 고백해 둬야 다음 이야기가 풀리기 때문에 미리 털어놓는다. 예전에 산속에 살았을 때 오디오를 켜두고 혼자 음악을 듣고 있으면 등산 온 사람들이 가끔 물었다.

"스님은 왜 염불 안 듣고 음악 들으세요?"

그때 나는 장난처럼 말했다.

"나는 입만 열면 늘 염불하는데, 염불을 듣기까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몇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만큼 음악은 절집과 이질감이 느껴지나 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도 탐탁찮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다. 그런 분은 신문을 한 장 넘기시거나 다른 코너를 읽으시라. 괜히 욕해서 업 짓지 말고. 나, 욕먹으면 기분 나쁘다. 사람이니까.

나는 중고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다. 싸기 때문이다. 새것 사는 비용으로 중고를 사면 더 높은 단계의 오디오를 장만할 수 있다. 물론 고장은 감수해야 한다. 나는 앰프와 스피커, CD 플레이어 모두 중고를 쓴다. 그러다보니 완전히 중고 인생이 돼버렸다.

내가 보성선원에 올 때 그것들을 갖고 왔다. 우리절은 대구 주택가에 있는데, 도시 신도라고 해서 내가 음악 듣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 거기서 거기다.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대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쳤다. '음악감상회'를 연 거다. 그래서 오디오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음악을 틀어줬다. '그래, 나 음악 듣는다, 어쩔래?' 이렇게 쎄게 나가야 별 말이 없다. 그게 효과가 있었던지 지금까지 대놓고 내게 뭐라고 한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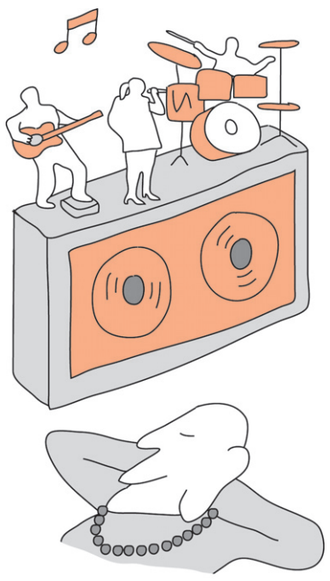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리 '음악감상회'는 요즘 KBS 1FM에서 카이 씨가 진행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클래식, 가요, 뉴에이지, 영화음악, 재즈, 월드뮤직, 국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편성했다.

대구불교방송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했던 최현태 보살을 초청해서 그에게 진행을 맡겼다. 내가 선곡을 해서 넘겨주면 그이가 그 곡에 대한 소개를 써서 내게 다시 보내주었고, 내가 다시 검토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완성해 갔다. 서두에는 계절 인사를 하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음악만 들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라이브 연주도 넣었다. 어떤 날은 성악가가 오기도 하고, 소리꾼이 와서 판소리를 한 대목 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구시향과 경북도향의 연주자들이었다. 콘트라베이스, 첼로, 바순, 트럼펫, 호른, 섹소폰, 마림바 등의 연주자들이 반주를 넣어주는 피아니스트와 함께 와서 앵콜 포함해서 세 곡 정도의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

신도들은 하품을 했다. 다 들리도록. 연주자들에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음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비밀인데, 나는 지름신과 무척 친하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빔 프로젝터와 150인치 스크린, 서라운드 영화를 볼 수 있는 오디오를 질렀다.

영상도 많이 확보했다. 러시아의 미녀 성악가 안나 네트렙코는 물론, 파바로티, 키신, 카라얀, 바렌보임, 두다멜을 우리 스크린으로 불러왔고, 심지어 비틀즈나 이글스, 태양의 서커스, 야니, 조용필, 소리새, 최성수까지 다녀갔다. 참 좋았다,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품을 계속하더니 참가자 수가 점점 줄었다. 처음엔 46명이 왔었는데 13번째는 9명이 왔다. 마림바 연주자는 그래도 꿋꿋하게 세 곡이나 연주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가사에 이런 게 있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렇게 음악감상회를 종쳤다. 에이, 실패!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바그너의 불교세계, 빨리어로 그려지다

英 '바그너의 꿈'
6월 15일까지 공연


바그너가 미완성한 부처님 생애에 기초한 오페라 '승리자' 중 한 장면


승리자(The Victory)의 포스터. 왼쪽은 바그너, 오른쪽은 붓다의 모습

웨일즈국립오페라, 밀레니엄센터서…곰브리치 교수 빨리어 번역
바그너 "불교 교리는 숭엄하며 만족스러워"
"빨리어 공연 인도 · 독일 문화 흐름 선명히 보여줄 것"

불멸의 작곡가 리하르드 바그너(Richard Wagner · 1813~1883)의 탄생 200주년을 앞두고 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페라 '바그너의 꿈(Wagner Dream)'이 영국에서 빨리어와 독일어로 공연된다.

웨일즈온라인(WalseOnline)은 5월 17일 현지시각 "영국의 웨일즈국립오페라(Welsh National Opera)단이 부처님을 주제로 한 바그너의 미완성 오페라 '승리자(The Victory-Die Sieger)'를 모티브로 조나단 하비(Jonathan Harvey · 1939~2012 · 영국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바그너의 꿈'을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Wales Millennium Centre)의 무대에 올린다"고 보도했다.

바그너는 말년에 이르러 스스로 불자로 자처하며 "불교야 말로 편협한 모든 다른 도그마와 비교되는 세계관"(출처:Clarke 77)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 1811~1886)에게 보낸 편지에는 "유대 · 기독교 교리와 비교해서 이(불교) 교리는 얼마나 숭엄하며,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기독교는 알렉산더의 원정 이후 지중해 연안에 확산되었던 저 숭엄한 불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다.(출처:Clarke 77)

불교에 대한 바그너의 열정은, 그가 부처님의 생애에 기초한 '승리자(The Victory - Die Sieger)'라고 하는 오페라를 구상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오페라는 완성되지는 못했다. 조나단 하비의 '바그너의 꿈'에는 이러한 바그너의 삶과 펼치지 못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불교 오페라에 대한 그의 영감이 담겨 있다.

공연의 지휘봉을 잡은 데이빗 폰트니(David Pountney · 웨일즈국립오페라) 감독은 "오페라 '바그너의 꿈'은 서양 음악의 전통 음률에 불교적 이상과 내러티브 요소 등이 극대화 된 작품"이며 "이는 원작의 언어가 영어이지만, 이번 공연 언어로 빨리어와 독일어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빨리어는 아소카(Ashoka · BC273~BC232) 왕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기록했던 인도의 고대어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웨일즈온라인은 비평가들의 말을 인용, "빨리어와 독일어로 공연되는 '바그너의 꿈'은 영어로 공연되는 것보다 더 깊은 문화적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바그너가 미완성 오페라 '승리자(The Victory - Die Sieger)'를 통해 관객과 나누고자 했던 이상을 더욱 잘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페라 '바그너의 꿈'의 빨리어 가사는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회장을 역임한 리차드 곰브리치(Richard Gombrich · 옥스포드대) 교수가 맡았다.

"흥미진진한 도전이었다"며 소감을 전한 곰브리치 교수는 "음률에 맞춰 빨리어를 배열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전하고자 하는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사를 옮기는 동안 빨리어와 독일어야 말로 바그너가 미완성 오페라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인도와 독일의 문화 · 사상적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페라 '바그너의 꿈'에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인물 바이로차나(Vairochana)로 무대에 오른 리하르드 위골트(Richard Wiegold · bass)는 "'공(空) 사상(the concept of emptiness)'을 담고 있는 노래 가사를 어떤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지 하는 점이 연습 내내 화두였다"며 "감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무대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언어, 빨리어로 노래하는 것이 이번 무대의 백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인 분신자살… 中 경찰 스트레스

중국정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응 매뉴얼 배포

티베트인들의 잇단 분신자살로 티베트 지역에 주둔한 중국 무장경찰들이 극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5월 22일(현지시각) 티베트 주둔 무장경찰의 25페이지 분량 내부 훈련문서를 인용하면서 "현지 무장경찰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텔레그래프는 "중국 당국이 이 문서를 통해 최근 분신자살 등 잔혹한 사건을 겪은 무장병력의 우울증과 PTSD에 대응하는 매뉴얼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문서에서는 2011년 3월 16일 쓰촨성 아바현에서 발생한 티베트 승려 리그진 푼촉(21)의 분신자살 등을 언급한 뒤, 이 작전에 참여한 일부 경찰들이 악몽과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PTSD의 증상인 플래시백(당시 상황이 떠오르고 극심한 공포를 체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눈을 감고 당시의 이미지를 카메라와 같은 장면으로 생각한 뒤 줌아웃 하듯이 풍경을 멀리 보내며 '사라졌다'고 스스로 되뇌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산책과 음악 듣기, 운동, 카드게임, 일기 쓰기 등도 치료방법에 포함됐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인권단체 '티베트 인권민주주의센터(TCHRD)'는 이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티베트인이 중국 통치 하에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티베트에서는 2009년 2월 이후 최소 109명의 티베트인이 분신을 시도했으며 이 중 최소 89명이 숨졌다.

텔레그래프는 또한 "과거 10년간 특별의료팀이 티베트에 파견돼 현지에서 수개월간 주둔 경찰들을 상담하거나 치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충칭시 제3군의대학은 7개팀을 티베트지역에 파견해 심리적 조사와 함께 1000명 이상을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5월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전 세계의 티베트 학자 200여명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라싸 구(舊) 도심의 상업화 개발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자들은 서한에서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구 도심인 바코르(중국명 바궈〈八廓〉)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물 유산들이 파괴되고

일부 경찰 악몽 · 우울증 겪어
산책 · 음악듣기 · 운동이 치료법
특별의료팀 파견돼 심리치료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온라인 서한은 "이런 파괴는 미적인 문제일 뿐아니라 '티베트 과거와 연결된 살아있는 끈과 줄'을 끊어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티베트 망명정부는 성명에서 "조캉사원(大昭寺) 등이 있는 불교 중심지 바코르 지역을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조캉사원은 라싸의 포탈라궁과 함께 티베트인의 양대 정신적 성소로 불리며, 두 곳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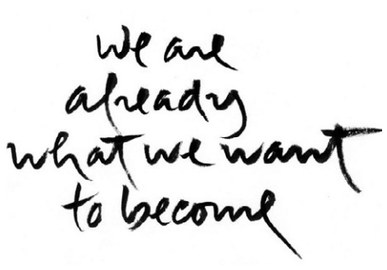
조캉사원은 중국 통치에 반발하는 티베트인의 상징적인 저항 중심지이며, 바코르 지역에선 지난 2008년 티베트 분리 ·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져 10여명의 희생자가 났다.

이나은 기자


텔레그래프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자살 사건에 참여한 경찰들이 악몽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적 대립 풀어가야"

중국과의 내홍 앓은 홍콩 … 명상 법회서 해법 찾아



틱 낫 한 스님의 명상 서예. 리나 안젤라 코퍼스(Rina Angela Corpus) 소장.


틱 낫 한 스님이 홍콩에서 개최한 명상 법회 현장.

아시아 투어 일환으로 홍콩을 방문한 틱낫 한(Thich Nhat Hanh) 스님이 '홍콩 사회에서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지가 5월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매화마을(Plum Village) 홍콩 지원장 팝 캄(Phap Kham) 스님의 말을 인용, "틱 낫 한 스님은 한 번의 대립은 막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또 다른 대립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홍콩 사회에 알려주었다"며, 틱 낫 한 스님의 홍콩 방문 의의를 요약했다. 이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는 대화와 소통만이 중국과 홍콩 그리고 시민 간에 불거지고 있는 정치 · 사회적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홍콩 사회는 2017년 실시될 '행정장관 직선제'를 놓고 중국(중앙정부)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새 지도부가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홍콩에도, 중국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며 "애국적인 인사가 집권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홍콩 사회가 "반중 인사의 출마를 미리 차단하고 친중국 인사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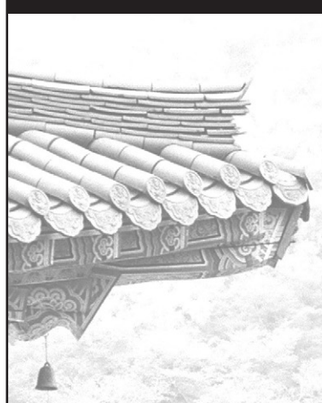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당시 '일국양제(一國兩制 · 한 나라 안 두 체제의 공존), 즉 본토의 사회주의 체제와 달리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약속했고, 지난 2007년 말에는 홍콩 야권의 대규모 시위와 여론의 압력에 밀려 10년 뒤인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약속했다.

팝 캄 스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불안에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틱 낫 한 스님의 '화를 다스리며,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지금의 홍콩 사회가 새겨 들어야할 선사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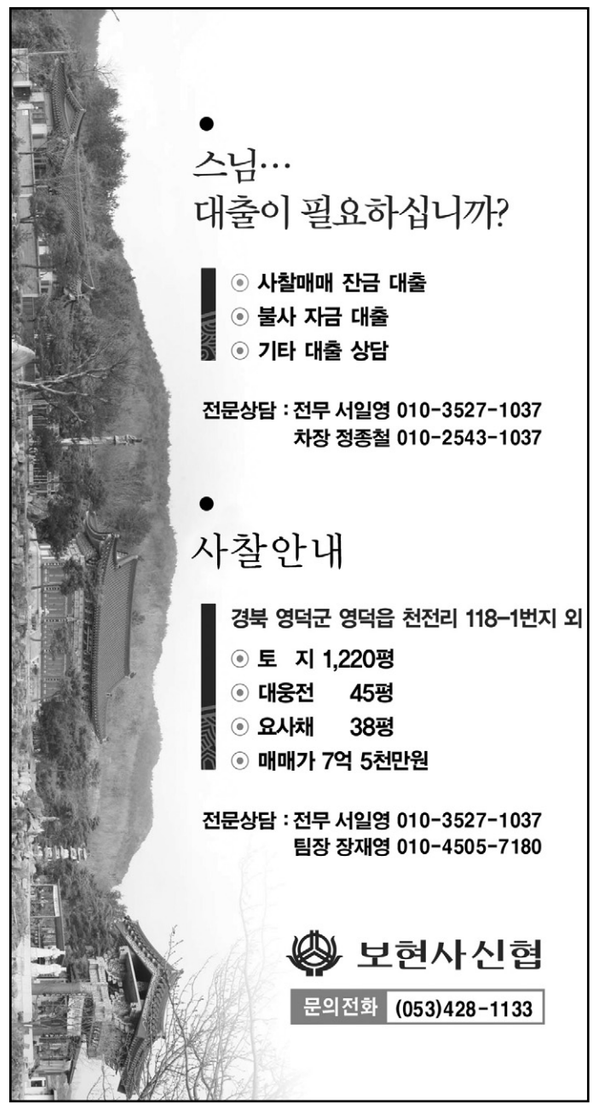
또한 팝 캄 스님은 "홍콩 사회 곳곳에서 중앙정부(중국)를 향한 항의는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말하고, "틱 낫 한 스님은 평화적인 문제해결에 힘을 실었지만, 불의에 맞서 적극 해쳐나가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남범음범패
제2기학인모집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작 법 무 : 천수바라, 황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모집인원 : 수시모집
▶교육대상 :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불교회관)
▶문 의 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A
DWKS-108B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DWKS-3000A
DWKS-3000B


DWKS-5000A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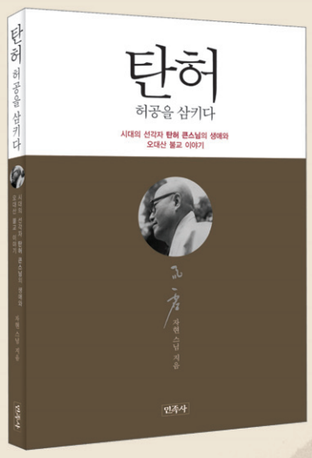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기지 않는 이름 탄허, 그리고 탄허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탄허, 허공을 삼키다—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자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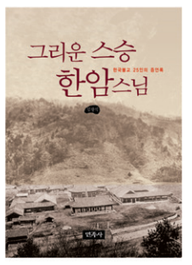
5월 17일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탄허, 화엄의 길〉 KBS1 TV 방영 예정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암 큰스님

한암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면서 수행에 임했으며, 계율에 철저하고 승가화합과 대중화합에 투철한 올곧은 수행자였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하였으며, 좌탈입망으로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국불교의 자존심이다.
이 책은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일화집이다. 생전에 주석하셨던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수집한 스님의 행적과 자료,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한암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김광식 지음 / 412쪽 / 15,000원 / 양장(신국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아시아 불교회화 역사 한눈에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 종교회화편〉 발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중앙아시아 소장 유물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자료집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 편〉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대형 벽화를 포함 총 77점의 벽화와 견(絹), 면, 종이에 그린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불교적 주제를 다룬 그림이며 마니교 회화로 추정되는 그림도 포함됐다. 이는 20세기 초 일본의 오타니 고즈이 스님이 조직한 중앙아시아(실크로드) 탐험대가 수집한 유물로 구성됐다.


〈중앙아시아…〉에 실린 관세음보살.

대형벽화와 그림 등 불교주제 작품
역사학 등 종합적 연구 성과 담아

국립중앙박물관은 "1940년대 초기 연구 이래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 현지 조사, 20세기 초 서구열강 탐험대의 관련 유적에 대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개별 유물의 출처를 제시했다. 이 중에는 근래 조사로 밝힌 벽화 7점의 세부 출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집은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새로운 연구 결과의 수록이다. 모든 유물에 대해 양질의 도판을 게재했다. 이 중 40여점은 컬러 도판으로는 최초로 소개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유물에 대해서 연구자와 일반 대중이 추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관련 연구의 출처를 자세히 수록했다.

여기에 39점의 유물에 대해 실시한 보존과학적 조사 내용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현미경 관찰, 적외선, X-선을 이용한 광학적 조사와 X-선형광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직물자료 등의 바탕재질 조사 결과를 수록 역사적, 미술사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중앙아시아 유물은 현재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 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대개 저간의 특별전시 도록이나 주요 소장품을 수록한 대형 도록 등을 통해 그 전모가 소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러한 도록은 도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조형적 특성을 간략히 서술한 경우가 많다. 이와 비교해 이 자료집은 유물에 대한 역사학, 미술사학, 보존과학을 포함한 종합적 연구 성과를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외 중앙아시아 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집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점에서 판매된다. 총 265쪽이며 가격은 40,000원이다.

정혜숙 기자

불교음악으로 꽃피는 처용의 사랑

오페라 '처용설화' 6월 8일~9일

한국의 불교적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이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창작오페라 '처용설화'가 6월 8일~9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천년의 역사를 품은 '처용설화'의 환생과 처용과 가실의 사랑이야기를 뛰어넘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고뇌를 음악으로 표현하다

음악을 맡은 작곡가 이영조는 한국 전통의 소리와 현대적인 음악적 어법의 결합을 추구했다. 서라벌, 승무, 용비어천가, 황진이, 처용 등 수많은 작품을 작곡한 이영조는 현대음악과 한국 고유의 소리를 절묘하게 결합해왔다.



처용설화 포스터

지휘자 정치용과 국제 페스티벌을 통해 고전의 한국적 재해석으로 갈채를 받은 연출가 양정웅은 전통문화의 향기를 품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무대를 선보인다.

'처용설화'는 현대음악과 불교음악의 이색적 만남을 통해 독창적인 한국 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6월 8일~9일 양일간 오후 3시에 공연되며 티켓은 R 10만원, S 8만원, A 6만원, B 3만원, C 1만원이다.

정혜숙 기자

"깨달음과 美의 현현"… 옻칠 영구 보존

성파 스님 옻칠 불화전

옻으로 불화를 표현한 전시가 눈길을 끈다. 성파 스님의 옻칠불화전이 5월 27~6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끊임없는 수행과 예술혼으로 불심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해온 성파 스님은 전통불화와 옻칠공예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불교예술을 선보인다. 성파 스님은 "옻은 천년을 간다고 할만큼 영구보존이 가능한 재료다 이 옻을 통해 불화를 그려내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취지를 전한다.

성파 스님은 그동안 18만 도자 대장경을 봉안했고 전통사경 흑은 천연염색전, 창작산수화전, 옻칠화 개인전 등 다양한 전통장르를 활용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제 스님은 이를 한국불화로 옮겨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에 이른 것이다.

스님은 "옻은 20년 수령이 되어야 수액을 추출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재료다. 마르는 속도는 매우 느려 색깔 하나를 칠하고 다음 채색을 하기까지는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반 채색에 비해 5배의 공력이 든다. 우리의 불화를 재현해 전통을 보존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그동안 꾸준히 이 작업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가삼존도' 등을 비롯해 20여 작품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석가삼존도'는 옻목판 위에 옻칠과 옻채색 그리고 순금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부처님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 전형적 삼존도 양식이다. '영산회상도'는 석가세존이 마가다국 왕사성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관세음보살도'는 법화경이나 관무량수경에 나타나는 관음과 해상용왕, 용녀, 선재동자 등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사천 운흥사 불화를 참고했다. 이밖에도 '제석탱화' '위태팔부신장 탱화' '화신관음도' '나한도' 등이 선보인다. 이 중 '화신관음도' '나한도'는 바탕재료에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옻 채색을 입혔다.


성파 스님의 옻칠불화전이 5월 27~6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작품은 '석가삼존도'.

6월 2일까지 불교역사기념관서
옻 · 알루미늄 · 순금 재료 사용
불화 165점 재현에 매진할 계획

미술평론가 윤범모 씨는 "성파 스님의 작품은 불법의 시각적 회화라는 점에서 환희심을 갖게 한다. 바로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현현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앞으로 성파 스님은 꾸준히 한국불화를 재현하는데 매진할 생각이다. 스님은 "전통 한국불화를 36종 165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작품들의 원형보존에 계속해서 매진할 생각이다. 현재 작업중인 서운암에는 건조실을 마련해 놓고 옻칠 작업에 전념하고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깨달음의 여정 삼색의 예술로

통도사 극락암 삼색삼소전…6월 9일까지


삼색삼소전 참여작가들

네 명의 작가가 펼치는 다양한 불화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눈길을 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감원 선광스님)은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 삼색삼소전'을 마련했다.

6월 9일까지 극락암 경내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전실근 작가의 '극락암 사계 및 미얀마 불교 특별전', 불화장 이수자 오기웅 · 배수정의 '기와 불화전', 이미영 화백의 '불교 묵화전' 등이 선보인다.

극락암 주지 선광 스님은 "평소 불교적 소재로 감동을 주고 있는 작가들의 모습이 마치 화두를 든 수행자의 모습"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통해 일상 속 수행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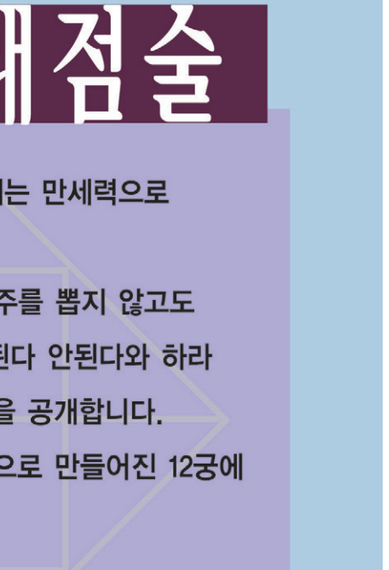
전실근 씨의 특별전은 미얀마 특별전과 극락암 사계를 담았다. 맨발에 발우를 든 수행자들의 경건한 탁발행렬, 온통 황금으로 조성된 사원 쉐다곤 파고다의 경이로운 모습, 그리고 극락암의 무심한 시간이 담긴 작품을 렌즈 속에 담아냈다.

기와에다 전통 불화를 피어낸 오기웅 · 배수정 부부는 선생과 제자로 만나 불교미술대전에서 3년 연속 수상한 실력파 작가로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다. 이번에 출품 작품은 총30점으로 관음보살도, 나한도, 신장, 용 등이 거친 기와 위에 자연스럽게 담겨졌다.

부처님의 얼굴을 묵화로 담아낸 이미영 화백은 크로키처럼 빠른 붓놀림으로 부처님의 얼굴과 극락암의 전각과 스님들을 거칠고 투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화백의 작품 속 부처님의 모습은 거칠다. 코가 잘린 듯 훼손된 불상의 모습은 심술궂게 보일정도인데 거기 붙은 제목이 비경(非經)이다. 이처럼 이 화백의 모습은 부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불화 · 사진 · 묵화 세 장르 만나
일상 속 수행의 의미 되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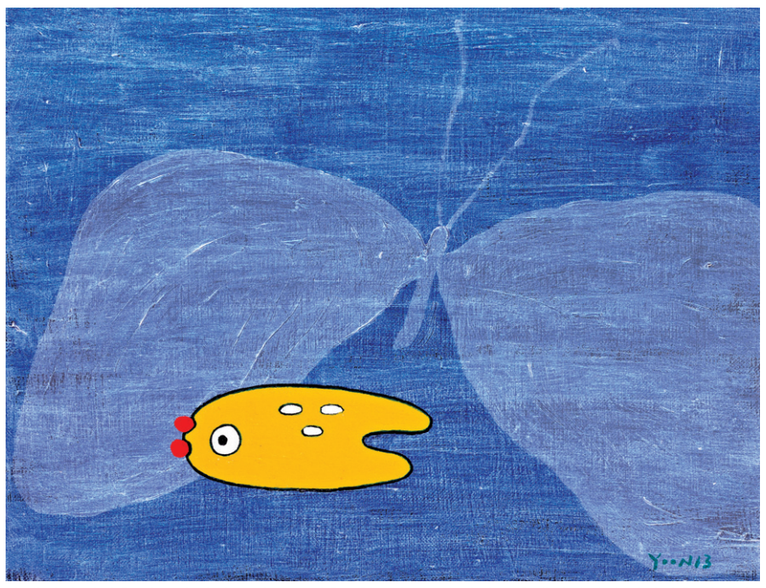
신록의 계절 오월, 한국근대불교의 큰 스승인 경봉 스님께서 평생을 주석하신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 그곳에서 수행의 길을 걷는 작가들의 야단법석을 기꺼이 시간내서 들여다봐도 좋을 것이다.


오기웅 작가의 '백의관음보살'.

박경수 부산지사장

“나비는 바다 위에서 무상을 말하네”

성륜 스님 ‘꿈’ 전… 6월 5일~11일 윤갤러리서



수행자의 내면을 화폭에 펼치는 성륜 스님은 6월 5일~11일 인사동 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없어져요. 철저히 몰입해 물감을 칠하고 그것이 마르고 굳고 하다보면 작품 하나가 완성되고 또 한 세월이 가죠. 고개 한번 돌리니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새로운 전시를 하게 되었네요”

성륜 스님은 25년간 그림을 그려온 화가이자 수행자다. 그 세월 동안 15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1천 여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6월 5일~11일 인사동 윤갤러리에서 대중들을 찾는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전시를 여는 스님은 이번 작품 역시 나비를 통해 내면을 표현했다.

“지난 전시 작품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이 주제에 대해 좀더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보고자 다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제 나비는 바다로 나아갔다. 남색 계열을 바탕은 바다가 되었고 나비는 변화무쌍한 세월을 만났다. 바다에 살 수 없는 나비를 바다 위에 띄운 스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그리고 그 옆을 오가는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비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고 또 나이기도 하죠. 결국 무상이죠. 나비가 바다 위에 살 수는 없지만 수행자는 어디에 있든 온전히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비는 곧 수행자이고 그것은 또 나이기도 해요. 물고기 역시 지혜의 상징이자 늘 깨어 있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렇다. 스님은 경운동의 한 빌딩에 있는 세 평 남짓의 공간에서 그림에만 매진하며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수행자는 산을 택하지만 스님은 산 대신 도시의 숲 속에 몸을 의탁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곳이 수행처입니다.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산속에 살며 화방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가까운 화방에 들러 그림 재료를 사려면 여기가 좋죠. 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적응해 살면 그곳이 곧 수행처죠”

스님은 전시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스님은 나비처럼 물고기처럼 도시의 바다 위에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불자가수 신궁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청년 불자 가수 신궁이 이끄는 인디밴드 온더스팟이 ‘영자야’로 오월창작가요제 대상을 탔다. ‘영자야’는 청년실업과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유적인 가사와 경쾌한 리듬으로 심사위원과 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온더스팟 신궁의 공연 장면.

신궁은 정토회 평화재단에서 주최한 안철수 박경철의 ‘청춘콘서트1’의 오프닝 공연에서 음성공양을 펼치면서 이 시대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게됐다. 청년들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전해주고자 만든 곡이 ‘영자야’다. “중생구제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면 불자로서 당연히 사회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만든 노래입니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포수(鋪首)→용 (상)

고증 없이 받아들인 오류 ‘답습에 답습’



그림①

〈龍을 短縮法으로 표현한 놀라운 조형〉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기문 띠

그림②



그림③

용을 표현할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첫 번째는 용의 옆모습을 길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누구나 용인지 알아본다. 2. 두 번째 방법은 몸은 없이 용의 얼굴만을 정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좋은 예가 종래 귀면와(鬼面瓦)이다. 일본 학자와 이를 받아들인 한국 학자들은 귀면(鬼面)이라 불러왔으며, 중국학자는 수면(獸面)이라 불러왔다. 3. 세 번째 방법은 용을 정면으로 보아 표현하되 앞다리와 꼬리를 함께 표현하여 용의 긴 모습을 앞에서 얼굴부터 몸까지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방법을 단축법(短縮法)이라 하는데, 단축법(foreshortening)이란 단일한 사물, 인물에 적용된 원근법으로서, 단축하여 표현하므로 대상의 크기는 보는 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줄어들어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과장될 정도로 크고 나머지는 매우 작게 보인다. 단축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투시도법의 발견과 더불어 발달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과감히 시도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러한 세 가지 표현방법에서, 1은 크게 벌린 입에서 보주를 하나 내는데 보주가 비록 한 개뿐이지만 무량한 보주를 내는 것을 상징한다. 2는 역시 용 입 안에 한 개 내지 네 개의 보주를 물고 있어서 무량한 보주를 내는 것을 상징하거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기문(靈氣文)을 좌우로 뻗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개념도 없고 명칭[용어]도 없어서 필자가 개념도 정립하고 용어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3은 역시 2와 같이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에서 단축법으로 표현한 용을 볼 수가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완벽한 단축법으로 표현한 예가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의 용이다. 그러면 바로 ‘백제의 대향로의 뚜껑에 표현한 용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뚜껑의 도상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 향로가 부여에서 출토되었을 때 여러 학자들이 발표했던 논문들을 모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연구논문자료집, 백제 금동 대향로〉를 펴냈다.(2003년, 국립부여박물관) 모든 논문들에서 포수 혹은 수환(獸環)이라 부르고 있는데, 주로 포수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음을 알고는 그 연유를 알아보았다.

우선 해방 후 우리나라 제 1세대의 학자는 이 모습을 보고 포수(鋪首)라 불렀다. 포(鋪)는 고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수면(獸面) 즉 짐승머리에 문고리가 붙어 있어서 포수(鋪首)라는 이상한 용어가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코 밑에 고리를 달았다고 했으니 입에서 고리가 나온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1세대는, 그 장식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하였는데 한 대(漢代)의 문헌기록에 있는 포수(鋪首)라는 용어를 믿고 연구한 일본학자의 연구논문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백제 대향로에는 고리가 없다. 고리가 있어야 포수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짐승모양이 같아서 고리가 생략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고리의 엄청난 상징을 알면 생략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생략할 수도 없다. 논지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제 3세대는 제1세대의 논문을 그대로 따라 ‘포수라고 불리는 도철문(饕餮文)’이라고 인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역시 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백제 대향로의 그 도상은 포수로 확정되어 널리 퍼지고 있음을 알았다. 모든 용어가 이렇게 일본의 그릇된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제1세대에 이어 그대로 오늘 날까지 전수되어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 오류의 연원은 이미 중국 한(漢)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원전(原典)조차 우리나라 학자들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오류가 대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진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향로의 것은 고리가 없으므로 포수도 아니다.

단축법으로 드러낸 ‘용’ 짐승으로 오도

그러면 백제 대향로의 그 신비스러운 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 향로의 수많은 신령스러운 도상들 가운데 유독 가장 크고 강렬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귀면이나 포수라고 부르는 괴수 같은 도상은 바로 용의 온 모습을 단축법(短縮法)으로 나타낸 것이다! 눈은 전형적인 용의 눈이며 눈이 보주로 변했으므로 눈썹은 보주에서 영기가 발산하는 모양을 이루고 있다.

두 뿔이 제1영기싹을 이루고 있으며, 코는 다양한 형태의 세 개의 보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뿔 사이의 삼각형 모양은 원래 보주를 상징하는 육면체에서 비롯한 것이다. 얼굴 양쪽에는 두 앞다리가 있으며, 그 뒤로 몸이 둥글게 돌아서 맨 뒤와 동시에 머리 위 중앙에 있는 마름모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의 꼬리’이다.

고구려벽화에는 용이나 봉황, 기린 등에 꼬리가 모두 여러 가지 영기문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그 영기문에서 갖가지 영수가 탄생하는 도상이 많다. 백제 대향로의 이 용의 전체 모습을 단축법으로 표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조형이다. 그리고 과장하여 가능한 한 길고 큰 입을 향로와 뚜껑의 가운데 두 줄기 영기문 띠에 가까이 대고 있어서 마치 그 띠를 물고 있는 듯하다. 그 두 줄기 영기문 띠는 바로 이 용의 입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백제 대향로에서 용이 얼마나 훌륭한 조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 진면목을 극적으로 만난다.

원 작품은 단색이므로 무엇인지 잡히지 않았지만, 채색분석을 하여보니 용의 모습이 놀라울 뿐이다. 왜 용이 가능한 한 아래를 향하여 입이 영기문 띠에 대고 있는 까닭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 곡선만이 영기문이 아니고 직선도 영기문이다.

백제 금동 대향로에서 이 용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은데 그것을 포수나 귀면이나 도철문으로 보고 또 입에서 발산하는 역동적 영기문을 당초문(唐草文)이라 인식하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2인용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1인용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힐링’ 의 원조… 〈숫타니파타〉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
민족사 펴냄
1만5천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핀 연꽃처럼’,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 쯤은 들어도 보고 읽어도 본 문장일 것이다. 모두 〈숫타니파타〉에 들어 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책은 〈숫타니파타〉 최초의 해설서다.

〈숫타니파타〉는 불교 교단이 성립되기 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구도의 길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자상하게 답변해 준 말씀을 모아놓은 것으로, 시와 이야기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들의 모음이다.

초기경전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숫타(sutta)는 빠알리어로 경(經)이란 말이고, 니파타(nipata)는 모음(集)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놓은 것이란 뜻이다. 〈숫타니파타〉는 〈법구경〉 등과 같이 성립된 시기를 인도의 아소카 왕(마우리야 왕조 3대왕 재위 BC 268~BC 232) 이전으로 보고 있다. 〈숫타니파타〉는 무엇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초기경전인 〈아함경〉 등에도 부처의 역사적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아함경〉보다 이 경이 먼저 이루어진 경이므로 부처님의 육성이 제일 먼저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의 장’, ‘작은 장’, ‘큰 장’, ‘시(詩)의 장’, ‘피안의 장’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 〈숫타니파타〉는 법정 스님의 번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번 해설서는 법정 스님의 손상좌인 보경 스님〈사진〉의 해설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 진흙탕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 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의 말씀에 ‘옥석’이 있을 수 없겠지만 〈숫타니파타〉가 다른 경전들과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경전 속에 담긴 말씀들이 단순한 ‘가르침’이란 개념보다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이 위로가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최초의 해설서
동서 고전 총동원해 해설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한 시대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고단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시절이다. 마음이 힘든 시절이다. 부처님 시절부터 인류는 늘 마음이 힘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위대했던 것도 그 힘든 마음을 제도(치유)했기 때문이다. 다시 인류는 힘들고 ‘치유’는 너나없이 필요한 시절이다. ‘힐링’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력을 발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급부상하여 산업화되고, 힐링을 소재로 한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최초의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야말로 이 불안하고 힘든 시절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아득한 시절부터 변함없이 인류의 위로가 되어준 부처님의 자상한 말씀을 보경 스님이 시절에 맞게 해설해 주고 있다. 특히 불교 교리적 해석에서 더 나아가 동서고금의 감동적이고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논어〉, 〈주역〉, 〈대학〉, 〈노자 도덕경〉, 〈장자〉 등 동양고전과 〈선문염송〉, 〈육조단경〉, 〈방거사어록〉, 〈임제록〉 등의 선서와 〈증여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희랍인 조르마〉, 〈리그베다〉 등 수많은 책을 인용하여 〈숫타니파타〉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다양한 책을 섭렵, 깊은 사유를 통한 명쾌한 해설은 이 책의 제목처럼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 준다.

이 책을 마음으로 암송하듯 읽다보면, 〈숫타니파타〉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숫타니파타〉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물론이고 당시 인도의 사회상, 생활상, 수행상, 타종교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당시 인도 사회의 생활상과 수행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부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로가 담겨 있는 〈숫타니파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생들에게 구체적으로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 같은 경전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보경 스님은…
1983년 송광사에서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선방에서 10년을 보냈다. 송광사와 종단의 소임을 두루 거쳤고, 현재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주지, 보조사상연구원 상무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중이다. 저서로 〈사는 즐거움〉, 〈이야기 숲을 거닐다〉, 〈행복한 기원〉,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등이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5 ~ 5/2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용화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8	길 없는 곳에서	덕일	작은숲
9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민족사
10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	설우	사유수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魚丈 일응 스님의 삶과 범성음의 세계… 10명의 증언 정리

〈어장〉

영산에 꽃피다 –어장 일응, 그 삶의 여정

일응어산작법보존회,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엮음
정우서적 펴냄 | 3만원



진감국사의 범패를 계승하고 조계종 범패의 한 축으로 남은 어장 일응 스님(사진 · 영산재 제50호 작법무 지정보유자)의 삶을 아들이자 제자인 인묵 스님(조계종 의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소개한 책이다.

“어렸을 적 절집 툇마루에 앉아 범패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전율과 환희가 온몸을 휘감곤 했다. 범패소리가 봄날 햇살에 섞여 은빛으로 부숴지고 있을 때도 나는 하염없이 그 소리에 취해 있었고, 늦은 가을 황혼녘 낙엽 수북이 쌓인 뒷마당에 서서도 가슴을 적시며 오래도록 그 소리를 음미하고 있었다. 어이아에 히에 야에 히에 야으아 어 으어 어어 으어…. 영혼을 울리는 저 깊고도 그윽하며 맑고도 평화로운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인묵 스님은 어린 시절을 그렇게 회상했다. 그 어린 시절 범패라는 것이 ‘부처님이 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 장엄하고도 환희롭게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을 리 만무했으나 그는 그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환희로움이 일었다고 했다.



일응 스님은 1920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대원사 만허 스님 문하로 출가하여 이만허, 성영봉, 김영담, 강보담 스님들로부터 호남 범패와 작법을 두루 익혔으며, 전주 위봉사에서 유춘담 스님께 건당했다. 이후 서울 봉원사와 개운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범패와 교류했으며, 1987년에는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작법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진감국사의 맥을 이어온 호남 범패를 전수한 스님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전주 익산 광주 등지에서 후학들에게 범패와 작법춤을 전수했으며, 1988년에는 봉서사 어산 작법을 지도하여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스님의 범패와 작법무는 전주, 익산, 광주 서울 경기의 경산일대에서 후학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일응 스님은 2003년 5월 세수 84, 법랍 70세로 말년에 주석하던 경기도 용인시 전통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열반 10주기를 맞아 일응어산작법보존회(이사장 인묵)와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에서 스님의 삶을 정리했다.

책은 변모해 가는 영산작법의 모습, 설행의 역사, 호남 범패의 특징 등을 조명했으며, 꾸밈없는 증언을 통해 재승에 대한 정화의 당위라든가 전통의식의 단절 등 한국불교사를 재조명했다.

어산어장은 선원의 조실, 강원의 강주, 율원의 율주와 자리를 같이 하는 불교의식의 최고 ‘어른’이다. 어장 일응 스님의 소리와 작법무는 현재 조계종의 소리와 작법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스님의 소리와 작법무는 전통의 호남 범패와 작법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호남작법은 한국 범패의 시조 진감선사에 맞닿아 있다. 진감선사는 고향 금마를 오가면서 봉서사에서 후학들에게 소리를 전했고, 그 소리가 현재 봉서사 영산작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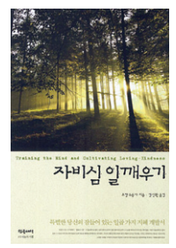
책은 총 3부로 엮어져 있다. 1부에서는 스님의 삶을 소개했고, 2부에서는 스님의 범패와 작법의 미학을 조명했다. 3부에는 스님에 관한 논문들이 실려있다.

박재완 기자

자비심 일깨우는 59가지 주제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지음 | 김성환 옮김 | 참글세상 펴냄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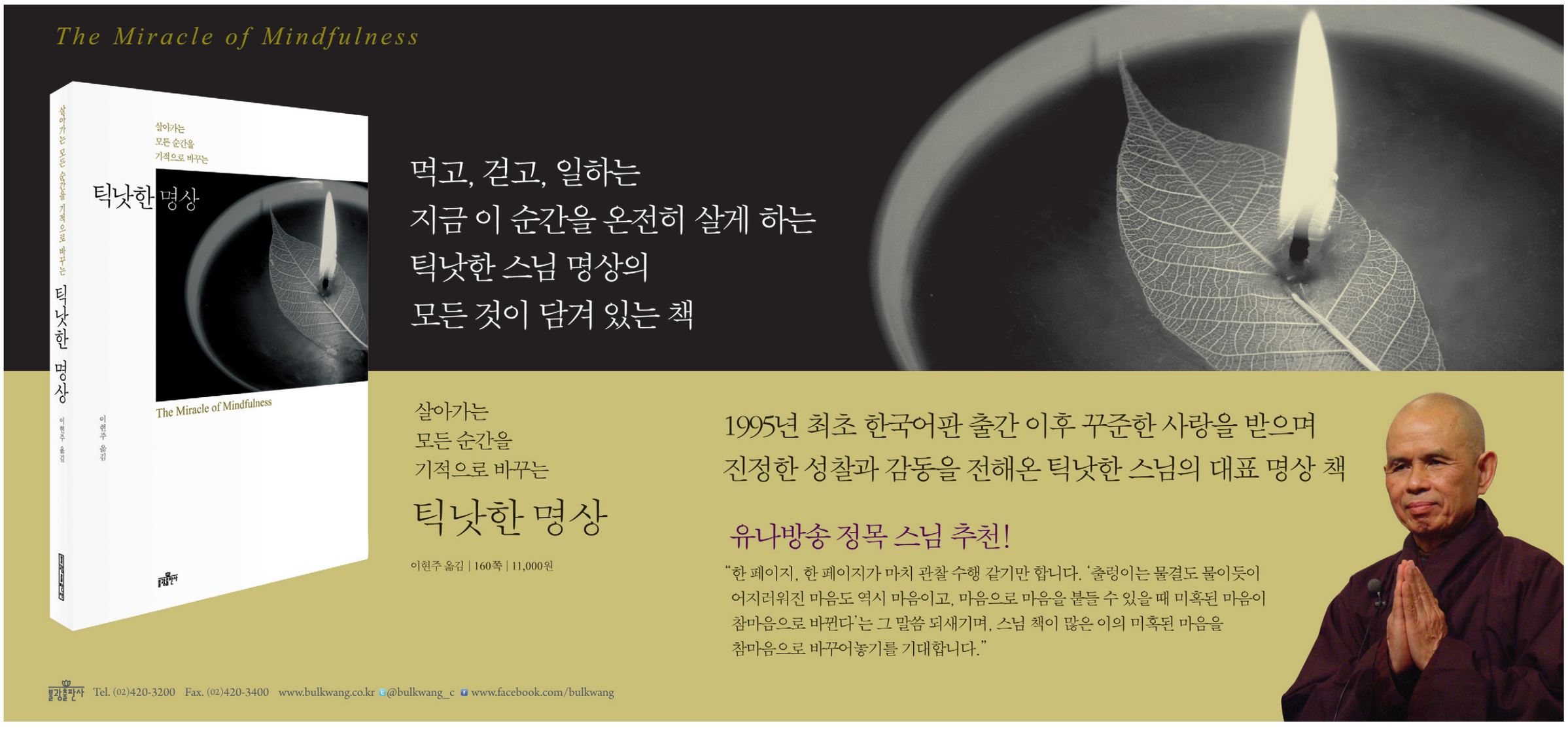
마음 훈련법을 담은 책이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자비심을 일깨워주고, 수행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우는 것을 일곱 가지의 지혜로 차근차근 쉽게 알려주는 지혜 계발서이다. 일곱 가지 지혜, 59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교리와 그것의 실천적 적용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체카와 예셰 도르제의 〈일곱 가지 마음 훈련에 관한 근본 경전〉에 초걈 트룽파 린포체의 강연 내용을 주석으로 첨부한 책이다.

일곱 가지 마음 훈련은 서기 982년 벵갈에서 왕족으로 태어나 인도의 위대한 불교 학자가 된 아티샤 디판카라 슈리즈나나가 처음 가르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티샤는 십대 때 궁중 생활을 뒤로 하고 출가한 이후로 그의 큰 스승인 다르마키르티 문하에서 광범위하게 공부하며 수행했고, 보리심과 마음 훈련에 대한 가르침도 그에게서 배웠다. 인도로 돌아온 아티샤는 한때 잊혔던 가르침들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여 불교의 유명한 수도원 대학인 비크라마실라에서 잠시 가르쳤다. 티베트의 초대를 받아 1054년 경 열반에 들 때까지 티베트에서 약13년 간 가르침을 폈다. 아티샤의 가르침은 게셰 체카와 예셰 도르제(1101~1123)가 〈일곱 가지 마음 훈련에 관한 근본 경전〉에 요약해 실은 이후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59개의 주제들을 대상으로 한 탐구와 수행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상쇄시키고 온화함과 자비심을 기르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글귀들은 규칙적으로 명상을 수행하고 일상의 모든 사건을 깨어남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59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마음 훈련에는 명상과 명상 후 수행이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티베트에서는 명상 수행을 통렌, 즉 보내고 받아들이기라고 부르는데, 이 수행은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를 교대로 수행해야 한다. 책은 이 둘이 명상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형상 없는 명상, 알아차림과 자각을 계발하는 수행이 모든 수행의 기반이라고 말한다.

명상 이후의 수행은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적절한 주제를 즉흥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주제와 일치시키기 위해 인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적 경구를 탐구함으로써 각 구절이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켜지도록 한다. 이 일곱 가지 마음 훈련법을 공부하고 주제들을 암기해 둔다면 각 구절들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도 저절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경구들은 잘 잊히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각 구절이 다시 떠오를 때 마다 친절함과 자비의 본성에 대해 점점 더 섬세하기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박재완 기자



꽃밭 스치는 바람같은 21명 스님의 법향



바람이 꽃밭을 지나오면
글 사진 문윤정
우리출판사 펴냄
1만3천원

몇 달 전 〈걷는 자의 꿈, 실크로드〉를 펴냈던 문윤정 작가가 이번에는 선지식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전해들은 감로법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가져왔다.

이 책에 소개된 스물 한 분의 스님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서 수행력을 쌓아 온 스님들이다. 저자는 이 중 가장 인상적인 선지식으로 지리산 연암토굴서 수행하는 도현 스님을 꼽았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주석처에 들어선 저자는 '작은 것들이 내뿜는 아름다움' 에 우선 압도당했다. 3.5평의 작은 집과 작은 연못, 손바닥만한 수각, 그리고 검은 고무신 한 켤레가 놓인 작은 섬들이 그것들이다. 누워서 만세 부르기도 어려운 가로 다섯 자, 세로 여섯 자짜리 작은 불단이 있는 방에서 도현 스님은 16년째 홀로 수행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과 남방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모두 섭렵한 수행자이다.

도현 스님은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나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떠오르는 상념들은 되돌려 보낼 수도, 붙잡아 둘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상념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막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켜 볼 뿐,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대해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라고 값을 매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이 사띠이고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라며 일상의 삶을 관조하고 알아차릴 것"을 강조했다.

연암토론서 수행하는 도현 스님 인상적
명성 스님…"기도는 복짓는 삶 사는 것"
철우 스님, "행복도 소유지족 누리는 것"

또한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만난 저자는 미국서 유학 한 자신의 딸을 출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은 존경심과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스님 말씀 중 "기도란 복 짓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에 공감했다고 한다. 108배나 염불만 기도인줄 알았는데 명성 스님의 이 말을 듣고 언행, 보시 등 일상생활서 하는 바른 행동도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참선수행만이 불교수행의 모든 것처럼 요구되는 요즘 불교계 풍토와 달리, 이 책에 모신 스님들의 수행 방식은 다양하다. 참선, 절, 사경, 간경 수행 등 저자가 만난 스님들의 정진법은 다종다기하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권하는 수행법 또한 자신들이 이제까지 수행해 온 경험에 따라 제각기 다르기는 하나 가장 쉽고 바른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목표는 모두가 같으며, 또 스님들의 수행과 깨달음이 곧 중생의 깨달음으로 회향되고 있음을 저자는 놓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선승인 학림사 대원 스님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도우는 것이 선이라고 했어요. 여러 모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선이지요. 일체중생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가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데 그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선교(禪敎)를 겸수한 함월사 우룡 스님은, "참회가 바로 불공인데 먼저 가족에게 참회하고 또 자신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침저녁으로 가족에게 삼배"를 하라며, "가족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한 절에 오는 것이 죽는 것이요, 집에서 가족에게 예불 올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고 설했다.

사경 수행자 서암정사 원응 스님의 사경 공덕도 가슴에 와 닿는다. "사경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기도와 함께 다른 이들의 행복과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를 발원하는 것이 더 귀하지요. 글 한 자에 절 한 번, 혹은 글 한 줄에 절 한 번을 할 만큼 경건한 마음자세로 사경 하다보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라고 피력했다.

율사인 파계사 철우 스님의 행복론을 들으면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해준다. "행복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쓸데없이 큰 욕망 부리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소욕지족(所欲知足)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방이 수십 개라도 내가 누워 잘 곳은 한 칸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 묻힐 곳은 반 평이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과연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행복이 찾아옴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현재 투병생활 중인 보림사 지묵 스님에 대한 안타까움도 개인적으로 밝혔다. 문윤정 작가는 "이 책에 나온 것은 스님이 병이 나시기 2년전에 만나 뵙고 쓴 인터뷰인데, 스님은 자기를 찾아 숨어지내는 시간을 자주 가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법정 스님과의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해 주셔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고 회고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계율' 은 좋은습관 길들이기와 선행 실천하는 것

계율, 꽃과 가시
원영 스님 | 담앤북스 펴냄 | 1만3800원



이 책은 2600년 전 인도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할 때의 생활모습과, '율(律)' 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게 제정된 율이 각각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활용해 현재 한국불교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율장을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승가라고 하는 출가수행공동체의 생활상' 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율장이라고 하는 불교의 역사적 기록물을 읽으면서 '승가' 라고 하는 조직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존속시켜 나갈 것인지 가늠해 가며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모두 3장으로 나누어졌는데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 현대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수행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담을 말머리로 열면서 2600년 전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핀다.

'버리다' 편에서는 불교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출가, 안거와 수행, 해제, 소임, 법랍과 토론, 여성 출가자, 장애인 출가, 파승 등과 관련하여 당시 승가공동체의 상황과 생활과 규범들을 알 수 있다.

'출가' 와 관련해서 저자는, 부처님은 진리를 추구하여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일깨움으로써 그들을 출가의 길로 이끄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 유일신이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고 그렇다고 절대자의 존재를 믿을 정도로 순박하지도 않은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출가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합리적인 안목을 제시해 준다고 말한다. '얻다' 편에서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사찰, 도량 불사, 음성공양과 산사음악회, 객승과 객실문화, 삼배와 인사문화, 걸망과 자동차, 스님과 산행, 정법(淨法), 정인(淨人)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율장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자신이 머물 공간에 집착을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의복에 욕심을 내는 비구가 있어, 개인 수행처의 크기를 제한했으며 옷도 세 벌만을 갖추라고 하였다 한다. 옷을 세 벌만 갖추라는 삼의(三衣)의 규정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재미나다.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딱딱한 계율 가운데 일종의 편법으로 활용되어 숨통을 틔어 준 '정법(淨法)' 제도가 존재했음을 읽으면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든 '구멍' 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버리다' 편에서는 마나타와 왕따, 술과 중독, 육식과 살생, 나무 심기, 보시에 대한 생각, 불교와 정치인, 화상, 자자(自恣)와 쓴소리 등 불교가 이 시대에 어떻게 가치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왕따에 관해서는 '우선은 즐겁고 유쾌한 말 한마디를!', 음식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세상은 적당량을 덜어 남김없이 먹는 음식문화가 대세' 임을 강조하고, 나무 심기와

부처와 제자들 수행 모습 소개
승가와 조직 변천사도 조명

관련해서는 '미래의 봄은 더 이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봄이 아니' 라고, 쓴소리와 관련해서는 '현명한 사람은 바른말 쓴소리의 가치를 알기 마련' 이라고 일갈한다.

부처님은 "길은 이미 일러 주었으니 그것에 의지해 스스로 나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불교를 스스로 수행하는 종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 개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강조되며 계율의 실천 또한 권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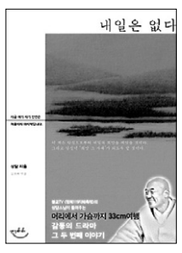
저자는 '계' 는 좋은 습관 길들이기, 선한 행위 행하기를 말하며 결과보다는 자발적 의도나 동기를 중시한다고 말한다. 나 자신의 불안정한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나쁜 습성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애써야 한다. 꼭 이것만은 실천하리라 노력하는 행위를 통해 내 삶은 바뀌기 마련이다. 2600년 전의 율장을 지금에 와서 꺼내어 읽는 이유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원형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수아사리(계율과 불교윤리 분야)이신 스님은 2000년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선원안거 후 일본으로 유학해 하나노조대학(花園大學) 대학원에서 2005년 〈범망경의 자서수계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2008년 〈대승계와 남산율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일을 걱정말고 오늘에 충실하자"

내일은 없다
성담 스님 지음 | 셀프컬쳐리서치 펴냄 | 1만4천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살아 있는 것들이 가진 당연한 마음이라이 '당연한 사실' 에 대해 눈 감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당신 앞에 이빨을 드러낸 사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 덕분에 그것이 없는 것과 같은 수초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아도 사자는 자기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평안함은 진짜일까요? 차라리 눈을 뜨고 그 사자를 길들이든가 도망이라도 치면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 의 '내일' 을 걱정한다. 그래서 나를 잘살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메고, 내일을 생각하느라 불안과 걱정에 시달린다. 그런 이유로 '나' 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아이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고 공부를 안해서 형편없이 사는 미래를 경험한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 인상을 잔뜩 쓰고 걸어가 아이의 손목을 틀어쥐고는 공부안하고 뭐를 하냐고 소리를 지른다. 이것은 그저 일례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나의 내일' 을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나' 가 무엇이고 '내일' 이 무엇인지 고찰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여기' 를 발견하면 당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희망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또, 과거의 기쁨이나 슬픔도 사라질 것이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기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흔히 나의 세상과 다른 이의 세상이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그 누구도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의 세상에 관해 말한다. 그리고 유일한 통로, '깨달음' 을 통해 그것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내일이라는 환상을 깨고 당신으로부터 내일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실재를 보게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명상, 과학과 종교 만나게 하는 기술

명상의 기술
장길섭 지음 | 나마스테 펴냄 | 1만2천원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명상도 처음엔 호기심에 설레고 수련이 잘되니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있다.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아지면서 호기심이 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 게으름과 교만 때문이다. 어느 순간 졸음이 오고 '이렇게 앉아 있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회의도 일어난다.

명상 수련, 수련은 연습이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명상은 명상 그 자체가 목적이다. 환상을 보았다거나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목적일 수 없다.

명상과 생활은 하나다. 일상과 명상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하나는 과학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종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두 마음의 근본 성질은 같다. 바로 탐구하는 마음이다. 탐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삶이 정체되고 결국 퇴행에 이른다. 탐구하는 마음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 과학은 밖으로의 탐구이고 종교는 안으로의 탐구이다. 그리고 과학과 종교를 만나게 하는 기술이 명상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든다. 하지만 고통은 명상의 좋은 대상이다. 온몸이 아플 때에는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그 아픈 것이 몸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어깨가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무릎에 연골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아왔는데 아프니까 그때서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들이 오히려 명상 세계, 즉 알아차리는 데서 오는 평화와 고요, 지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된다.

이와 함께 죽음 명상도 삶을 더욱 깨어나게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일, 사랑, 물건, 꿈, 업적 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계를 묵상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사)동국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허가
2013-4호 사단 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후원)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동조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 스 051) 256-8005
직 통 010-3262-1005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스트레칭필, 칼라챠크라, 용천보탑, 배요온대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기문둔갑 강좌 안내
www.gimun.net

강의과정
• 기초반 : 기문조식법 및 원리론
• 중급반 : 홍국수 통기론 및 종합해단론
• 고급반 : 단시 및 병방론
• 특강반 : 기문작명. 기문택일. 기문양택

강의시간(단체반)
• 본원 오전반 - 10:00(월~토) : 주1회 100분
• 본원 저녁반 - 19:00(월·화·수·금·토) : 주1회 100분

수 강 료(단체반)
• 주1회 월 20만원 (특강 월30만원)


◎ 담당교수 : 손혜림 (경력사항)
· 경희대학교 13년째 기문학 담당교수
· 34대 기문전맥의 태청궁청구태학당 대표
· 대한기문학회 대표
· 손혜림 기문명리원 대표
(기문해설프로그램 및 기문작명프로그램 개발)

교육장소
• 손혜림 기문명리원. 대한기문학회 본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쇼핑 4층 11호
지하철 3,7,9호선 서울고속터미널역 8-1번출구

기문둔갑은 전맥을 바탕으로 공부해야만 정확한 해단을 할 수 있습니다!
02)3476-3433 / 010-2376-3433

공 고
사)대한불교⊙조계종(원조계종)
재 창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재 창종일 : 2012년 9월 20일 〉

기존 종도 분들은 입종과 사찰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1장, 입종서류작성

※ 미 등록시 2013년 6월 30일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함, 간판사용 및 종단이름 사용금지등.

※ 전 총무원장 만호스님이 12년 6월 종도분들께 통보도 없이 종단을 해체하고 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하므로 인해서 심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재 창종을 하였습니다.

사)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호법원
연락처 053)965-8215, 010-9020-8215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⑩ 선학원의 침체와 중흥

일제의 방해… 법인화 10년 '가시밭길'



1930년대 금강산 마하연 선원〈사진 위〉과 직지사 천불선원 극락전〈사진 아래〉의 모습. 모두 당시 선학원 회원 사찰로 민족불교 중흥에 힘썼지만, 곧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공제회 운영 3년만에 난관
타개책으로 '사단법인' 추진
총독부 번번이 서류 반송해
사단법인 인가에 10년 걸려

직지사, 범어사 등 전전해
적음 스님 인수… 중흥 기틀
1931년 수좌대회 계기 마련



선우공제회는 1924년 4월 20일 이후로 사무소를 한동안 직지사로 옮겼다. 선승들의 수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의 부족과 당시 불교계의 분위기가 요인이었다.

당초 공제회의 유지는 의연금과 희사금, 그리고 사중(寺中)의 토지가 아닌 개인이 마련한 법답(法畓)의 증여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보다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선원(禪院)의 토지를 선원으로 이전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그 토지의 전체 수입을 해당 선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재정을 기초로 조선총독부에 사단법인 허가원을 제출하여 보다 안정적인 유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우공제회의 운영은 3년 후부터 대내외적인 문제에 봉착하였다. 1924년 이설운(李雪耘, 불영사), 김영해(金映海, 해인사), 이성혜(李性惠, 표훈사), 이성윤(李性潤, 표훈사), 김도권(金道權, 표훈사), 송만공(宋滿空, 정혜사) 스님이 법답을 헌납하고, 설립조사 남전(南泉)스님이 사유재산 1만원을 기부했지만, 선풍진작과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2회 정기총회에서는 유지원칙이 선우(禪友)들의 지원금을 통한 유지에서 선원의 토지수입과 각종 희사금으로 변경되었다. 우선 선승들의 생활자체가 어려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민족불교를 표방한 선학원의 설립취지 자체가 당시 총독부의 불교정책이나 불교계의 정서와는 그 이념과 활동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어서 선우공제회의 운영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24년 11월 15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 회의록에는 1923년 2월 1일부터 1924년 3월 14일까지의 결산기록이 나타나 있다. 수입이 563원 38전, 지출이 300원 3전이었다. 의연금과 희사금뿐만 아니라 선원의 토지수입으로는 선승(禪僧)들의 수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조선총독부는 선학원과 선우공제회의 운영 유지를 통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단절시켰다. 선우공제회가 선원에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반환받아 사단법인으로 개편하고자 정관을 작성해 1923년 9월 6일 인가를 신청했지만, 총독부는 동년 12월 26일 그에 해당하는 정관의 조문을 삭제하도록 문건을 돌려보내버린 것이다. 정관의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신청했지만, 정작 재단법인 인가를 받아낸 것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1934년의 일이다.

한편 당시 조선총독부의 추산(推算)에 의하면 당시 승니(僧尼)는 대체로 7,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선승(禪僧)은 겨우 10분의 1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찰이나 그 소유 토지는 주지의 전단(專斷)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선원에 전습(傳襲)되어 온 토지를 반환받지도 못했고, 또 해주지도 않았다. 일제강점기나 해방이후 정화운동의 과정에서 독신비구승의 수행도량을 할애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선종은 조선시대의 불교사에서 그 우위를 차지하여 사찰은 대부분이 선원위주로 경영되었지만, 사찰령(寺刹令) 이후 선원은 사찰의 종속물이 되고 대처식육(帶妻食肉)하는 주지의 입장에서 보면 선승은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였다. 사실 당시 불교계의 경향만 보더라도 선 수행보다는 교학과 경전을 탐구하는 교종을 지망하는 스님들이 늘었다고 한다. 당시를 살았던 스님의 증언기록에 의하면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취처(娶妻)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교종을 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막행막식의 부조리가 한국불교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선승은 어느 선원을 막론하고 수행하기를 청하는 방부(房付)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었다. 참선공부를 지도하는 조실(祖室)의 명성이 높으면 그 선원은 많은 운수납자(雲水衲子)들이 모여들었고, 신도와 주지는 기꺼이 이들의 수행을 뒷바라지하곤 했다. 그러나 사찰령 시행이후 일부 주지는 그 권한으로 선원에 방부를 들이는 스님들의 수를 제한시켰다. 주지는 선승들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늘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했고, 더욱이 주지에게 동조적인 스님만을 골라 수용을 허락하는 폐습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1,360개 사찰 가운데 선우공제회에 가입한 선원은 직지사 · 백양사 · 범어사 · 건봉사 · 월정사 · 통도사 · 석왕사 · 해인사 · 선암사 등 9개 본산의 선원과 망월사 · 정혜사 · 불영사 · 마하연 · 장안사 · 개심사 · 신계사 · 남장사 · 천은사 · 용화사 등 10개 말사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선종의 명맥과 그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우공제회는 경성 사무소 유지비, 기타 경비를 염출할 길이 없어서 회원 20명이 논의한 끝에 잠시 직지사로 이전하였다. 정광호의 언급에 의하면 "당시의 광경을 직접 본 인사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이때 선학원에는 숟가락 하나, 불기(佛器) 하나 쓸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선학원은 1926년 5월 1일부터 범어사 포교소로 전환되었다. 1926년 12월 〈불교〉지에 수록된 '관보초록(官報抄錄)'은 "범어사 경성포교소가 경성부 안국동 40번지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근현대 불교사의 산증인이셨던 석주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선학원이 남전스님을 비롯한 세분스님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포교당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없다고 해서 일단 범어사 포교당으로 전환했다고 한다.(〈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석주스님' 편, 25쪽)

선학원이 침체를 벗어나 중흥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31년 1월 21일 김적음(金寂音, 1900~1961)스님이 인수하면서부터다.

경성 선학원은 선학(禪學)을 선양하기 위해 창설된바 다소의 장애와 구속으로 10여 년간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일반 승려 · 신도와 여러 대덕(大德)은 실로 많은 유감으로 여겼었다. 그러자 작년(1930) 겨울에 김상호(金尙昊)씨 주선으로 전금명(全錦明) 원주(院主)로부터 김적음 화상이 인계하였으니 때는 1월 21일이었다.

1931년 10월에 간행한 〈선원(禪苑)〉지 창간호에 수록된 내용이다. 적음스님은 엄정한 계행과 철저한 화두 참구로 '수행제일'이란 평을 들었던 제산 정원(霽山淨圓, 1862~1930)스님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만공스님께 건당(建幢)했다. 스님은 뛰어난 침술(鍼術)로 명의(名醫)라는 명성도 얻었다. 때문에 스님이 주석했던 선학원에는 아픈 몸을 치료해달라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930년 만공스님은 수행과 행정력, 재정력을 갖춘 적음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초부(草夫)라는 법호를 내렸다. "풀(한약)을 가지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이"라는 뜻이다.

중흥을 계기로 선학원에는 40여 명의 수좌가 여일하게 수행하기 시작했고, 신도들 역시 구름 모이듯 하여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우선 이탄옹(李탄翁)스님이 입승(立繩)소임을 맡아 납자뿐만 아니라 신도 20여 명이 참선을 시작했고, 선의 대중화를 위해 남녀선우회(男女禪友會)가 조직되었으며, 그 선양 차원에서 기관지 〈선원(禪苑)〉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1931년 3월 23일에는 전선수좌대회(全鮮首座大會)를 개최하였다. 이 수좌대회는 선학원의 설립취지를 재천명하고, 선의 중심기관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선학원은 오랜 침체기를 딛고 다시 일어나 조직을 대내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안으로는 승속이 참여한 수행을 지속해나갔고, 밖으로는 수좌대회를 통해 당시 불교계의 왜곡된 행태와는 다른 수좌들의 결집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려하게 꾸민 왕들의 수레도 낡아가듯이
아름답게 치장한 몸도 또한 그렇게 늙어간다.
오직 성인이 드러낸 진리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가르침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고통 받는 이들에게

(金) 작은 희망 드리고져 (金)
삶에 장애가 많으신 분
병고로 고통 받으시는 분
(전통 선가 비법 치유)
희망전화 043-652-3020
무료전화 070-4403-3021
白雲山下 藥泉寺 住持 : 法山 合掌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 적 의 비 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선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 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개인지도
○ 교육 후 바로 상담 책임지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010-2586-7938

양 도 공 고

(등록된 불교단체 불교종단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011-825-31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관리처사 구합니다

010-2638-3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작은암자 매입이나 임대 구합니다

010-5257-9339

조그마한 절 입니다 절 운영 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강동)
011-534-3345

향기도의 묘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기도법을 원하는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세)
011-9514-3721

신심있는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011-875-6317

무상 보시 합니다

3존불 (지장,아미,관음),
후불탱화 4점,
당종 및 집기류
(천안에서)
010-4508-5087
동천스님

달마일장금(경) 강의, 초보에서 고수로(24시간강의)

3박4일(스님만/ 공양. 숙식제공)
● 강사: 유천 철학원 원장 011-838-1134
● 장소: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339번지 (여여암) (055)744-5300
● 내용: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첫날 수강후 회비 입금가능
1일 8시간 강의 (24시간기준)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수정사 노인 요양원

• 최적의 자연환경 (수정산 산책로)
• 최신시설, 아늑하고 쾌적한 시설
• 등급 내, 외 어르신 모두 환영
• 최고시설, 최저의 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문의 031-333-5014. 010-7105-5013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 암 역 리 원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02)597-1101 / 011-9150-2284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6월 6일 현충일 참배 안내

6월 6일 현충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참배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해
영가천도, 지장경을 유족들에게
보시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꿈바위에서는 30년 이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꿈바위불교 교 육 원
대전,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숲 속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다. 숲 속에 나뒹구는 나무조각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듯.
- 장로게경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120평(목조)
- 부지 : 92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 5천(조정가)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산신각, 약사전
- 요사 50평
- 임대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400 공양간 說法殿有
- 가액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전원주택 또는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대지 : 2,670평
- 진입로 6M이상 확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득
- 경치 수려하고 부지내 연못 있음
- 경부고속도로 수원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청명 IC인접
- 서울, 분당, 동탄 접근성 (10~20분)용이
- 동탄2기신도시, 보라택지지구 중간 지역
- 가액 협의 (방문 상담 후 결정 희망)

010-5624-0878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소재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3층:석가래,단청,산신각)
- 요사 : 40평(2층)
- 종무실, 주지실 : 40평(1층)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 관광명소인 바닷가에 위치한 지도, 정진 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80평 (2층) • 기타 : 산신각, 석불, 석등 연못 등
- 가액 : 4억 4천만원
- 특징 : 불사금 20억원이 투입된 기암괴석과 산세가 어울러진 기도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양산. 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1천8백만원 (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9945-203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읍 근교
- 비구니스님에게 좋은 아늑한 사찰
- 법당목조 60㎡, 요사채 124㎡ 대+전 2,500㎡과 방사와 차고등 있음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 가액: 3억원 토지값정도로 정함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 무량수전,종무소,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상 담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 약 400M 주택 밀집가. 약10평
- 1층 : 휴학 및 상담 사무실1
- 방1, 주방1, 수리 깨끗
- 스님 급환으로 인해 급 양도
- 보증금 400만원 / 월 25만원, 또는 300/30
- 시설비 절충가, 간판 새로 시설

010-6223-8297
010-2499-00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군포시 군포역 앞
- 평수 75평
- 상가건물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최고시설, 즉시법회가능

010-8945-94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 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 현곡면 (시내에서 15~20분거리)
- 대지 170평
- 법당, 요사채, 심야전기, 차실 등
- 모든 시설 완비
- 특히 비구니스님 살기 적합
- 가액 : 전화상담

010-4547-910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공주 시내 바로 옆
- 평수 72평
- 법당 따로 (약 9평)
- 방3, 거실, 화장실 2개
- 텃밭도 따로 있음
- 가액: 9천만원(가격 조절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41)841-57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암 자 안 내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 법당 25평, 방 小 8, 中1, 大1
- 산신각, 연못, 분수대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429-507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사찰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건평 70평 (인법당)
- 뒤에 산, 교통편리
- 전철 온천 인접
- 텃밭, 주차완비
- 가액: 5억(조정가능) 전세2억

010-6559-0913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전세 5천만원
- 양도 : 2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동구 동호동 30평
- 법당, 거실 방3, 주방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 보증금 2백만원 월 13만원
- 시설비 1560백
- 보살님 법사님 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7-297-4097
010-6297-4097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9억
(서울 - 안양 - 의왕)

010-5466-332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보시고 답사후 결정 시설완벽

010-4747-8796

사 찰 안 내

-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절골)
- 부지: 1,740㎡(527평)
- 법당: 109㎡(33평)철근콘크리트조 단청
-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132㎡(40평) 방3, 거실1, 다용도실 2 ,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 답사후 조절가능

010-2544-4848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 - 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문산 IC 근교
- 부지 4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60평
- 사찰앞으로 강물이 흐르고 뒤는 야산으로 경관이 아주 좋음 (마을 안에 있음)
- 가액: 은행융자 6천만원 안고
- 가액: 1억 9천만원

010-4068-1533

사찰부지안내

- 위치:경북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491,492 응봉산
- 총 1,098평
- 봉화역에서 15분소요
- 가액: 평당 12만원 (절충가능)

010-9663-5578(박소연)

포교원(급)안내

- 대구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3분거리, 동대구역 10분 거리
- 3층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최상급 ,삼존불
- 후불탱화, 신중탱화, 용왕탱화, 산신탱화, 지장불 외 소불다수
- 방 2칸, 상담실, 살림가능
- 보증금 3백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1천 8백만원 (조절가)
- 몸만 오시면 법회 바로가능

010-2296-01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지례면
- 마을안
- 법당 11평, 요사채 24평
- 땅 130평
- 가액: 5천만원

010-2101-2522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 IC에서 3분거리
- 면적 520평
- 차량산 최고 상단 위치
- 도량이 깊고 1년 내내 마르지않는 물줄기
- 가액 : 5천만원
- 농사꾼이 직접 양도합니다

011-343-6711

포교원안내

- 위치: 창원시 어창구 도계동 407-13
- 3층의 2층. 완전수리
- 평수 45평, 방2개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8백만원(절충가능)

055)238-9150
010-7156-05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14억

- 위치 : 서울
- 부지 : 120평
- 법당 : 45평
- 요사 : 60평
- 양도 : 18억 5천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선 ~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 (금 , 토, 일 중 방문예약 요)

016 - 573 - 2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급! 거제도 바닷가

연수원 교육 노인복지시설 펜션 적지
섬들이 보이는 전망좋은 옛절터
- 가액: 평30만원(주변시세 40~60만원이상)
- 건물4동 총3,750평(대지 전 임야 포함)
- 임야의 약50%개간완료(바다방향 낮은위치)
- 사정상 급 안내(2013. 6월까지 이 가격)
- 찾기 힘든 명당터 염가구입 절호의 기회
- 관심분에게 전경사진 이-메일 송부예정

010-9478-1322 (소유주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7천만원

010-8933-99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사과밭 2700여평, 나무 7년생
- 법당 19평, 기타 9평, 대지 180평
- 건물 3동, 철구조물 판넬, 창고, 외부화장실
- 가액 : 평당 13만원
- 금액이 맞는분만 전화요망

010-4726-6496

포교원안내

- 부산 영도 남항시장 옆 대로변
- 총 38평 법당 사무실 주방및 거실, 욕실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소불 108불, 에어컨 2대, 인테리어 새로 단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천만원(법사,보살님도 가능)

010-4880-1533

신 축 주 택 지

- 위치 :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 산 14,000평 관리 농림
- 수도, 전기, 포장도접 12평 기초공사
- 허가득, 바로 건축 가능
- 조용한곳 , 혐오시설없음
- 급양도가 6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청주시내
- 최고시설, 심야전기
- 법당 50평 삼존불, 나한전, 탱화
- 주방, 큰방3개, 사무실, 샤워실
- 요사채 따로 25평, 큰방 2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전세 5000만원, 시설비 상담
- 집기류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대리
- 전 3076평 계곡 귀농 전망 A
- 마대산 1052, 배틀제 680높이 아래 정감록의 기술된 십승지
- 전쟁, 흉년, 천재, 이상형의 의풍리 넘어가는 길지의 명당 자리
- 급양도가 : 1억 2000만원

010-3288-13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교원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40-574번지
- 성심약국4층 반송큰시장 옆 포교원
- 40평 시설최고 방1칸,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삼존불, 신중, 칠성 약사 후불탱화
- 산신, 용신, 장군, 원불, 법당 옆 정원 10평
- 욕실 2개, 비품일체 몸만 오시면 법회함
- 지하철 3분거리 버스 3분거리

051)527-5688
011-9501-518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공주 시내 바로 옆
- 평수 72평
- 법당 따로 (약 9평)
- 방3, 거실, 화장실 2개
- 텃밭도 따로 있음
- 가액: 9천만원(가격 조절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41)841-5772

전원주택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처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스님 직접

010-8828-1188

사 찰 터 안 내

- 허가나 있음
- 평수 임야 약 3천 2백평
- 가액: 평당 5만원
- 위치: 전남 해남군 계곡면 소재에 뒤에는 암벽 병풍산이 둘러 있고 앞에는 큰호수가 있으며 조용한 수행처로 최고의 명당터입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668-7380

절 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 전 3076평 계곡 귀농 전망 A
- 마대산 1052, 배틀제 680높이 아래 정감록의 기술된 십승지
- 전쟁, 흉년, 천재, 이상형의 의풍리 넘어가는 길지의 명당 자리
- 급양도가 : 1억 2000만원

010-3288-1317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3〉 생각 이전의 앎과 만남 – 온전한 자각

존 카밧진 (의학부 교수 · 미국)

'따뜻함' 은 본성의 일부…깨달아 확장해야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1979년부터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료원의 동료들과 나는 주류 의료(mainstream medicine) 속에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와 통증, 질병에 직면해 기존의 건강 돌봄(health care)과 의료 돌봄(medical care)시스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 돌봄 시스템의 갈라진 틈, 즉 사각지대에 (오래전부터) 빠져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건강 돌봄 시스템에는 단지 갈라진 틈이 있을 뿐 아니라 확실하게 눈에 띄는 깊은 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MBSR의 취지는 의사와 건강 돌봄 시스템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보완으로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들 자신이 현재 어떤 질환을 겪고 있든 상관없이 그들이 평생 동안 더 향상된 차원의 건강과 안녕을 누리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MBSR의 접근 방식이 질병과 만성 통증,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녕감을 향상하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이란 온전히 자각(알아차림)에 관한 것이다. 마음챙김은 맨 주의(bare attention), 분명한 봄(clear seeing),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혜(wisdom)를 계발시킨다. 여기서 '지혜' 란 실재를 잘못 지각하고 잘못 파악하는 것에 빠져있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실재성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실재를 잘못 지각하고 파악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의 신념 체계와 관념, 의견 및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무척 쉽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일종의 장막 혹은 구름을 만들어 종종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대개 자신의 습관적인 망상과 혼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주의

마음챙김을 할 때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울이는 주의에 따뜻한 사랑의 성질을 가져가는 것이다. 따뜻한 사랑의 성질이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으로, 자신까지도 품어 안는 우리 본성의 연민을 기꺼이 확장하려는 친절의 마음이다.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성질은 우리가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우리 본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따뜻한 사랑의 성질이 언제라도 의식의 전면에 더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잊지 않는 것이다.

명상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불교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다섯 가지 감각 외에 다른 감각이 존재한다고 본다. 곧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신경 과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불교는 명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섯 번째 감각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이란 머리로 하는 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각(알아차림), 즉 개념을 통하지 않고 아는 마음의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다. 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공간 감각과 함께 시간 감각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는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가 여섯 번째 감각으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런 비개념적인 앎의 능력, 즉 자각(알아차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봄은 또한 분명한 들음, 분명한 냄새 맡음, 분명한 맛봄 그리고 분명한 앎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앎이란 지금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 지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좌절, 초조함과 성마름, 성가심, 만족과 공감, 연민과 행복 등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자신의 몸에 터 잡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 피부에 닿는 공기의 부드러운 애무와 햇빛의 유희, 누군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드러난 표정, 몸의 일시적인 수축감, 한순간 마음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생각 등은 모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전히 현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자각(알아차림) 속에서 그것들과 만나기만 한다면 말이다.

고유수용감각과 내부감각

이제 과학은 인간에게 다섯 가지 감각 외에 다른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안녕에 지극히 중요한 추가적인 감각 능력을 우리가 타고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중 하나가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이다. proprio는 자기(self)를 의미한다. 고유수용감각이란 정지하거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공간 속 자기 몸의 위치를 알고 느끼는 감각이다. 매우 드물게 신경 손상으로 인해 고유수용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고유수용감각이 없으면 자기 몸을 내면에서 감각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이때 몸은 이전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올리버 색스(Oliver Sacks)라는 신경학자는 약물 부작용으로 고유수용감각을 상실한 어느 여성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자신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으며 자신의 팔이 움직이는 것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은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개념 통하지 않고 아는 마음의 능력
감각에 주의 기울일때 그 능력 자각
'온전한 자각' 체화 · 지속 유지해야

신체 동작의 유연성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러한 상실은 많은 차원에서 그녀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필수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의 몸이 부여받았지만, 그리고 비록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목숨이 그것에 달려있는 필수적인 감각에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가 말이다.

고유수용감각 외에도 내부감각(interoception)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감각이 있다. 이것은 자기 내면에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는 감각이다. 이것은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면의 체화된 느낌, 느껴지는 감각(felt sense)이다. 누가 당신에게 "요즘 어떠세요?"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마도 "좋아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바로 내부감각을 통해서다.

명상을 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몸의 감각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정좌 명상이나 걷기 명상 모두 마찬가지다. 이로써 우리는 온전한 자각(알아차림)으로 자신의 몸 안에 '거주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체화된 현존감(presencing)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각의 일체성

우리 눈에는 정말로 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경험을 지배하는, 의심할 바 없는 일면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구분은 자각(알아차림)의 근원적 일체성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자각(알아차림)의 근원적 일체성 속에서는 신비스럽게도 오직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아는 것만이 존재한다. 어쩌면 '자각(알아차림)하고 있음(awarenessing)' 만이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나' 라는 중심적 존재란 없다. 이렇게 주체(보는 자)와 객체(보이는 대상) 사이에는 어떠한 구분도 없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 눈에는 확실히 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관습적인 의미에서 볼 때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며 아는 것은 '당신' 이다. 그런데 그 '당신' 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물음의 신비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잠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느껴볼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조금 뒤 다시 살펴볼 것이다.

앎이란 곧 자각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오직 봄' 에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기적 외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의 비개념적인 앎도 포함이 된다. 또 '오직 들음' 에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아는 앎이 수반된다. 이 앎이 곧 자각(알아차림)이다. 우리는 생각이 개입하기도 전에 알(자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각(알아차림)은 어떤 생각이라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다. 생각이 봄과 들음 등 우리 경험의 다양한 측면으로 들어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라도 말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나는 자각(awareness)이라는 단어를 마치 동사인 양 '자각하고 있음(awarenessing)' 이라는 현재진행형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어법은 마음챙김 수행에 있어 중요하고도 독특한 느낌과 분위기를 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서 자각(알아차림)은 더 이상 '명사' 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의 사물, 우리가 얻어야 하는 바람직한, 그리하여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동사가 돼 하나의 전일적 역동성을 띄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최종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역동성은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탐구하고 자각(알아차림)하고 현존하며 마음챙김하면서 이 스트레스 가득한 그리고 때로는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편안하지 않은, 가끔은 비극적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체 모험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는 당신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거주자들, 생명체가 모두 포함된다.

삶 자체가 명상이 된다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뭔가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MBSR 훈련에 임한다. 그러나 그 환자들(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온전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것이야말로 자각(알아차림)의 중심성과 일체성에 내재한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당신은 '잘못된 것' 보다 '괜찮은 것' 이 더 많다고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MBSR 참가자들에게 그저 하나의 실험으로서, 그들의 이미 '괜찮은 부분' 에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각(알아차림)하게 한 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게 한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 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닌 다른 건강 돌봄 팀에서 담당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종종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의 매우 기본적인 요소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친절의 능력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이러한 차원들을 자각(알아차림)할 때 삶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다.

이글은 '불광출판사' 에서 펴낸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942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송파구청앞
• 올수리
• 시설비 없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50만원
• 전용 45평, 4층
• 건물주가 직접 세 놓음
010-3772-7514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금산읍 상옥리
• 건물 25평(등기 나 있음)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모든 살림 집기류 완벽함
• 시설 A급
• 몸만 오시면 됨
• 누구나 가능
• 가액: 2천 5백만원
010-8546-1267

사찰안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4178-27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고현동
• 평수 : 건평 60평
• 전월세 :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에어컨 2, 냉장3 등등 집기일체
010-4343-8545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시설 살림살이 일체 3500만원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시설 A급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포교원(급)안내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 거실,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 시설비는 이사비용정도
010-2542-222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때 아닐 때 마을에 들어간 것 허물”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2)

가류타이의 교화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의 일이다. 장로 가류타이가 아라한의 도를 얻고서 생각했다. ‘예전에 육군(六群)비구들이 사위국의 모든 집을 욕되게 했다. 내가 다시 청정하게 해야겠다.’

그는 곧 사위국에 들어가 999집을 제도했다. 그 가운데서 남편은 도를 얻었는데 아내가 도를 얻지 못했거나, 아내는 도를 얻었는데 남편이 도를 얻지 못한 집은 그 수에 넣지 않았다. 당시 사위국에 한 바라문의 집이 있었는데, 응당 성문(聲門)으로서 제도되어야 하는 인연이 있었다. 가류타이는 생각했다.

‘내가 다시 이 집을 제도한다면 사위성에서 천 집을 꼭 채울 수 있겠다.’

가류타이는 이른 아침에 발우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 걸식하면서 바라문의 집에 이르렀다. 주인은 없고 그의 부인이 문을 잠그고 전을 부치고 있었다. 가류타이가 신력으로 부인앞에 나타나자 부인이 놀라며 생각했다.

‘이 사문이 대체 어디로 들어왔을까? 이는 전이 먹고 싶어 들어온 것이리라. 나는 끝까지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눈알이 튀어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주지 않으리라.’

그러자 가류타이는 신력으로 두 눈을 튀어나오게 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다시 생각했다.

‘눈이 튀어나와 주발만 해져도 난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가류타이는 또 신력으로써 금방 눈을 변화시켜 주발만큼 커지게 만들었다. 부인이 다시 생각했다.

‘아니다. 내 앞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봐라. 내가 주는가?’

가류타이는 이에 신력으로 부인의 앞에 거꾸로 섰다. 부인이 다시 생각했다

‘아니, 죽어버린다 해도 난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가류타이는 다시 신력으로 멸수상정(滅受想定)에 들었으니, 마음과 생각이 모두 스러져서 감각이 없어졌다. 바라문 부인은 가류타이를 끌어봤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지라 너무 놀라고 두려워 생각했다.

‘이 사문은 언제나 바나사닉왕 궁중에 돌아다니던 말리 부인의 스승이다. 만약 내 집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들은 이제 낭패를 볼 것이다. 그가 만약 살아나기만 한다면 전 하나를 줄 텐데.’

그러자 가류타이가 문득 선정에서 나와 바라문의 부인을 바라보았다. 놀란 부인은 곧 바구니 위에 부쳐놓은 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쳐놓은 것들은 너무 좋아 보여 아까워서 주지 못하고, 바구니 가장자리에 부서진 전들을 긁어모아 전 하나를 다시 부쳤다. 그런데 새로 부친 것이 먼저 부쳐놓았던 것보다 더 좋아보였다. 그래서 부인은 전에 부쳐놓았던 것 중에서 하나를 주려고 전을 하나 골라 들었더니 나머지 전들이 줄줄이 붙어 따라 올라왔다. 가류타이가 말했다.

“부인이여, 나에게 몇 개를 주려 하신 것입니까?”

부인이 네 개의 전을 주려고 하자 가류타이는 받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이 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대가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정사 안에 계신 스님들께 하십시오.”

부인은 전생에 이미 선근을 심었던 사람인지라 이내 깨닫게 되었다.

‘이 비구승이 사실은 전을 탐낸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가엾이 여긴 까닭에 와서 먹을 것을 빌었을 뿐이구나.’

부인은 곧 전 바구니를 들고 정사로 가 스님들께 보시했다. 스님들에게 전을 드린 뒤에는 가류타이 앞에 와서 앉았다. 이때 가류타이는 그 인연



삽화 · 강병호

을 자세히 살피고 그를 위하여 묘법을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바로 자리에서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어 법안의 깨끗함을 얻었고, 삼보에 귀의하여 우바이가 되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돌아오자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나는 지금 벌써 수다원의 도를 얻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가셔야겠습니다.”

남편인 바라문도 즉시 나아가자 가류타이는 그를 위하여 묘법을 말했고, 그도 법안의 깨끗함을 얻고 우바새가 되었다. 그리고 있는 재력을 다하여 가류타이를 공양했다.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그의 아들에게 명하여 자신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계속하여 공양하도록 했다. 그의 아들은 명을 받들어 아버지에게 배운 법대로 잘 공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베틀 위에서 베를 짜고 있다가 우연히 도둑 두목을 만나게 되었다. 그 두목은 나이도 젊고 잘생겼기에 부인은 그를 유혹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때 가류타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다. 가류타이는 바라문의 며느리를 위하여 음욕의 허물을 설명하고 파계의 죄를 꾸짖었다. 부인은 가류타이가 일을 알아버렸으니 행여 남편에게 발설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인은 두려운 마음에 이내 꾀를 내었는데, 병을 핑계 삼아 그에게 머물러 주기를 청했다. 가류타이는 그 집에 머물면서 그를 위하여 설법을 했다. 부인이 간곡하게 잡으므로 오래 머물게 되었는데, 어느새 해가 저물어버렸다. 그때에 가류타이는 일어나 쓰레기더미 쪽으로 갔는데, 도둑의 두목이 숨어 있다가 날카로운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 쓰레기더미에 묻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사위성에 들어가 쓰레기더미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신력 때문에 죽은 시체가 공중으로 솟구쳐 나왔다. 비구들은 시신을 모셔 다비를 치르고 탑을 세웠다. 바나사닉왕은 가류타이가 바라문 집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내 그 바라문의 집안을 멸문시켰다. 그리고 도둑의 무리들은 모두 붙잡아다가 손발을 끊어버렸다. 비구들이 걸식을 다니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허물은 때 아닐 적에 마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십송률〉 삼송 제 4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㉒



인연은 곳곳에 있어

뜻밖의 교화

친구의 남편 배선생이 있다. 친구는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이지만 그의 남편은 결혼 후에 알게 된 사람이다. 큰 몸집에 거친 말투로 국회에 근무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구의 남편이지만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고 나를 곱게 대하지 않았다. 친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부산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는 동안 친구는 아이들과 서울에 있어야 했고, 배 선생은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내게 되었다. 그는 말이 매우 거친 사람이었다. 걸핏하면 내가 절에 돈이나 갖다 바친다며 시비를 걸었으며, 부처님이나 스님에 대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의 남편이었지만 우리는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내가 심하게 화낼 때면 남편은 “몰라서 하는 말이니 의연하게 받아 넘기라.”며 나를 달래기도 했다. 답답하고 화가 난 나는 애꿎은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고 했다. 며칠 후 친구는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나와 한 동네에 집을 얻었다. 친구와는 한 이웃이 되었다. 멀리 서울에 살던 친구가 이웃이 되어 반가웠지만 친구의 남편과는 여전히 종교문제로 종종 다투었다.

지인 귀의에 ‘불성’ 다시 새겨
돌아볼 것 있을 때 보람 느껴

그런데 해인사 일타 스님을 만난 이후부터 배 선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그의 말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내가 집에서 백팔배하는 것을 보고는 그도 매일 백팔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범어사 행사에 참석하신 일타 스님 지관 스님 법정 스님 혜인 스님 네 분의 스님이 점심 공양을 우리 집에서 하게 되었다. 이웃 도반들도 함께 와 있었다. 스님들과 담소를 나누다 거칠기만 하던 배 선생님이 이젠 매일 백팔 배를 한다고 자랑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구도회에 나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매일 사경도 하며 불교교리도 배우며 불자로 변해갔다. 그 뒤에 배 선생은 나를 만날 때마다 “이 공덕은 대원성의 것이고, 항상 감사한다.”고 했다. 몇 년 전 법복이 한 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내가 한 벌 선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니 배 선생이 백팔 배를 하는데 낡은 바지를 입고 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선물한 법복은 어쩌고 헌 옷을 입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옷은 좋은날 행사 때만 입는다고 했다. 이제는 독실한 불자가 된 배 선생을 보면 가끔 8년 전의 배 선생이 생각난다. 배 선생을 보면 부처님이 이미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초파일

오늘은 불기 2557년 4월 초파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날마다 버스 한 대, 또 두 대로 나눠 타고 부부동반 연등달기로 해인사에 갔었을 것이다.

부처님 생신날이라고 미역국에 하얀 쌀밥 그리고 김치를 준비하여 현풍 휴게소에서 내려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 얹어주면 제각기 언덕 풀 밭 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곤 했다. 가는 내내 내가 선창하고 도반들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마냥 행복해 했었다. 그때가 많이 그립다.

오늘 나는 우리 모임이 있는 소림연화선원에 갔다. 일찍부터 몰려드는 신도님들을 맞이하고 등 접수도 도우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엔 남편과 홍법사에 갔다.

마침 동자승 열 분이 발우공양 시연을 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동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귀엽고 고맙게 생각되어 모두가 잘 자라 참된 불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했다.

또 멀리 있는 우리 가족 모두의 서원 등도 달았다. 다시 범어사로 갔는데 주차 할 곳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내려오다 무명사를 지나게 되어 참배하고 가기로 했다. 입구에서 무명 스님을 만났다. 8층 짜리 건물은 잘 꾸며진 포교와 기도 도량으로 손색이 없는 절이었다.

금정산 자락을 배경으로 지어진 절이어서 뒷산의 상록만으로도 신심이 절로 난다고 이 절 신도들은 자랑을 했다.

가끔 신심으로 가득한 젊은 불자들을 보면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 그 날도 무명사의 젊은 신도들을 보면서 열심히 신행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일인 것 같다. 세월이 지나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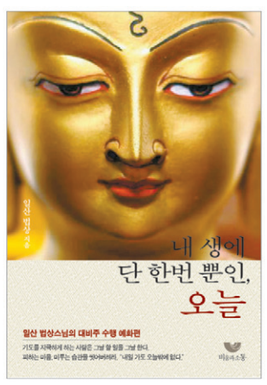
층층이 모셔진 부처님께 예를 다해 절을 한 후 안내에 따라 스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초파일을 맞아 덕담으로 법문을 하고 계셨다. 스님은 지금의 도량을 일구기까지 힘들게 살아온 지난날을 말씀하셨다.

기도의 원력과 한결같은 신심의 결과가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일구어 냈다. 지금의 절 뒷산, 금정산 중턱에 작은 비닐법당 한 평으로 시작한 불사였다고 한다. 신도님들의 정성으로 이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세 번째 스님을 뵈었다. 처음엔 이 절 불교대학 개설 때 내빈으로 참석해서 뵈었고, 두 번째는 도반의 집 천도재에 참석했을 때 뵈었다. 온 몸 가득히 가피를 입으신 스님의 모습은 신도들이 충분히 믿음과 공유함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스님의 원력과 신심의 법문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우리 5명은 자정이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이 초파일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불성의 광명과 무한능력
일깨우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대비주수행’
방송강의 中

일산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 예화편
내 생에 단 한번 뿐인, 오늘

일산법상 지음
46판 | 올칼라 | 200쪽 | 10,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비주를 수행하면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대비주 전문 수행도량 일산 덕양선원장 법상스님이 다양한 연령층의 신도들에게 대비주를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실제 경험한 수행일화를 기록하고, 이를 불교적으로 해설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책.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창고[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로 불리우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이 참된 행복을 불러오도록 일깨운다.

덕양선원 http://cafe.daum.net/zeol (031)907-7172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여러분의 마음을 좀더 둥글고 넓게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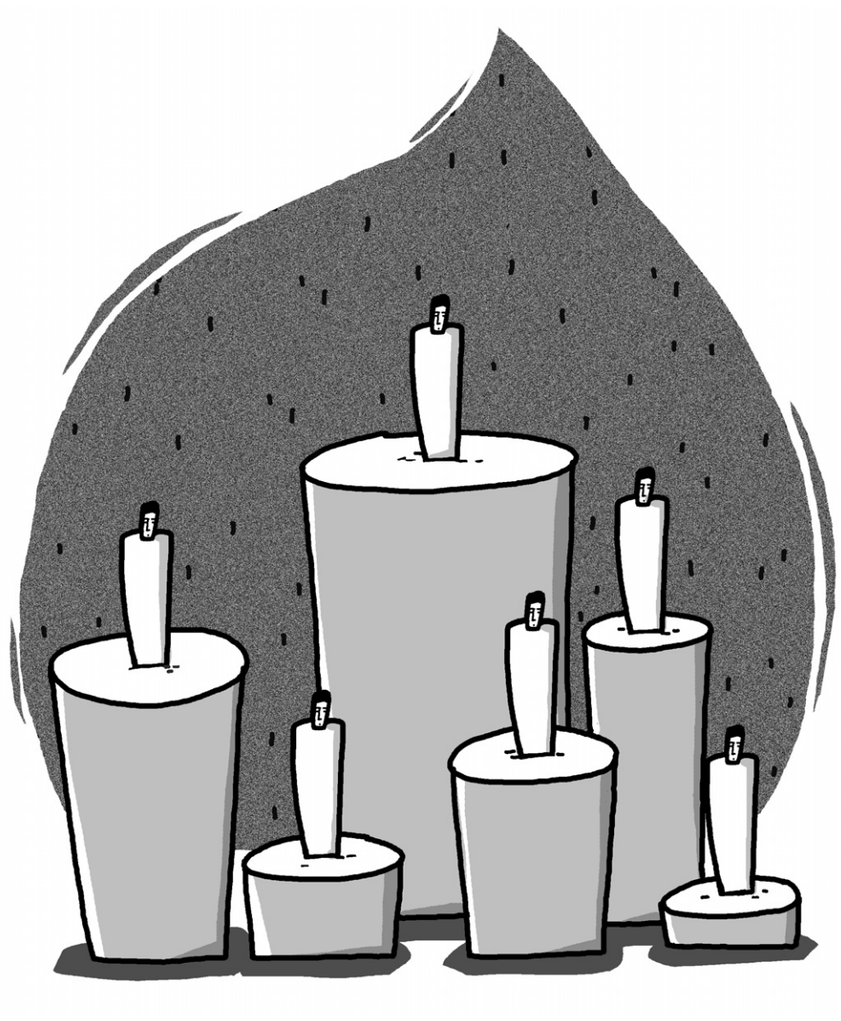
오공의 뜻에 대하여

문)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오공 즉, 공심 공생 공용 공체 공식의 뜻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내가 항상 둘로 보지 마시라, 둘로 생각하지 마시라, 둘로 행동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뿌리가 내려서 완벽하게 자기가 잡혔다면 꿈에도, 하다못해 벌레를 봐도 둘로 보지 않는다. 어떠한 무서운 귀신을 본다, 어떠한 뱀을 본다, 어떠한 큰 짐승을 본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앞에 닥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생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공생. 내 몸뚱이 하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공생입니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도, 오장육부에 생명들이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를 봐도 공생이요, 외부의 모두를 봐도 공생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 공을 갖다가 수만 수십만 개를 한데 합쳐도 공은 공이거든요.

모든 살아 있는 것도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생명은 똑같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하루만에 죽는 거나 며칠 만에 죽는 거나 여든 만에 죽는 거나 백 살 만에 죽는 거나 생명이라는 자체는 똑같아요. 또 마음을 천차만별로 쓴다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게 자기네들 통 속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네 끼리끼리 살기 때문에, 그 끼리의 모습, 행동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이치를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보살들 사는 생각을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다를지언정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마음은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죄 다르지만 그 마음 씀씀이야 어디 둘이겠느냐. 이게 바로 공체입니다. 요만한 모습도 있다는 거, 움죽거리고 산다는 거 이거죠. 공체. 우리가 전부 공체죠. 이 짐승도 이렇게, 소나 무엇도 딱 배 갈라서 이렇게 다 해 놓으면은 참 그거 볼 만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육신을 잘라서 갈라놓으면 그 육신이 죽는 바람에 그 육신 속에 있던 생명들도 다 같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공체며 공용이다. 공체이기 때문에 공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용이다 이런 거는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더 불쌍하게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전자에 어떻게 산 것을 다 알게 돼 있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부 못하고 사는 것도 다 일리가 있어서 공부 못한 거고 또 그렇게 못살게 된 것도 일리가 있어서 못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살게 되는 것도 잘살게 되는 것도 그게 다 똑같아요. 잘산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못사는 사람 근심이 요만하다면 잘사는 사람의 근심은 큰 대들보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잘살든 못살든, 못사는 사람은 끼니를 거를까봐 앨 쓰지만은 잘사는 사람은 끼니를 거를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참, 우리 같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도 나를 버리지 못해서 편안치 못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림 · 최주현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다,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야 진짜 보살행으로 넘어간단 얘깁니다. 남이 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이러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서 행동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요. 그 행동은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그게 공용이다. 공체이기 때문에 공용이다. 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 돌아간다. 찰나찰나 환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일들을 그냥 여여하게, 바뀌는 대로 그냥 바꿔지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여여한 생활을 산같이 물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들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그걸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잠재해 버리죠.

공식 하면은 벌써 원식인데 '공식' 하니까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저 모습 안으로 싹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모습 안으로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만 개가 들어갔다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있는 자체가 바로 공식이기 때문이죠. 공한 자체기 때문에 이 공한 자체에 이 공한 자체가 모두 들어가면 그냥 공식이 돼 버리죠.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 보살도 중생하고 둘이 아니다. 벌레하고도 둘이 아니다. 이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그 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른다면 도깨비장난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그냥 체가 생겨 가지고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그냥 움죽거리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정신 차려서 알지 못하신다면 요다음 생에 자기가 훨훨 털고 나설 수가 없어요. 이건 '듣고 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 가운데에 바로 듣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 아닌 모습, 생명 없는 생명, 마음 아닌 마음, 함이 없는 용, 또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먹음 없이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바닷물을 삼킨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삼켰으면 바닷물을 토해 낼 줄을 알아야 하는 그 도리가 원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로 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러면 그 바닷물을 다 집어먹었을 때에 그 물 속에는 뭐든지, 별의별 게 다 들어 있을 테죠. 죽는 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것도 들어 있고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그 마음속에, 별의별 가정 속에 그 애타는 마음들, 이쪽에는 이런 거 저쪽에는 저런 거, 모두가 이렇게 들어 있는 그 자체가 몽땅 그 바닷물 한 속에 들어 있죠. 바닷물 한 속에 들어 있는 거를 다 삼킬 수 있어야만 그게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식이라고 진짜 하려면 그것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물을 정화시켜서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이 문제가 참,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헤어지고 이러지만은 그걸 헤어지든지 듣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살아나가면서 악한 사람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일도 생기고 선한 일도 생기는 데서 다 이거를 둘 아닌 도리를 배우시란 얘기죠. 악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으로서 둘이 아니게끔 관해 놓으면 그것이 스스로서 둘이 아니게 처리가 된단 얘기죠. 그것이 이렇게 공부하는 길이거든요. 또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진실한 마음으로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를 내 탓으로 돌리고 그걸 관해 놓아라. 상대방도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성취된다거나 그것이 잘 무마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경험이자 바로 자기가 길을 가는 데에 걸림 없이 여여하게 걸어가는 길이죠. 이게 모두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런 겁니다.

여여하게 된다는 것이…

문) 대행 스님께서는 10년 이상을 산에서 많은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집에 가서 밥 먹고 편안하게 자면서 마음엔 고통만 있고 요럴까 조럴까 생각도 많고 그러니 스님처럼 여여하게 된다는 것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종이쪽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여여하지 못한가? 다들 부처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또 '내가 저렇게 보살이 되지 못했고 또 부처가 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곤고하고 자꾸 이렇게 끄달리게 되고 이렇게 괴롭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오직 내가 했던 이것도, 이것도 바로 부처의 길임에는 틀림없다 이겁니다. 부처의 길이에요, 이 가는 길이. 굶었든 먹었든, 따귀를 누가 와서 그냥 대빵 주먹으로 갈기든 '이게 부처의 길이다.' 이럭하고선 가 보세요. 그럼 정작 진짜 부처가 되죠. 전부 부천데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때가선.

그리고 요럴까 조럴까도요, 부처의 길입니다. 요렇게 조렇게 바뀌지는 것도 부처의 길입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이 왜 걸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요렇게 바뀌졌든 조렇게 바뀌졌든 바뀌진 사이도 없고 안 바뀌진 사이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 낸 대로. 그 도리를 알기 때문에 종이짝 하나 사이다 이겁니다. 제발 좀 어렵게 생각들 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세요. 그러면 뭔가가 자기한테서 그게, 즉 말하자면 도둑질을 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도둑질이 아주 그냥 도가 트듯이 이 공부도 줄창 그러다 보면은 바로 자기가 진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시간 정해 놓고 좌선하고 있는데

문) 참나를 알아보리라고 법당에 가서 좌선을 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좌선을 해야만이 되는 건 선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모두 일거일동이 다 참선이거든요. 앉아서 좌선을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좌선을 해서 내 마음을 숙연히 하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리하게 이렇게 수행은 할 수 있을지언정 도는 이룰 수가 없어요. 도라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크고 작고 악하고 선한 것을 한데 합친 눈물이 바로 자비라 그랬거든요. 악하고 선하고 안고 서고 눕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움죽거리는 거 하나하나, 티끌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놓는 것, 우리가 놓고 돌아가는 거.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쉽겠군요.

'색즉시공' 이랬죠? 색으로부터 들어갔어요, 공으로. 공에서 '공즉시색' 색으로 다시 나왔거든요. 그랬으니까 색으로 들어서 공을 돌아서 색으로 다시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참선인가 말입니다. 우린 다시 '부처님께서 동쪽의 샛별을 보고 깨쳤다.' 그랬는데, 우리는 임신을 해서 이 세상에 이 육신이 났다. 또 육신이나 가지고 성장을 하니까 마음을 깨쳐라. 마음이 나야지 육신과 더불어 실상이 된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 그때는 또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가질 게 없고, 가질 게 없는 걸 알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색으로 다시 나와요. 그럴 때 하나하나 소소영영하게 이것이 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또는 물질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도리를 알면은,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가지고 다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든지 잘하는 거든지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어떠한 물건이 되든 어떠한 물질이 되든 그런 거를 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 공부입니다.

> 내가 가는 이 길이 부처의 길입니다.
> 굶었든 먹었든
> 누가 와서 그냥 따귀를 대빵 주먹으로 갈기든
> '이게 부처의 길이다.' 이럭하고선 가보세요.
> 그럼 진짜 부처가 되죠.
> 도둑질을 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아주 그냥 도가 트듯이
> 이 공부도 줄창 그러다 보면 바로 자기가 진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베푼다는 것은

문)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그저 돈을 내어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인지, 그게 진정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헛갈립니다. 진정으로 베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거저 이 컵을 누구를 줬으면 컵이 꼭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돈을 만약에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이 어디 틈을 타서 길을 찾아서 자기한테 다시 그 돈의 몇 배가 돼서 오더란 얘깁니다. 그런데 이걸 내 주면은 우리가 당체 어렵게 되고 못살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움죽거리게 되니깐요. 마음뿐이 아니라 몸까지 움죽거리게 되니깐요.

그런데 길에서 앉은뱅이라든가 또는 서서 다니면서도 부모가 없어서 얻어먹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그냥 주면 또 그 돈이 없어지게 돼요.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그 애를 한번 지켜보니까 돈을 가서 다 뺏겨요. 뺏기고 난 뒤에 저녁 한 끼니 우동 한 그릇 사 먹여요. 왕초가 있더군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줘서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그 길을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게 빠져나가게 해서 좀 저절로 잘 사람을 만나서 사람 노릇을 하고 살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머니에서 탁 털어서 딱 줄 때에 내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언제 이거를 쓰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거 못 줍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돈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다 없앱니다. 이게 급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급하니깐 뺐 줬다. 그런데 주머니가 비었으니깐 그 이튿날 또는 그날 밤에 쓸 돈이 또 주머니에 들어오더라. "스님, 그거 당장 쓰실 건데요." 이러거든요. "쓸 거니깐 쓰지, 안 쓸 거라면 쓰니?" 그러죠. 쓸 거니까 쓴다 이거예요. "주머니가 비는데요." 그러거든요. "응, 주머니에 비면 또 담기겠지, 뭐." 이게 믿지 않을는지 모르시겠지만 자불이 알고 있으니깐 이거 다 갖다 주게끔 만듭니다. 돈 때문에 애 쓰지 않는 사람이 갖다 주게끔.

그래서 돈 때문에 금방 죽겠다, 자식들하고 죽겠다 이러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받는 거는 다 받지만 주는 거는 왜 그럼 몰래 그렇게 하시는 일이 많으냐. 몰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죠. 내가 만약에 가난해서 그 돈을 좀 받아 가는데 그걸 전부들 알려 놓으면은 내가 미안해서 거기를 어떻게 또 발을 댑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깐 여러분도 그렇게 하든 못하든 마음은 좀더 넓게 둥글게 쓰시라 이겁니다. 마음을 둥글게 쓰시면은 자식네에도 그게 내려가고 그냥 대대로 이렇게 물결 흘러서 내려가듯 그냥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 받아라 안 받아라 이걸 떠나서 그냥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저같이 무식해도 마음공부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근근이 살다보니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마음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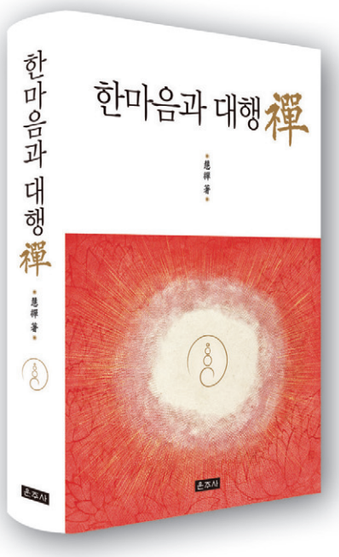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이 없고 인간이 없다면 글을 어떻게 모두 만들어 놨을 겁니까. 글도 이차예요. 내 근본부터 알아야 그 글도 필요하게 쓸 데가 있는 거지, 내 근본을 모르고서 어떻게 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식이라는 건 나중에 내가 공부를 다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남한테 얘기해 줄 때 쓸 수 있는 그런, 즉 말하자면 언어라고 그럴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며느리도 또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돈집도 무식하고, 이 지금 양쪽 사돈이 다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돈집에서 딸을 좀 보내 달라고, 자기 마누라가 죽었으니깐 보내 달라고 편지를 하려니 글을 알아야 편지를 하죠. 그래서 하얀 백지에다가 관을 하나 그렸습니다. 관을 하나 그려 놓고서 그냥 보냈습니다.

저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왜 대막대기 들고 선 이렇게 한 그거를 하나를 그려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그리고 그 대막대기 그리고, 또 사람 죽으면 머리에 쓰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건 쓰고 있는 거를 하나 그려서 놓고 관 하나를 앞에다 그려 놓고 그래서 그걸 착착 접어서 보냈습니다. 예전에야 사람들이 들고 다녔지 언제 뭐 지금처럼 부치고 이랬습니까?

그래 사람을 시켜서 보냈더니, 그쪽은 그쪽대로 무식한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깐, "옳지, 옳지! 그래 맞았어. 오, 상을 입었구나." "얘야, 아가야!" "예." "너희 상을 입었으니 어서 가 봐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얘, 이걸 봐라." 그러니까 그 며느리조차도 무식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깐 아, 참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야, 글도 멀고 다 필요 없구나. 이게 좀 좋은가. 이거는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고 아예 그게 참 명필이로다." 저 아버지가 명필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그러고 하니깐 사돈 영감인 시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참, 우리 사돈, 참 잘 만났어. 명필이야." 이랬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그 뜻으로 아는 거, 이게 우리가 학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데 쓰는 학식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진실하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그 진실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에다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혜를 풍기면서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그 글도 필요하겠지만, 이 왕지사 글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명필로 쓰자고요. 그래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기가 융통성 있게 지혜를 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자 앞에는 누가 그걸 당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음과 대행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툼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자 세상보기

'일베' 와 일본 우익의 공통분모



최훈동
서울대의대 겸임교수
한별정신병원장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역사를 왜곡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한국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강제 징용당한 위안부를 매춘부로 폄훼하는 등 피해국가를 능멸하는 언행을 반복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는 역사 왜곡과 막말이 도를 넘어서는 글들이 올라와 수많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18 광주 항쟁을 근거 없는 악플로 비난하고 심지어는 학살된 시민들의 주검을 '홍어'로 표현하는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악언으로 사이버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선, 흑백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한 쪽은 천사요 한 쪽은 악마이다. 한 사건을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해석하면 흑백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상대에 대한 무자비한 적개심이다. 아무리 적이라도 포로가 되면 인도적 처우를 해주어야 온당한데,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배려는 보이지 않고 가해자의 섬뜩한 공격성만 돋보인다. 두 사건에 깔려있는 심리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선을 넘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다. 증오심이 넘치고 적개심이 가득하다. 그 영향은 인간정신을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난폭하게 충동시키고 있다.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널리 유포시키고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분열을 책동한다. 두 사건 모두 선한 양의 얼굴을 자랑한다.

자신들은 천사가 되고 상대방은 악의 축으로 몰아 부친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하고 중세의 마녀 사냥이 그랬었다. 20세기의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대동아 공영이 그러했다. 일본은 대동아 공영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수많은 나라를 강점하고 식민 지배하였지만, 패전후 독일과 달리 반성 대신 오히려 자기합리화 작업에 몰두하고 자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충되는 견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며 그 과정을 중시한다. 결과에 집착하여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독단으로 경계한다. 상대를 무시하고 나아가 굴복시키는 과정은 독재요 폭압이다. 5.18광주 민주화 항쟁도 어떻게 발생했는지 과정을 보면 좌파 반동인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 오랜 군사 독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매일 군중 집회로 봇물처럼 터지던 와중에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전국이 군부의 서슬에 숨죽일 때 유일하게 항거한 곳이 광주였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을 유혈 진압하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 및 오열들로 선량한 시민들을 폄훼하였다. 눈과 귀가 가려진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흘러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민주항쟁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충들은 시작과 끝을 완전히 뒤바꾸어 논리를 펴고 있다.

타인을 속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쉬워도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기적 욕망이 진실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폭력을 가하는 것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을 직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도 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종교계에서 마저 왕따가 활개치고 체벌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주입시키려는 수직적 권위주의가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명령과 복종의 지배논리가 지배하는 수직적 사회이다.

사이버 공간의 독설은 터널 비전에 기인한다. 터널 속에서 보이는 터널 밖의 하늘은 매우 제한되어있지만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 선으로 착각한다. 사이비 종교가 고립주의를 택하는 것도 극우파나 극좌파의 강경한 신념과 행동들도 터널 비전의 한 표현일 수 있다. 바른 견해가 팔정도의 으뜸을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음 쓰는 데도 길이 있고 행동하는데도 길이 있고 말과 글에도 길이 있다. 밥을 먹을 때 돌은 골라 먹듯이 언행을 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는 않는지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언행을 견강부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그러한지 자신의 열등감을 덮기 위해 그러한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러한 언행을 하는지 등등 늘 깨어 살펴봄이 붓다의 알아차림 명상법이다.

호흡을 보고 마음을 보고 감정을 보고 생각을 보고 그 가운데 흐르는 이치를 깨닫는 과정이 참 자기를 찾는 명상이다. 자신 안에 흐르는 두려움과 분노를 보고 그 두려움과 분노가 사랑의 결핍에서 기인함을 보게 한다. 밖으로 쏟아 붓는 자신의 언행을 잠시 멈추고 자기 내면으로 돌리어 의도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적 삶이 긴요한 처방이라 하겠다.

늘 자신을 살피고 깨어있는 삶은 자신을 존중하고 나아가 모든 존재를 부처로 존중하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 불교의 원융무애한 자애로움이 상대를 감싸며 다른 의견도 느긋이 경청하는 수평적 사회가 되어야겠다.

社說

청소년 심성계발 기대되는 이유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 심성계발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폭력과 게임중독 등으로 심성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분 명상집중법은 이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2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10분 명상'을 지도하며 활성화시킨 장본인이다. 최초 1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15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반복훈련 프로그램으로 한 사물을 집중해서 응시하거나 소리를 듣고 외우는 명상법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집중력 향상과 함께 심신안정 및 기억력, 학습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분 집중명상 효과에 대해 혜거 스님은 "꿈이 있으면 자연히 학업 집중력이 생겨난다.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아성취 동기를 조사한 결과 명상 이후 학업의 열의가 1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신있게 설명했다.

실제로 10분 명상을 체험한 청소년들은 10분 명상을 통해 시간 관리와 긍정적 태도 등 삶의 방식이 변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나를 돌아보고 여유를 찾는 습관이 생겨나 학업성적도 절로 올랐다는 의견도 많다.

이쯤되면 명상의 효과는 확실한 것 같다. 명상을 통한 자기발견으로 학생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꾸는지 알게 하는 것도 더불어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의 언어순화, 학교폭력 예방, 입시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日 정치인 망언, 한일 불교가 나서자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일본 보수 정치인들이 최근 들어 우경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망언 사태이지만 피해국가로서는 한 귀로 듣기에는 거북한 요소가 적지 않다. 특히 피해 사실 명백한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들의 인성과 상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오죽했으면 나눔의 집에 거주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김순옥, 정복수, 김군자 등 9명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비상식적 언행으로 고령의 피해자 할머님께 또 다른 폭력과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을까.

그럼에도 몇몇 일본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용기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조선 침략 참회기〉를 발간한 이치노헤 쇼고 운쇼사 주지 스님과 구보이 노리오 모모야마 학원대학 前 교수, 구로다 요시히로 오사카 쇼인 여자대학 前 강사 등 3명은 5월 23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 지식인들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첫 번째 사례로 이들이 이 자리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밝힌 것은 영토주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고 해당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그들 역시 패전 후 전범 국가로의 멍에를 가지게 됐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正道)를 벗어난 일본 정치권의 행태에 한일 양국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독도 방문 후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과의 통화에서 "일본에 돌아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고 이를 역사교과서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종교가 가야할 길이다. 한일 양국의 정신문화의 근간인 불교가 올바른 역사인식의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발언대

일본 정치인 위안부 망언 사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시장 등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반역사적 · 반인권적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박옥선 · 김군자 · 이옥선 할머니의 육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



이옥선 할머니(87세)

내가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인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내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끌려갈 당시 16세 어린소녀였는데, 무엇을 알겠어. 친구들과 뛰어 놀고, 엄마 품이 그립고, 공부를 하고 싶었던 시절, 그리고 장래 꿈을 꾸었던, 천진난만한 나이에 말이야.

지금 일본 정치인들은 나를 자발적으로 돈벌러간 매춘부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제 정신입니까?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우리를 또 한번 죽이는 것이다.

한국 나눔의 집 직원들 만났을 때, 그 역사에 대해 부끄러워서 얘기를 똑똑하게 못했잖아. 이제 내가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은, 일본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나의 역사를 왜 너희가 부정해"



박옥선 할머니(90세)

어린나이 끌려가,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했다.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그런 망언을 함부로 할수 있느냐, 내가 겪은 역사를 이야기 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부정하느냐.

당신들이 나눔의 집에 방문해 역사의 현장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너희들 같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게 인간의 생명의 존중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반복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발과 망언은 일본의 역사교육의 문제라 생각한다.

이번 망언에 대해, 우리에게 공식사죄하고, 빨리 해결하라.

"내 몸에 칼 자국 보여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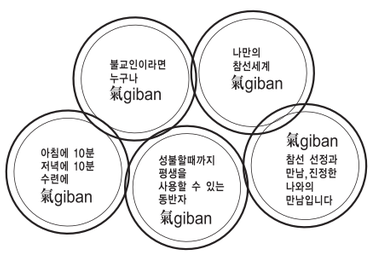
김군자 할머니(88세)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의원들 한테 강제연행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 했고, 그 당시 일본 놈들한테 내 청춘을 돌려 달라고 했어. 나는 "배상금도 필요 없다고, 일본놈들 한테 더러운 배상금 받고 싶지도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

지금 일본 총리와 젊은 오사카 시장이 망발과 망언을 하는데, 너희들 내 청춘을 돌려내라고! 끌려 가기 전, 내 모습 그대로 말야.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 하지마. 너희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눔의 집으로 와서, 나하고 이야기 하자. 내가 가고 싶어도, 너희들이 남긴 상처로 걷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와라. 내 몸에 칼 자국을 보여주마. 더럽고 치사한 놈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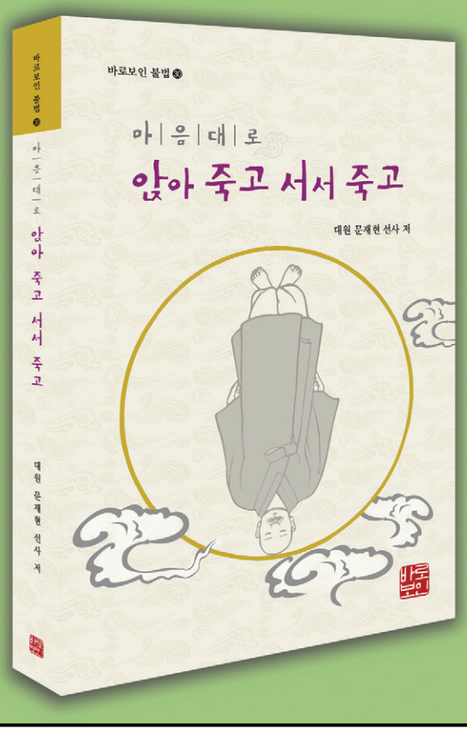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

마 | 음 | 대 | 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 - 59권(30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 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 30권 중 21권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전질 구입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 031-534-3373 / 010-9043-1016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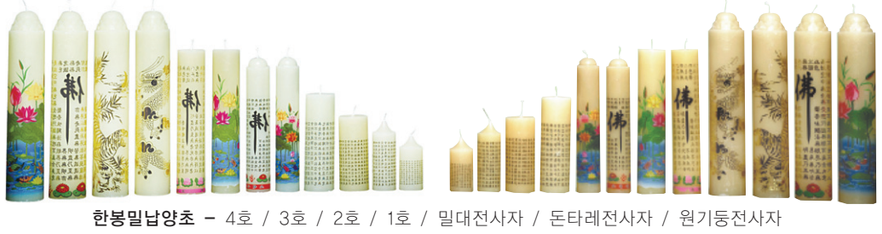
3×6사군자 (7.4∮×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